

NEWS SUMMARY

2008.10.31

자산운용협회 홍보실

KRX100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환율 (원/달러)
 +257.25	 +115.75	 +30.46	 -177.00
2,370.91	1,084.72	296.05	1,250.00

• 유가증권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10935.5	12640.1	1704.6
외국인	13236.8	13452.6	215.8
개인	48334.7	46285.1	-2049.5
기타	1431.3	1504.1	72.9

• 코스닥

투자자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분	매도액	매수액	순매수액
기관	353.2	465.3	112.1
외국인	817.3	715.5	-101.8
개인	7090.5	7046.1	-44.4
기타	87.5	117.9	30.5

• KOSPI 200 선물·옵션

단위: 포인트

종목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미결제약정
11월물	139.70	12.70	203,097	118,476
콜127.5	20.95	13.05	2,519	22,598
풋127.5	3.35	-6.20	66,132	44,582

• 금리

종류	당일시세(연%)	전일대비
물	4.18	-0.06
CD(91일)	6.06	-
회사채(AA-3년)	8.05	-0.02
국고채(5년)	4.58	-0.13

• 환율

단위: 원, 현찰거래, 외환은행

통화	고액 팔 때	고액 살 때
미국 달러	1257.11	1301.89
일본 100엔	1274.97	1320.37
유럽 유로	1655.34	1722.54
중국 위안	177.98	200.45

통화스와프 '축포' 코스피 115P↑ 원·달러 177원↓

한국과 미국 간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 성사로 국내 금융 시장이 오랜만에 함박웃음을 지었다. 주가는 하루 사상 최대폭으로 오르며 단숨에 1100선에 다가섰고 환율은 폭락하면서 1200원대로 내려섰다. ▶관련기사 A2,3면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77원 떨어진 12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하락폭으로는 1997년 12월 26일의 338원 이후 최대다. 원·엔 환율도 전날보다 100엔당 200원 이상 폭락, 1270원대(오후 3시 기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이날 새벽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양국이 원화와 달러화를 최대 300억달러까지 맞교환할 수 있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공동 발표문에서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은 이미 체결된 FRB와 10개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와 마찬가지로 세계 금융시장의 유동성 사정을 개선하고 미국 달러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경제기초가 건실한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은행은 원화를 대가로 최대 300억달러까지 달러화 자금을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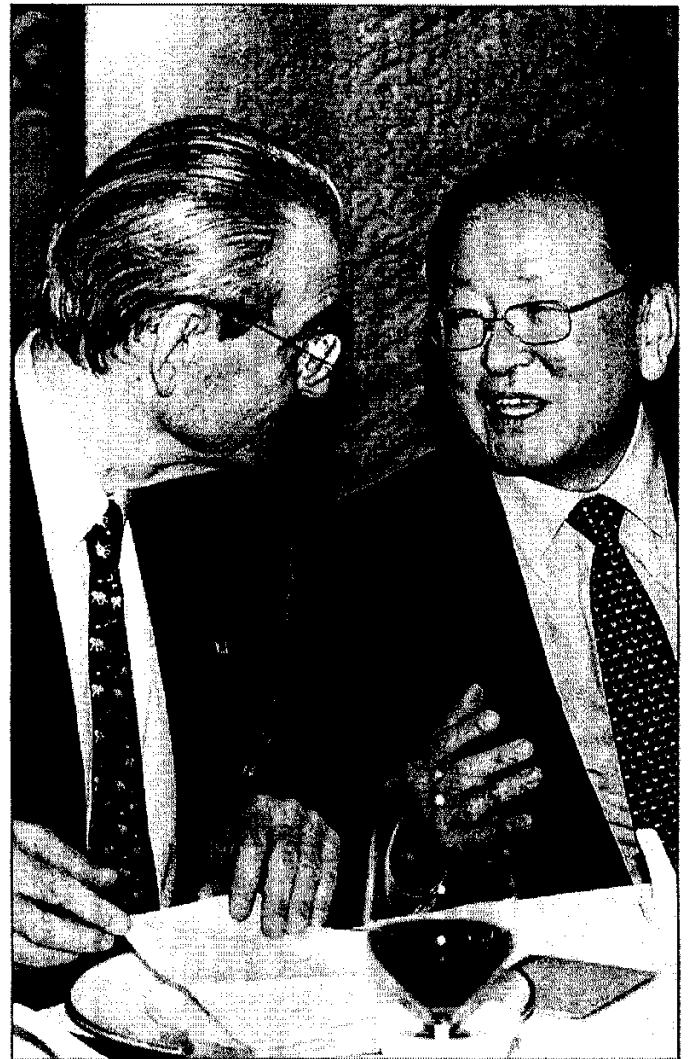
급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3~4일 안에 공식 체결되며 계약 만기는 내년 4월 30일, 교환 비율은 교환 시점의 시장환율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하고 한국은행이 10월 경상수지가 10억달러 이상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머지 않아 달러당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1000선을 뚫고 올라선 후 상승폭을 키우며 115.75포인트(11.95%) 폭등한 1084.7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폭과 상승률은 증시 개장 이래 최대였다. 코스닥지수도 30.46포인트(11.47%) 오른 296.05를 기록, 300선에 성큼 다가섰다.

오후 들어서는 미국 나스닥선 물마저 급등세를 탄 데다 아시아 증시도 동반 급등하며 코스피지수는 장중 한때 1100선마저 넘봤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9.96%, 대만 가권지수는 6.29%나 올랐다. 홍콩 항셱지수(4시 현재)도 10% 이상 급등했으며 상하이 종합지수도 2.54% 올랐다.

김인식/유승호/서정환 기자 sks@hankyung.com



웃음 찾은姜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계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 양국 통화스와프 체결에 가교 역할을 했던 윌리엄 로즈 미국 씨티그룹 수석부회장과 밝은 표정으로 답소하고 있다.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막전막후

姜 장관, 폴슨·버냉키에 대뜸 “We need swap...”

“우리가 미국채 팔면 너희도 어려워져”

‘리버스 스�필오버’ 내세워 집요한 설득

MB “강만수 장관, 아주 잘했어”

신제윤 차관보·이광주 韓銀이사 ‘숨은 주역’

“당신은 그동안 뭐하고 있었어?”

9월18일 오전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국제업무관리관)에게 강만수 재정부 장관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날 아침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사화(FRB)가 유럽연합(EU) 및 스위스에 이어 일본 캐나다 영국 등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미국과 스와프 계약을 맺은 나라들은 모두 트리플A 등급인데 우리는 상급A에 불과하다는 변명은 열이 오를 대로 오른 강 장관에게 아예 ‘씨’도 먹히지 않았다. 강 장관은 “당신 얘기는 관료의 논리다. 내가 10년 아인 생활을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신 차관보는 끝내 할 말을 잃었다.

◆바장의 무기 ‘리버스 스�필오버’ 막상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미국 정부를 설득하려니 막막하기만 했다. 평소 친분이 두터운 클레이 로리 미 재무부 차관보에게 전화를 했다. “나 잘리게 생겼어”로 시작한 통화는 “통화 스와프를 안 하면 우리가 외환보유액

으로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도 곤란해질 것”이라는 반박으로까지 이어졌다.

금융 위기에 처한 신흥시장국이 외환보유액을 사용하려면 미 채권을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미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이 논리는 이후 강 장관의 작명에 의해 ‘리버스 스톱오버(reverse spill-over)’라는 이름의 ‘공격 무기’가 됐다. 강 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리버스 스톱오버를 외쳐댔다.

그러던 중 9월24일 미국이 호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4개국 중앙은행과 추가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자 이성태 한은 총재는 즉각 실무진에게 가능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미국의 심장부에서 편 압박 전술 재정부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10월8일, 신 차관보는 워싱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IMF 총회 전까지 무조건 결론을 만들라”는 강 장관의 엄명에 마음은 무겁지만 했



이성태 한은총재(오른쪽)가 30일 오전 한은 기자실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협상 최종 타결을 공식 발표한 뒤 이광주 부총재보와 함께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해운천 기자 sweat@hankyung.com

다. 재정부와 한은이 공조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한은 쪽에서는 이광주 국제담당 부총재보가 투입됐다.

이틀 뒤인 10일 강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면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강 장관은 11일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를 만나 예의 리버스 스톱오버를 역설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느닷없이 폴슨 미 재무장관과 버냉키 FRB 의장에게 다가가 도발적인 대화를 하기도 했다. 신 차관보가 급히 달려가 보니 강 장관은 한국식 영어 발음으로 “We need swap...”라고 말하고 있었다. 14일 뉴욕으로 자리를 옮긴 강 장관 일행은 미 재무부와 FRB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로버트 루빈

전 미 재무부 장관 등 핵심 인사들과 연쇄 면담에 나섰다.

◆베이징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 15일 뉴욕을 떠나 귀국하려는 강 장관에게 미국 내 모 인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10일이나 15일 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24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던 신 차관보에게 미국 정부 측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걸려 왔다. “이번주 중 또는 주말 정도에 (미국과의 스와프 체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 FRB도 한국은행에 협상 파트너를 보내줄 것을 통보했다. 이광주 한은 부총재보가 미국으로 급파됐다.

◆마지막까지 타들어 간 가슴 29일 오전 6시30분, 그렇게 기다렸

던 소식이 왔다. 미 재무부의 전화 통보였다. “30일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안건으로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건이 올라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오전 2시30분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3시가 돼도 4시가 돼도 연락이 없었다. 신 차관보의 가슴은 타들어 갔다. 오전 4시25분, 전화가 걸려 왔다. 미국 뉴욕의 윌셔먼 재경관이였다. “통과됐습니다. 5분 후 발표합니다. 300억달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강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 재무장관, FRB 의장 등과 얘기를 잘한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노고를 치하했다.

여대경 기자 chihiro@hankyung.com

불붙은 시세판... 사이드카도 못말려

철강·건설 등 전업종 상승... 839개 종목 상한가 '물반 고기반'

심텍·우주일렉 등 키코피해株 함박웃음

하루 종일 증권사 객장 시세판이 가을 단풍을 연상시키는 붉은색으로 뒤덮였다. 30일 한국과 미국이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약을 체결하자 '한·미 통화동맹'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상승 반전 드라마'를 연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연어불었던 투자심리도 한결 진정됐다.

이날 국내 증시는 말 그대로 폭등장이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115.75포인트(11.95%) 급등한 1084.72로 마감하며 1100선에 육박했고 코스닥지수도 11.47% 오르면서 296.05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 375개, 코스닥시장 464개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했다.

환율 수혜주 초강세

장 초반 양 시장에 모두 발동된 '상승 사이드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시간이 갈수록 급등세로 치달았다. 송정환 현대증권 도곡지점 팀장은 "지점으로 걸려오는 고객들의 목소리가 한층 맑아졌다"며 "일부 고객은 대폭락장이 이제 한풀 꺾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중국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 소식, 한·중·일 통화스와프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 키코(KIKO·통화옵션파생상품) 손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유동성 지원 등 호재가 겹치면서 국내 유동성 위기가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는 안도감이 시장을 지배했다.

고삐 풀린 듯 급등하던 원·달러 환율이 안정되자 오랜만에 항공과 여행, 유틸리티 등 환율 하락 수혜주들이 각광받았다. 원유 하락세가 지 겹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상한가로 치솟으며 3만2359원과 3425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주와 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

라도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CJ제일제당도 상한가로 오르며 환율 수혜주로 꼽혔다. CJ제일제당은 연간 원재료 수입만 8억5000만달러, 외화 부채가 4억8000만달러에 달해 환율 상승에 취약한 기업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석탄 LNG 중유의 구입 단가 하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한국전력이나 현대제철도 가격제한 폭까지 주가가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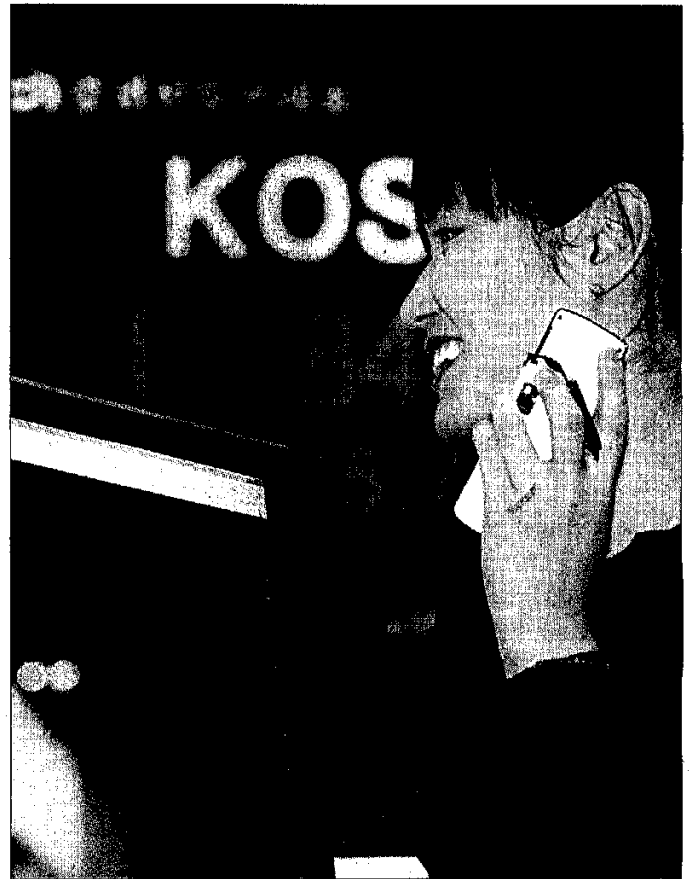
전 업종지수가 상승한 가운데 특히 낙폭이 컸던 철강·금속 업종지수가 무려 14.68%나 뛰어오르는 등 건설(14.28%) 기계(13.52%) 운수장비(13.41%) 전기·전자(13.3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C&그룹 워크아웃설 여파와 PF 부실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신한지주가 13.79% 상승하는 등 KB금융(9.38%)과 우리금융(0.82%)을 비롯한 은행주도 모두 올랐다.

키코 피해주들의 날이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폭락세를 보인 데다 정부와 은행권의 지원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무더기로 가격제한 폭까지 치솟았다. 성진지오텍 다에스엘시디 제이브이엠 씨모텍 심텍 우주일렉트로닉스 태산엘시디 등이 동반 상한가를 기록했고 엠텍비전과 사라콤은 각각 4.34%, 3.67% 올랐다.

점진적 반등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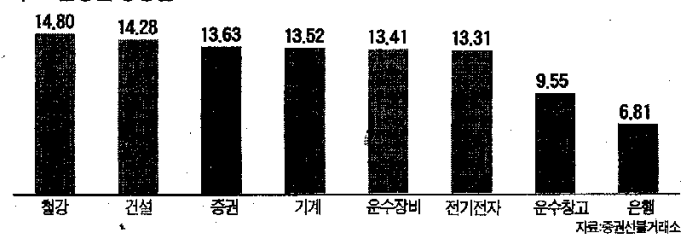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급락한 점이 키코 피해주들의 숨통을 틔웠다. 환율이 하락할수록 키코 피해 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날 키코 피해주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주가에 탄력을 얻어냈다. 은행권은 1차 유동성 우선지원 대상 29개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평가와 보증기관 심사 등을 거쳐 모두 24개사에 대해 총 343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완료했다.

이날 정영훈 한화증권 기업분석 센터장은 "하루하루 증시 역사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대폭으로 급등한 30일 오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하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주요 업종별 상승률 (단위: %) ※30일 기준



새로 쓰는 것 같은 드라마 장세였다"며 "일단 국내 증시 안정의 전제조건인 미국·유럽·아시아 증시의 동반 안정화와 외환 기근 현상이 완화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급락 후 급등할 때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보다 낙폭이 컸던 종목은 일단 무차별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며 "투자심리가 공포(패닉)에서 벗어나면 이후 경기여건이나 실적 모멘텀 등을 살펴 '육식 가리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반등열리 지속에 대해선 신

중한 견해도 나온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쏟아져 나온 각종 대책들이 하루에 다 반영된 것 같은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오늘 같은 큰 폭의 상승세보다 점진적인 반등이 전망되며 실물경기 침체 우려 등 '후속 카드'가 별로 좋지 않아 상승폭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재훈 대우증권 연구원도 "환율 하락으로 외국인의 매도 강도는 줄겠지만 연금금을 제외한 내부의 강력한 수급 주체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혜정/조진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환율·증시 더 없이 좋은 날... 삼페인은 '아직'

韓·美 통화스와프, 시장은 어떻게 보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미국 달러와 우리 나라 원화를 300억달러 한도까지 교환하는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는 수퍼급 남보에 30일 증시의 외환시장은 모두 들뜬 분위기였다. 고공행진을 하던 환율은 11년 만에 최대 폭락(177원)을 했고, 증시는 사상 최대로 폭등(11.95%)했다. 그동안 금융시장을 짓눌러온 제2 외환위기의 공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한·미 통화스와프로 외부적 위기가 줄어든 것일 뿐, 향후 은행권 부실 우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등 국내 불안 요인들이 남아 있어 냉정하게 시장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제2의 IMF' 공포 사라진 듯
외환시장·증시 '기록의 날'**

**은행권 부실·부동산 침체 등
국내 경제 동향 좀더 지켜봐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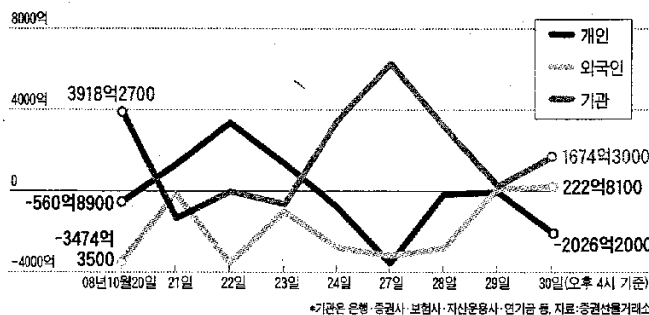
◆쏟아진 기록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선 929개 종목 중 839개가 상승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1월 30일 이후 사상 두 번째였다. 15%의 상승 제한폭까지 오른 상한가 종목만 375개였다. 코스닥 시장도 1046개 종목 중 990개가 상승했고, 사상 최대인 462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한가 붓물이 쏟아지자 "제한폭 15%가 어렵다"는 탄성까지 나왔다. 주식 투자자 김모(39)씨는 "정말 모처럼 무엇을 살까 행복한 고민에 빠져 본 날"이라고 말했다.

이날 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에 대거 나섰고, 폭락장을 떠받치던 개인들이 대거 '팔자'에 나선 것이 주목됐다. 저가 매수차원에서 주식을 사들이던 개인들이 수익 실현 차원에서 내다 팔았고, 그동안 매도를 해오던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선 것이다.

증시는 이날 폭등했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희비가 엇갈렸다. 우선 국내 금융불안을 반영해 장 초반 은행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며 비틀렸다. 반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글로벌 경쟁력이 뛰어난 대표 종목들은 13% 이상의 폭등을 보였

최근 투자자들의 매매수 순매수는 매수액에서 매도액을 뺀 것임. 단위:만원



*기관은 은행·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연기금 등, 자료:증권선물거래소

다. 국가 신용도만 잘 버텨 준다면 이들 기업들의 경쟁력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향후 증시의 또 하나 변수인 외국인의 동향도 큰 관심사였던 하루였다. 영국계 PCA자산운용 김은수 전무는 "그동안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빠져나간 것은 우리 내부 문제보다 그들의 국가 내에서 생긴 펀드런(대규모 환매사태) 등의 이유가 더 컸다"면서 "연말이 되면 펀드들이 결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공격적인 매수세로 돌아서긴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가 어느 정도 진정돼야 신흥국인 우리에게 투자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달 동안 과도하게 주가가 빠져 당분간 단기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KB자산운용 이원기 시장은 "코스피 지수가 1400선까지 주저앉은 것은 미국발(發) 악재 때문이지만 그 밑으로 빠진 것은 국가 부도 우려 등 우리 내부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김학주 리서치센터장은 "주가는 과도한 낙폭을 회복하면서 단기적으로 1320까지는 올라갈 것이나 내년 3분기까

30일 증시 각종 기록들

코스피지수 상승률	상승률 115.75포인트
사상 최대	(11.95%)
코스닥지수 상승률	사상 최대 11.47%
유가증권시장 상승 종목수	839개
사상 두번째	(전체:929개)
코스닥시장 상승 종목수	990개
사상 최대	(전체:1046개)
코스닥시장 상한가 종목수	462개
사상 최대	
시가총액 일일 증가규모	63조
사상 최대	7046억원

지는 계속 등락을 이어가며 출렁거릴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 안정의 단초 마련

이날 시중은행의 외환 딜링룸은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다. 한동안 뜸했던 팔자 주문이 쏟아졌던 것. 한 시중은행 외환 딜러는 "환율이 떨어질 때마다 수출업체들로부터 내년부터 팔아달라는 다급한 주문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로 국가 부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된 만큼 당분간 환율이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는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모습은 보기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외국인들의 주식 매매도가 한풀 꺾인 점도 환율 하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통상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 환율 상승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날 외국인은 223억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이달 경수수치가 10억 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소식도 영향을 미쳤다. 또 수출업체와 역외시장에서 매물을 많이 쏟아내면서 환율 하락에 탄력을 줬다.

김두현 외환은행 외환운용팀 차장은 "아날 낙폭이 너무 커서 더 내려가긴 쉽지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하락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 증시 복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환율이 계속 출렁거릴 수 있을 것이라 분석도 있다. 박상철 우리은행 과장은 "불안심리는 가졌지만 달러 매수가 압도적이었던 수급(需給)이 완전히 돌아선 것인지는 하루 이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인열 기자 yiyul@chosun.com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증시 불확실성 얼마나 견뎌나 변수 점검해보니

금융불안 잠재위 주가 1200선도 기대

‘소나기가 지나간 하늘이 빠른 속도로 개고 있다.’

한·미 통화스왑 협약 체결로 외화 부족에 따른 '제2 외환위기'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을 한 번에 잠재울 수 있게 됐다.

당장 긴급할 때 미국에서 300억달러를 즉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은 물론 국내 금융회사들의 대외신인도가 높아져 향후 외화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화조달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한·미 통화스왑은 적어도 국내 증시를 짓누르던 불안 심리를 견여내 줬다.

이선업 국토농신한증권 연구원은 “다음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대형 호재가 나온 셈”이라며 “국내외 자금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실물경기에도 긍정적인 선순환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30일 원화값이 달러당 1250원대에 인착해 시장 불안이 잠재워졌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화유동성 확보가 한국 경제가 안은 모든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반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실물경기에도 대한 전망은 시간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은행 건전성도 마찬가지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인싱(PF) 대출, 중소기업 대출 등에 대한 연체 증가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가계소득과 기업실적이 둔화되고 주택가격 하락폭도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증시 수급 측면에서 안전자산 선호하는 외국인 매도세와 펀드 한 매 가능성이 복병이다.

올해 33조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워 코스피 급락을 부채질했던

외국인 매도세 일단 진정될듯 개인들 펀드환매 물량은 부담

이 흐름속북 점점 더 암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경기침체가 신중국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골도 당초 예상보다 깊어지는 분위기다. 즉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경제로서는 일정 수준의 타격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20% 이상 수출 비중을 가진 중국마저 경기침체의 늪에 빠진다면 피해는 한층 커지게 된다.

중국도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으나 부동산 가격 조정과 전 세계 수요 감소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임정석 NH투자증권 투자전략 팀장은 “3분기 국내 기업 이익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4분기는 더 악화될 것”이라며 “환율 급변이 순이익과 영업이익 격차를 벌려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재광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12개월 기업이익 상승은 수개로 하향 조정될 여지가

없다”고 전망했다. 외국인 매도세는 앞으로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그 규모는 잦아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매도세력이 줄곧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은 현재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들였던 2002-2003년과 비슷한 7~8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다.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적 정책 공조가 서서히 효과를 보인다. 이는 점도 외국인의 극단적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더글러스 안 UBS증권 전무는 “국내 증시에서 숨겨져 있던 주로 하던 헤지펀드들은 급격히 빠져나가고 대신 장기 투자를 하는 펀드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될 것”이라며 “변수가 많지만 외국인 매도는 차차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려했던 펀드런은 지수 상승폭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다. 코스피가 추가로 상승하면 조금씩 환매 요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증시 주요 변수 기상도

▶ 현재

• 외환시장 불안정

은행권 외화유동성 악화, CDS 스프레드 급등, 외환위기 재발 우려 확산



한·미 통화스왑 체결로 '제2외환 위기' 확산, 국가-금융회사 대외신인도 향상 (후후 외화차입 가능성 높아져)



• 실물경기 침체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기둔화, 기업 실적 둔화, 소비와 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악화



거시경제 전망 불투명, 글로벌 경기 침체 가속화, 중국 경제 변수 확대



• 은행 건전성

부동산PF 부실, 가계자금 연체 확대 우려, 미흡한 리스크 관리



가계소득·기업실적 둔화,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C&B 등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



• 금리 움직임

CD금리와 회사채금리 등 여전히 높은 수준



각국 금리인하 공조로 실세금리도 안정 기대



• 외국인 매도 강화

올 들어 33조원 순매도, 증시 개방 이래 최대 규모



내년 상반기까지 매도 가능성



• 펀드런 가능성

지수 반등시 자금 유출 위험 매물 우려



경기투자 세제혜택 효과 기대에도 자금유입 미미



• 국내 투자자들 공포심리

변동성 심화, 공포지수 사상 최대



주요국 주가 반등으로 공포지수 완화



•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

미 주택시장 불안, 신용시장 구제 금융 확산



미 신규 주택 판매 증가하나 신용카드 부실 우려, 미주정시장 리스크 확산 가능성



• 중국 경제특

3분기 GDP 성장률 한 자릿수 둔화



전격 금리인하로 연착륙 기대감



한 자산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주가 급락하면서 펀드투자자 역시 상당한 공포를 느낄 것”이라며 “지수가 반등할 때마다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환매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금이나 채권은 다른 투자자보다 빨리 자금을 빼내는 것이 유리하지만 증시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무작정 환매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대형 펀드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아직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투자 심리가 안정을 되찾으면서 단기적으로 코스피가 약 1200선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경수 로리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단기 외채 부담이 국내 증시

급락의 촉발점이었고 이때문에 단기적으로 1400에서 900까지 밀린 만큼 낙폭의 절반만 회복해도 1200선 정도까지는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자금이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의 힘으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으나 펀드런될 우려 때문에 회복장세로 빠질 수 있다”며 “그래도 1200선까지 반등한다면 이번엔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정석 팀장은 “내년 1분기까지는 실적 하향 조정이 이어질 수 있어 적어도 1분기 말 이후에나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우·이한나·김정은 기자

□ 국내 증시에 신기록 속출

5일중 4일 변동폭 100P넘어

‘급등락이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

30일 국내 증시가 폭등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상승률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상승률은 11.95%로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1998년 6월 17일의 8.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상승폭(115.75포인트)도 역대 최고 기록이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8월 20일 93.2포인트였다.

상승 종목 수는 839개를 기록해 종전 867개(98년 1월 13일)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 상승률도 11.47%로 종전 기록(10.46%)을 돌파했다.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수도 무려 462개로 신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최근 폭락장과 폭등장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지수 변동성도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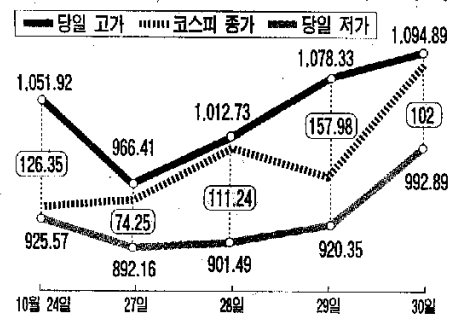
삼성증권 자료에 따르면 30일 코스피 변동성은 12.4%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초 1~2%에 불과하던 증시 변동성은 최근 10%대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전일(11.7%)에 이어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이는 최근 미국 증시의 높아진 변동성과도 일맥상통한다. 변동성을 보여주는 미국 VIX지수도 연초 20~30에 불과했지만 지난 27일에는 80.06까지 치솟았다.

한편 선물시장은 선물가격이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15번째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선물시장 일일 거래대금도 7조3585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하루에도 100포인트 이상 오르내리는 주가



역대 최대 코스피 상승률

(단위: 포인트, %)

일 자	코스피 증가	동락폭	등락률
2008. 10. 30	1,084.72	115.75	11.95
1998. 6. 17	303.81	23.81	8.50
2000. 3. 2	894.66	66.28	8.00
1998. 12. 10	567.61	41.09	7.80
1998. 12. 21	565.27	40.42	7.70

일 거래대금은 8조2899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해 최근 들어 거래대금이 급등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개별 주식선물 시장도 들쭉였다. 30일 주식선물 시장 거래량은 21만8662계약, 거래대금 75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목별로는 우리금융지주가 16만20계약, KB금융지주가 1만6954계약으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재화 기자

특하면 사이드카...이달 21번 발동

단 1건 계약으로도 정지돼 시장왜곡 가능성

‘최근 여의도 증권가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는?’

주식시장이 연일 150포인트씩 오르내리는 ‘말미장’을 연출하면서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등 비상시에나 발동되던 장치들이 남발되고 있다. 특히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시장에서는 계약 단 1건만으로도 거래가 정지되는 상황까지 벌어져 제도 본래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사이드카는 선물시장이 급변할 때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다. 일종의 ‘과속방지’ 장치인 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가가 전 날보다 5% 이상, 코스닥시장에서는 6% 이상 오르거나 내리는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프로

그램 매매가 5분 동안 중단된다.

투자자들에게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게 하는 상황인 셈이지만 최근 증시가 요동치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급등 5번과 급락 6번으로 무려 11번이나 사이드카가 작동했다. 코스닥 시장도 이달 들어 10번째, 올해로는 14번째 사이드카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코스닥시장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것. 사이드카가 오히려 시장을 왜곡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올해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날 중에서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코스닥 선물거래 계약 체결 건수가 10건 아래였다. 프로그램 매매 규모 역시 이틀을 제외

하고는 10억원 이하여서 사실상 선물시장이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27일에는 선물거래 단 6건(8억 6000만원)에 사이드카가 발동됐으며 지난 13~14일에는 심지어 단 1건의 계약이 사이드카를 작동시켰다.

증권 전문가들도 “유가증권시장은 선물거래가 활발하고 유동성이 충분해 사이드카가 현물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코스닥은 제도 개선과 정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사이드카 등은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주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장 초 거래량이 줄었다고 해서 발동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내년 1월 28일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 제도 개선은 힘들다”고 밝혔다.

이소아 기자

세계증시, 금리인하 기대로 완전한 회복세(종합2보)

<<일부 국가 지수 수정. 미국 다우존스, 나스닥, S&P500지수 마감 종가로 수정.>>
 닷케이 9천선 회복, 英 FTSE100 사흘째 상승세

(부다페스트=연합뉴스) 권혁창 특파원 = 세계 각국의 금리 인하 공조 움직임과 아시아 증시의 폭등에 힘입어 30일 유럽 증시가 사흘째 상승세로 마감했다. 미국 증시도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예상보다 소폭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주가 회복을 견인했다.

더욱이 이날 리보(런던은행간 금리)는 14일째 하락세를 보여 자금시장의 불안감도 완전한 진정세를 나타냈다.

유럽 대표주 동향을 보여주는 유로퍼스트 300지수는 이날 최고 922.56까지 치솟았다가 막판 0.73% 상승한 903.61로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이머징마켓 지수는 9.2% 폭등, 최근 6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MSCI 지수는 3일간 20% 이상 올랐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 런던증권거래소의 FTSE100 지수의 경우 막판까지 등락을 거듭하다가 4,291.65로 1.2% 상승, 3일 연속 상승세를 탔다. FTSE100 지수는 로열 더치 셸과 스테이치코치 등의 주가 약세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의 선전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전날 약보합세를 보였던 독일 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의 DAX 30지수는 메트로 AG, MAN AG 등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1.26% 상승했으며, 프랑스 파리증권거래소의 CAC 40지수도 0.15% 오른 채 장을 마쳤다.

이날 서유럽 각국에서는 18개국 가운데 15개국 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했다.

런던 트레이드니들 자산운용의 리처드 월슨은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공조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계속 상당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도 청신호가 계속됐다. 이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89.73포인트(2.11%) 오른 9,180.69로 마감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날보다 24.00포인트(2.58%) 상승한 954.09로 마감됐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날보다 41.31포인트(2.49%) 오른 1,698.52로 장을 마쳤다.

미국 상무부는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1년 3분기의 마이너스 1.4%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마이너스 0.5%보다는 감소폭이 작았다.

앞서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증시가 사흘 연속 급등하며 닷케이 평균주가가 9천 선을 회복했으며, 중국 증시도 금리 인하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1,763.61로 마감돼 2.55% 올랐고 선전성분지수는 5,909.66으로 1.91% 올랐다.

또 홍콩 항셍지수는 14,329.85로 12.82%, H지수는 6,764.04으로 16.89% 각각 폭등했으며, 대만 가권지수는 4,683.64로 6.29% 올랐다. 호주 증시도 S&P/ASX200 지수가 4.04% 급등한 4,001.1포인트로 장을 마감해 6일 만에 4,000선을 회복했다.

자금시장에서는 이날 3개월 만기 달러화 리보(런던은행간 금리)가 전날보다 0.23%포인트 하락한 3.19%로 14일째 하락세를 보여 자금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돼가고 있음을 반영했다.

하루짜리 달러화 리보도 0.41%포인트 떨어진 0.73%를 기록해 200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faith@yna.co.kr

(끝)

에타는 펀드투자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적립식 더 부어야 하나

장기투자엔 저가매수 기회

직장 2년차 전 모씨는 지난해부터 부어오던 적립식펀드 자동이체를 중단했다. 자신이 가입한 해외펀드 손실률이 70%에 육박하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서다.

나름 재테크를 해보겠다고 시작한 펀드가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지경이어서 전 씨는 더 이상 자금을 넣지 않을 생각이다.

적립식 펀드에 투자했으니 관습을 것이라 생각했던 투자자라면 수익률을 확인하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펀드 수익률 표에 등장하는 성과에 비해 본인 적립식 펀드는 성과가 못해도 한참 못하기 때문이다.

제로인에 의뢰해 2년 전 거치식으로 넣었을 때와 2년간 적립식에 투자했을 때를 따져봐도 많게는 적립식이 60% 이상 손실펍이 컸다.

지수가 현재보다 높았을 때 들어갔던 자금들이 모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끔 수익률을 확인하는 투자자로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덜컥 자금이체 중지부터 신청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립식이 하락장에서 손실펍이 커지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꾸준히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주목하라고 설명한다.

김휘곤 삼성증권 펀드연구원은 "지수가 하락한 후 상승세를 보일 때엔 거치식보다 적립식이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2002년 4월(800대)부터 2004년 4월(80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결과 적립식은 15%포인트가량 성과가 더 좋았다.

즉 상승장에서 적립식 펀드 위력이 발휘되는 셈이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최악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때엔 역으로 지금보다 더 떨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점을 먼저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펀드 갈아탈까

수익률·자금유출입 체크를

투자자 B씨는 펀드에 사실상 금융자산 대부분이 들어 있다.

그만큼 이미 반 토막이 난 상황이라고 환멸을 한다는 것은 재산 중 반이 날아가는 일이라 생각한 적도 없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자신이 가입한 펀드들에 계속 돈을 넣고 있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보다 다른 펀드들이 더 좋아 보여서다.

이런 고민을 하는 투자자라면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본인 펀드가 유형평균에 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평균보다 못한 성적을 계속 내고 있다면 다른 펀드로 갈아타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얘기다.

또 펀드의 포트폴리오도 쟁겨봐야 한다.

허남권 신영투신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운용보고서 등을 통해 펀드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과연 비전이 있는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펀드에 대한 자금 유출입도 쟁겨봐야 한다.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용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매했을 때 리스크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변동성이 큰 상황이 계속되면서 환매 후에 대금을 받아서 다시 투자에 나서려고 했다가는 가능한 수익을 놓칠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경 삼성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대부분 유형이 비슷한 포트폴리오로 운용되는 상황에서 갈아타기는 결국 수수료 부담만 늘리는 셈"이라고 평했다. 비슷한 유형일 때는 대부분 포트폴리오가 비슷한 만큼 큰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요동치는 증시에 투자자 심리 상태도 심하게 출렁거리는 때다. 갈팡질팡 마음을 잡기 힘들어지는 때문이다. 지수 상승에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더 기다려 볼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환매에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진다. 또 한쪽에서는 '100년 만에 온 기회'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조금 더 돈을 부어 이른바 '몰타기'라고 해볼까 하는 유혹도 생기게 마련이다. 고민에 휩싸인 펀드 투자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아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다.

★ 환매할 때 챙길 사항은

기준가·대금지급일 꼭 확인

러시아 펀드에 가입했다 이달 초에 환매를 결심한 C씨. 그러나 막상 환매를 결정하고 난 뒤에야 조금 더 신경 써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제가 된 것은 환매를 신청한다고 바로 환매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란 점.

다른 해외펀드도 비슷하다. 일례로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펀드는 월요일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화요일 종가가 적용된다. 브라질 등 아시아권이 아닌 지역들은 기준가 적용이 더 늦어진다. 여기에 환매대금 지급일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국내 펀드는 최장 15일, 해외펀드는 최장 41일 후에 환매대금을 받는 상품도 있다. 일례로 중국 본토 A주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매달 15일 이후에 환매를 신청하면 다음 달 25일에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김대열 하나대투증권 펀드리서치팀장은 “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에서 손실폭을 확정하기 위해 환매에 나서는 것보다는 안정된 후를 택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진미경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장은 “반등이 나타난다면 본인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쓸림이 심한 지역 비중을 줄여 분산투자에 나서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 ELS·ELF 손실구간인데

환매때 별도수수료 있어요

투자자 D씨는 안전하다는 말만 믿고 가입한 주가연계펀드(ELF) 때문에 고민이 많다. 주가가 예상외로 급락하면서 ELF가 원금손실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만기가 조금 남았으니 기다려 볼까라는 마음과 지금 수준에서 손실을 확정하더라도 더 이상 불안해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와 달리 주가연계증권(ELS)과 ELF는 만기가 정해진 상품이다. 그만큼 만기까지 주가가 회복되지 않으면 꼼짝없이 손실을 입어야 한다.

여기에 환매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ELF는 매일 상황이 가능하지만 ELS는 환매 가능한 날짜가 회사별로 다르다. 대우와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은 주 1~2회(삼성·우리투자·현대·미래에셋증권 등)로 제한하는 곳도 있고 일부에서는 월 1~2회만 가능한 곳도 있다. 또 환매시점에서 기초자산이 하락은 했으나 아직 ELS나 ELF가 원금손실구간에 접어들지 않은 상황이라도 환매한다면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수수료와는 별도로 환매 수수료가 평균 5%가량 붙는다. 일반 주식형펀드처럼 수익 부분에 대해 5%가 아니라 전체 투자금액 대비 5%란 점을 주의해야 한다.

★ 적립식 세제혜택 펀드는

성향따라 주식·채권형 선택

지난해 모든 주변 사람이 주식·펀드에 흥분해 있을 때도 투자에 나서지 않았던 E씨. 요즘 급락장을 보면서 이제 펀드라도 한번 해볼까 싶어진다. 정부에서 비과세 혜택까지 준다니 더 솔깃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매력적인 수준인 만큼 지금은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식형은 높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하락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락 위험이란 것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채권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률 자체는 높지 않다. 또 회사채는 국채와 같은 안전한 수단만은 아님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주식형은 기존에 있는 펀드를 전환해서도 신청할 수 있고 신규 설정 펀드에 가입해도 된다. 한편 이들 펀드에 돈을 넣을 때는 3년 안에 환매를 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기 유동성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하는 셈이다.

정욱·이재화 기자

새 상품 실종... 펀드시장 '뽕뽕'

운용사도 투자자도 '개점휴업'...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명맥 유지

펀드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국내외 어디에 투자하는 펀드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자산의 4분의 1 이상이 하강으로 날아가면서 새로운 펀드가 거의 설정되지 않고 있다. 설정 펀드가 설정됐다 해도 자금 유입은 거의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도 안정적이라는 채권형펀드를 제외하면 신규 펀드는 개점휴업 상태다. 특히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설정이 '울스톱'됐다. 국내주식형펀드보다 손실폭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악화된 데다 장기투자펀드 세제 혜택에서도 제외되면서 운용사들도 당분간은 관심을 끊겠다는 분위기다.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 '제로'

30일 기준으로 주기연계펀드(ELF)를 제외하고 이달 들어 설정된 공모펀드는 20개 정도. 이 중 주식형펀드는 단 5개에 불과했다.

올해 자산운용업 인가를 받은 LS자산운용과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이 공모 첫 작품으로 'LS장수기업포커스주식'과 '라자드코리아주식종류형' 펀드를 내놔, SH자산운용(SH나라사랑인덱스펀드)과 대신투신운용(대신엑티브퀀트펀드), 알리안츠자산운용(기업가치나눔펀드) 등이 주식형펀드를 내놔다.

이들은 모두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국내주식형펀드. 지난해 이맘때 중국펀드를 중심으로 인사이트펀드 등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출시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때 조정장에서 대안투자로 부각됐던 파생펀드 역시 '대신Wealth Design'파생상품 펀드 하나만 선을 보였다.

LS자산운용 박성민 주식운용본부장은 "증시뿐 아니라 변동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한올도 해외펀드의 또 다른 리스크로 인식되고 있다"며 "LS자산운용도 올해까지는 해외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계획

이 없다"고 밝혔다.

신규 설정도 뜸하지만 자금 유입은 더 더디다. 'SH나라사랑인덱스주식 1A'와 '대신엑티브퀀트주식B 1Class A'는 유입자금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LS장수기업포커스펀드로는 설정 이후 총 7억원가량이 들어왔으며, 라자드코리아펀드 설정원본은 4억원 정도다.

금리가 하락추세를 보이며 은행채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투신운용의 '아이코리아은행채 3C- 1Class C4'로 100억원의 자금이 유입됐으며, 푸르덴셜은행채펀드도 142억원가량이 투자됐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속속 출시

현재 운용사들이 상품 출시를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장기회사채형펀드가 거의 유일하다. 정부가 3년 이상 거치식 투자자들의 이자소득과 자본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반면 실제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었던 상품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투신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이 발 빠르게 움직이며 이번 주 들어 상품들을 줄줄이 내놔고, 삼성투신운용과 대신

10월 신규 설정펀드

회사명	펀드명	펀드유형	투자지역	설정원본
LS자산운용	LS장수기업포커스주식 1A	주식형	국내	2.
LS자산운용	LS장수기업포커스주식 1C1	주식형	국내	3.
LS자산운용	LS장수기업포커스주식 1Ce	주식형	국내	2.
SH자산운용	SH나라사랑인덱스주식 1C-e	주식형	국내	.
SH자산운용	SH나라사랑인덱스주식 1A	주식형	국내	.
SH자산운용	SH나라사랑인덱스주식 1C	주식형	국내	.
대신투신운용	대신Wealth Design파생상품K1	파생상품	국내	10.
대신투신운용	대신엑티브퀀트주식B 1Class C1	혼합주식형	국내	1.
대신투신운용	대신엑티브퀀트주식 1Class A	주식형	국내	.
대신투신운용	대신엑티브퀀트주식 1Class C1	주식형	국내	.
동양투신운용	동양분리과세고수익고위험채권 1Y-S3	채권형	국내	3.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라자드코리아주식종류형Class A	주식형	국내	2.
라자드코리아자산운용	라자드코리아주식종류형Class C	주식형	국내	2.
삼성투신운용	삼성특직연금삼성그룹주40혼합1	혼합채권형	국내	.
삼성투신운용	삼성포커스채권2	채권형	국내	185.
삼성투신운용	삼성포커스채권3	채권형	국내	125.
아이투신운용	아이코리아은행채 3C- 1Class C4	채권형	국내	100.
푸르덴셜자산운용	푸르덴셜은행채2	채권형	국내	105.
푸르덴셜자산운용	푸르덴셜은행채3	채권형	국내	37.
푸르덴셜자산운용	푸르덴셜장기회사채형 1C	채권형	국내	.
올리브자산운용	올리브합시드은행채채권1	채권형	국내	6.
올리브자산운용	올리브합시드은행채채권2	채권형	국내	5.
피델리티자산운용	피델리티코리아채권-자(N)	채권형	혼합	510.
하나UBS자산운용	하나UBS장기회사채채권	채권형	국내	.
알리안츠자산운용	기업가치나눔주식	주식형	국내	.
한국투신운용	한국투자장기회사채	채권형	국내	.

자료:자산운용협회 전자공시

투신운용이 회사채펀드 출시 준비를 끝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아이투신운용, 동양투신운용 등도 곧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신투신운용 육현수 마케팅본부장은 "현재 장기회사채펀드의 출시 준비는 끝났으며 판매사와 협의 중인 상태"라며 "펀드수익률이 급

락하면서 판매사들도 세제혜택 관련 상품이나 채권형상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회사채펀드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 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1인당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다.

hug@innnews.com | 안상미기자

반토막 펀드 '울적환매' 금물

"지금은 안전마진 확보할때"

증시 폭락으로 국내주식형펀드가 1년 만에 정확히 '반토막' 났다.

30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29일 현재 687개 국내주식형펀드(설정 1개월·설정액 10억원 이상)의 1년 평균 수익률은 -50%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말 1억원이던 원금이 1년 만에 5000만원으로 줄었다는 얘기다. 지난달 말 1400선 후반을 뚫었던 코스피지수가 900선으로 추락하면서 한 달 손실이 30%나 됐다.

삼성그룹주펀드와 같은 테마주식형펀드(-45.53%)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손실폭이 작은 반면 중소형주식펀드(-51.78%)는 평균을 밑돌았다.

해외주식형펀드의 1년 평균 손실률은 60.07%로 집계됐다.

러시아펀드가 73.88%로 손실폭이 가장 컸다. 지난 1개월 동안만 러시아펀드는 60%가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독보적인 수익률로 '스타펀드'에 등극했던 러시아펀드가 4개월 만에 원금마저 걱정해야 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이다.

중국펀드(-68.07%)와 러시아비중이 60%가 넘는 유럽신흥국펀드(-65.98%)도 절반이 넘는 원금을 까먹었다.

지난주 코스피 1000선이 무너지면서 수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자 주식형펀드의 평가손실도 크게 늘었다.

29일 국내주식형펀드의 순자산총액은 45조8475억원으로 지난해 70조9767억원에서 25조1292억원 줄었다. 여기에 1년간 유입된 자금(ETF 제외) 15조2474억원을 빼면 국내주식형펀드에서 발생한 평가손실은 40조3766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해외주식형펀드도 순자산이 63조5258억원에서 26조7099억원으로 줄면서 42조7151억원(1년간 유입된 5조8992억원 제외 포함)에 달하는 평가손실이 발생했다. 1년 동안 국내외 주식형펀드에선 모두 83조0917억원이 증발한 셈이다.

우재통 동양종합금융증권 자산관리컨설팅 연구소장은 "지난해 증시가 고점이었을 때 펀드에 가입했기 때문에 손실이 큰 것"이라며 "원금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지금 환매에 나서는 것은 소극적인 리스크 관리의

주식형펀드 수익률

(기준일: 2008.10.29, 단위: 연율(%))

유형	1년
국내주식형펀드 전체	-50.00
일반주식	-50.91
중소형주식	-51.78
배당주식	-47.73
테마주식	-45.53
K2002펀드	-47.12
기타K2002	-46.79
해외주식형펀드 전체	-60.78
글로벌주식	-52.85
유럽주식	-43.59
북미주식	-45.53
아시아태평양주식	-52.82
아시아태평양주식(ex J)	-51.07
동남아주식	-53.82
신흥국주식	-56.62
아시아신흥국주식	-59.88
유럽신흥국주식	-65.98
남미신흥국주식	-59.66
일본주식	-50.41
중국주식	-68.07
인도주식	-47.46
브라질주식	-63.82
러시아주식	-73.88
호주주식	-39.86
북정국가주식	-64.81

·유형평균: 설정후 1개월 경과, 설정액 10억원 이상 유지하는 펀드 대상, 자료제공: 제로인 www.fundadvisor.co.kr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소장은 "지금은 돈을 잃을 확률보다 얻을 확률이 높은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조언했다. 박성희 기자 stargirl@

ELW콜 급등... '하루 1700%' 도

1000% 이상은 3개

증시가 사상 최대폭으로 오를 자 하루 1700%나 오른 ELW(주식워런트증권)가 나오는 등 ELW콜들이 무더기로 급등했다. ELW는 기초자산의 주가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으로 콜은 기초자산의 주가가 올라야 수익이 나고, 풋은 이와 반대다. 콜의 경우 기초자산의 주가가 만기일 행사가에 못 미치면 투자금 전부를 날리게 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상승폭이 1000%가 넘는 ELW는 3개를 기록했고, 500%가 넘는 수익률을 낸 ELW도 16개에 달했다.

'대신7357현대차콜'은 이날 5원이던 가격이 80원으로 1700%나 올랐다. 거래량도 1만3000여주를 넘었다. 이 ELW는 다음달 18일까지 현대차 주가가 7만원을 넘으면 수익을

분배하고 상장 폐지된다. '대우8500현대차콜'도 1700% 폭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차는 14.70% 오르며 6만3200원으로 마감됐다.

이 밖에 '대우8413삼성전자콜'도 115만여주가 거래되며 1100% 급등했고, '미래8398한국전력콜'은 966%, '우리8545삼성화재콜' 역시 881% 폭등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두 배 이상(100%) 오른 ELW콜이 445개 종목에 달했다.

유지은 맥쿼리증권 이사는 "이날 증시 상승을 ELW의 기초자산으로 쓰이는 우량주가 주도해 ELW 상승폭도 컸다"고 진단했다. 그는 "다만 만기일이 한달 이내여서 유동성공급자(LP)가 활동하지 않는 종목이나, 사실상 외가적 상태인 5원짜리 ELW가 10원으로 급등한 종목 등에선 설불리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MMF로 이달 16조 몰려

주식형펀드선 6811억 빠져

주가지수가 연일 100포인트 이상 오르내리는 급등락장이 지속되면서 머니마켓펀드(MMF)를 제외한 거의 모든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혼란스러운 증시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끼는 데다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은행 보험 등 기관도 펀드에 넣어뒀던 자금을 회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주가 급반등이 오히려 주식형 펀드 환매(자금인출)를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일까지 주식형·채권형·혼합형·MMF 등을 모두 합한 전체 펀드로

총 9조215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단기투자상품인 MMF(16조2444억원)를 제외하면 펀드에서는 총 7조294억원이 빠져나갔다.

거꾸로 국내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불안한 투자심리를 보여주듯 채권형과 혼합채권형에서 각각 2조7835억원과 1조8853억원이 유출됐다. 시장에선 채권형 펀드 등에서 자금 이탈이 컸던 것은 기업들이 보유 자산을 매각해 자금 확보에 나선 때문으로 보고 있다. 다만 주식형 펀드 환매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증시 급락과 함께 손실폭이 확대돼 기관 역시 손절매를 하지 못한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월간으로는 지난 5월 이후 처

10월 펀드별 자금 유출입

(단위=억원)

유 형	10월 누계
국내주식형	-6,811
해외주식형	-6,671
혼합주식형	-4,428
혼합채권형	-18,853
채권형	-27,835
MMF	162,444
파생상품	-3,855
재간접	-855
기 타	-983
소 계	92,150

* 자료=자산운용협회, 굿모닝신한증권

음으로 유출이 일어났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식형과 해외 주식형에서는 각각 6811억원과 6671억원이 빠져나갔다. ETF를 제외하면 국내와 국외에서 각각 5188억원, 6671억원이 줄었다.

특히 지수가 반짝 반등했던 지난 24일과 27일에는 환매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욱기자

ELF? ... ELS와 뭐가 다르지

ELS를 펀드로 만든 것... 기본성격은 비슷

중도환매 가능하지만 환매 수수료 비싸

ELF(주가연계펀드)는 ELS(주가연계증권)를 펀드로 만든 상품이다. ELS가 일반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인 것과 달리 ELF는 주식형 펀드처럼 수익증권으로 분류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ELS는 주식처럼 자신의 증권계좌에서 관리가 되는데 비해 ELF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통장에 보유 자산이 올라간다. 또 ELS는 증권사가 발행해 직접 투자자에게 파는 상품인 반면 ELF는 그 과정에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끼어 드는 것이 다른 점이다.

따라서 ELF는 기본적으로 ELS와 거의 동일한 상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매사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ELS는 장외파생상품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수익증권인 ELF는 장외파생 인가가 없는 일반 증권사와 은행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사가 챙기는 수수료는 ELF가 ELS보다 적다.

은행은 ELF와 유사한 ELD(주가지수연동 정기예금)도 판매하고 있다. ELF는 기초자산 움직임에 따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ELD는 수익률이 낮은 대신 원금보장형으로 설계된다. 진미경 하나대투증권 웰스케어센터장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자리잡으면서 채권형 펀드나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이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ELF와 같은 틈새 상품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며 “주로 기초자산 종목이 2개이면서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유형이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ELF 역시 ELS와 마찬가지로 기초자산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목표 수익률만 믿고 가입할 것이 아니라 과거 주가 흐름은 물론

향후 전망을 기초로 주가가 원금 손실 구간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진 센터장은 “원금을 중시하거나 주식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는 목표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는 유형이 적합하다”며 “향후 주가가 최소한 횡보하거나 상승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투자자는 손실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면서 주가 상승시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유형을 고려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대부분의 ELS는 중도 환매가 쉽지 않은 데 반해 ELF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도 환매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다만 환매수수료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기자금보다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적합하다.

또 일반 주식형 펀드는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지 않지만 ELF와 ELS 수익은 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LS와 마찬가지로 ELF도 상품별로 일정 기간만 판매하고 1인당 가입 한도가 있어 모집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빅헤영 기자 bono@hankyung.com

한 국 경 제

선물·옵션··ELW··ETF··ELS··

운칠기삼? 천만에!

딱 아는만큼 돈 보인다

파생상품 활용 방법과 유의할 점

파생상품	활용방법	유의할 점
ELW (주식워런트증권)	·풋ELW를 이용해 주가가 빠질 때도 수익 추구 가능 ·레버리지 효과로 일반 주식투자보다 높은 수익 노릴 수 있어	·전체 주식투자 자금의 10% 정도만 투자하는 게 바람직 ·만기일까지 90일 이상 남아 있는 종목을 선택해야
ELS(주가연계증권)	·중시 상황에 맞는 다양한 수익구조를 고를 수 있어 ·불안한 장세에선 원금보장형 선택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을 잘 따져봐야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고려해 위험을 분산시켜야
ETF(상장지수펀드)	·중시 하락기에 개별종목의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활용 (본신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과매도 국면이라고 판단되면 투자할 만	·단기매매 지체(장기투자의 이점 못누려) ·평균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ETF에 투자
DLS(파생결합증권)	·이자율 환율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본신투자 효과	·복잡한 상품구조를 명확히 이해해서 위험에 대비해야
선물·옵션	·일반적인 주식투자의 헤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	·고위험·고비용 투자인 만큼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

◆고위험·고수익 파생상품

선물·옵션은 가장 대표적인 파생상품이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어느 파생상품보다 위험이 크다. 특히 요즘 같이 변동성이 큰 장세인 한순간에 '대박'과 '폭락'으로 운명이 갈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코스피200지수 선물이 14.20포인트 급락한 지난 24일의 경우 선물 1계약(50만원)을 매도한 사람은 단번에 710만원(50만원×14.20)을 벌었다. 반면 선물 1계약을 매수한 사람은 그만큼을 날렸다.

선물·옵션에 투자하려면 계좌를 트는 데만 1500만원이 있어야 한다. 이처럼 상

직이면 꼼짝없이 손실을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전체 주식투자 자금의 10% 정도만 ELW에 투자하는 게 좋다고 권한다. 투자 대상 ELW 종목을 고를 때도 만기일이 90일 이상 충분히 남아 있는 종목을 택하는 게 유리하다. 자산의 주가 예상 방향이 틀리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면 만기가 임박한 종목은 곤란하다.

◆ETF와 장외파생상품

ETF는 중시 조정기에 개별 종목의 추가 하락 리스크(위험)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시장수익률과 동일한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아닌 모든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주가 급락으로 과매도 국면이라는 판단이 확산되면서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남기 삼성투신운용 ETF팀 매니저는 "지수가 급락하면서 콜센터에 액티브 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 등의 ETF 투자 문의가 빗발쳤다"며 "실제로 지난 24일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기초자산인 ETF의 거래량이 한 달 전에 비해 1.5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다.

ELS와 DLS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선물·옵션 ELW ETF 등은 HTS(홈 트레이딩 시스템)로 손쉽게 거래할 수 있지만 ELS와 DLS는 증권사 지점에 직접 가서 투자해야 한다. 두 상품 모두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구조가 다양하다는 게 장점이다. ELS는 주식에만 투자하지만, DLS는 이자율 환율 원자재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둘 다 기초자산의 향후 전망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

특히 DLS는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한다. ELS와 DLS는 원금 보장에 비해 원금 비보장형은 기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선물·옵션·ELW 등 '고위험·고수익'

ELS·ELF도 '원금손실' 유의해야

분산 또 분산··위험관리가 가장 중요

대적으로 고비용이 있어야 하는 데다 고위험 상품이라서 개인들 중에선 전문 투자자들이 선물·옵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인자 동양증권증권 파생상품리서치팀 과장은 "선물·옵션에선 위험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투자자들부터 주식투자의 헤지 목적으로 제한해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LW도 적지 않은 위험이 따르는 파생상품이다. 코스피200지수나 특정 종목 등 기초자산을 사전에 정한 미래의 시기(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콜 ELW) 파는(풋 ELW) 권리를 지닌 유가증권이 ELW다. 따라서 풋 ELW를 이용하면 주가가 빠질 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과 반대로 주가가 올

설정 1년 인사이트펀드 大해부

‘국민펀드’로 이름을 진중시켰던 미래에셋 인사이트펀드가 31일 설정 1주년을 맞았다. 국내 최초의 ‘글로벌 스윙 펀드’를 표방하며 4조원이 넘는 시종자

금을 끌어모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반토막이 난 초라한 모습이다. 대한민국 의 대표 운용사로 급성장한 미래에셋이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운용하는 인사이트펀드가 왜 이렇게 됐는가. 다시 투자자들의 입에 웃음을 찾아줄 수는 없는가. 답은 내부에 있다.

‘국민펀드’ 원금 반토막 이유있다

◇펀드매니저 구성 문제 있다-인사이트펀드의 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쌓여 있다. 자산운용보고서에 쓰여진 몇 줄의 설명 외에는 이 펀드를 설명할 길은 달리 없다.

자산운용보고서에 등재돼 있는 펀드매니저는 버나드 임 싱가포르법인 CIO, 윌프레드 시트 홍콩 CIO, 호세 모랄레스 영국 CIO다. 출시 당시 대표 펀드매니저였던 이준용 영국법인 대표는 미국법인 출범 준비를 이유로 인사이트에서 빠진 상태다.

미래에셋 본사 측에 인사이트펀드 운용역의 경력을 문의했지만 미래에셋 측의 공식 대답은 “해외 CIO는 각국 법인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경력 외에는 우리도 모른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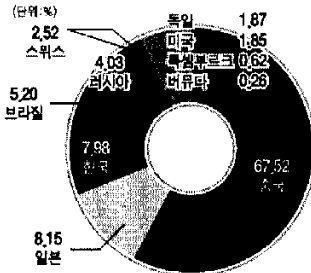
자산운용보고서와 이제껏 언론에 공개된 매니저들의 이력만 들여다보면 미래에셋의 ‘글로벌 스윙’ 운용은 애당초 불가능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임 CIO는 지난 2005년부터 미래에셋 싱가포르법인에서 홍콩-중국주식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활동했다.

시트 CIO는 베어링 등에서 중국펀드 운용만 10년간 한 인물이다. 모랄레스 CIO는 HSBC와 델론 운용 등에서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등 주식을 운용했던 경력으로 미래에셋에 들어왔다. 여기에 인사이트펀드 운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중국 사랑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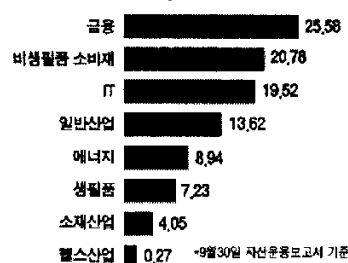
모두 이머징-중국 투자로 성공한 매니저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인사이트펀드의 중국비중이 왜 그렇게 높은가 의문을 갖지

펀드매니저 거의 중국통 ... 애당초 ‘글로벌 스윙’ 불가능
운용역할 망각한채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식 접근 문제
시장 통찰력도 부족... 위기 넘기려면 투자자 이해 구해야

인사이트펀드 국가별 투자비중



산업별 투자 비중 (단위: %)



※9월 30일 자산운용보고서 기준

만 이들의 이력을 감안하면 ‘중국 몰빵’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자산운용사 역할 망각했다-인사이트펀드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뛰어넘으려 했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방향과 지역, 운용방침 등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믿고 투자한 고객들의 자산을 굴러주는 역할이 본래인데도 고객들의 자산배분까지 대신해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자

신의 ‘역할’을 무리하게 뛰어넘었다는 것이다.

일선 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국내 판매사들의 자산관리 서비스가 미약하다고 해도 미래에셋이 그것을 과소평가하면서 돈만 맡기면 모든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짜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한 게 문제”라며 “인사이트펀드가 처음 내세웠던 방식은 사모를 통한 헤지펀드에서나 통용될 법칙이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에서는 써서는 안 될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에셋은 부정하지만 ‘돈 되는 곳에는 어디든 투자한다’고 알고 달려든 고객들에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적이 있느냐”며 “높은 운용보수에서 드러나듯이 자신들만이 굉장한 운용능

력을 지녔다고 여겼던 것 자체가 자만”이라고 꼬아붙였다.

◇인사이트(통찰력) 없는 인사이트 펀드-장기적인 통찰력을 갖겠다고 장담했지만 그 통찰력은 지난 1년 사이에도 수차례 바뀌었다. 처음엔 브릭스 국가에 72% 투자하더니 다음 분기에는 중국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이후에는 일본 비중을 10% 가까이 두다가 다시 줄이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인사이트가 비중을 늘릴 때마다 해당 국가 주가는 곤두박질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애널리스트는 “운용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비판이 일면 러시아-브라질 혹은 일본 등의 비중을 늘렸지만 그때마다 더욱 급락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인사이트펀드에 인사이트(통찰력)가 없다”고 꼬집었다.

◇위기 넘기려면 투자자 이해 구해야-당분간 인사이트펀드의 수익률이 회복되긴 어려워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지난 1년간 급락한 이머징마켓 증시의 회복을 자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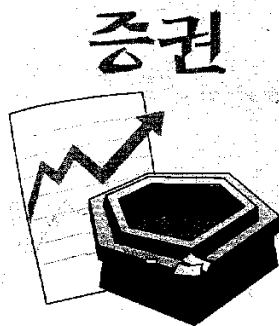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인사이트펀드에서 이렇다 할 자금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미래에셋이 허심탄회한 자세로 인사이트펀드에 대해 투자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만 이 앞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는 길이다.

공교롭게도 오는 12월이면 국내 최초의 뮤추얼펀드인 ‘박현주펀드’가 출시된 지 꼭 10년이 된다. 10년 전 박 회장이 IMF 외환위기를 기회로 지금의 미래에셋을 알렸듯이 이번 위기를 또 어떻게 기회로 엮어낼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미래에셋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성훈기자 fuf@sed.co.kr





증권

국내 주식시장이 하루에도 150포인트 이상 출렁이며 요동치고 있다. 시장에 들어갈려는 사람이나 팔고 나오려는 사람이나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 언제 얼마나 오를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시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3년 이상 장기투자를 '결심'한 투자자라면 그레도 정답은 주식이다.

매일경제신문이 혼란기 재테크시장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증권 전문가 20명 가운데 19명이 3~5년 중장기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투자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 특히 증시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조짐을 보인다면 주식자산 비중을 소폭(월 자산 대비 15% 미만) 늘리는 것이 좋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에 달했다. 자산 대비 15%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을 추천한 전문가도 4명이나 됐다.

전문가 95% “3년 내다보면 주식이 최고”

이종우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설립현상으로 과도하게 빠지고 있지만 내년 1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부터는 상승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업실적이 내년 3분기부터는 증가할 수 있다”며 “현재는 심리가 시장을 좌우하지만 주기는 결국 펀더멘털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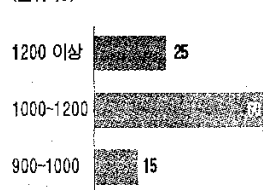
반면 지금까지 주식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게 높았던 만큼 오히려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 주식시장 뒤에는 경기둔화라는 ‘나쁜 카드’가 남아 있다”며 “반등시엔 주식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증시에 대한 불안감은 투자기간이 짧을수록 뚜렷이 부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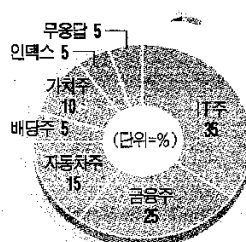
향후 1년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무려 40%가 채권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주식(35%)이나 예·적금(25%)보다도 높은 수치로 최근 저금리 추세와 맞물려 채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데 따른 의견이다. 과거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가계가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었지만 지금은 투자환경이 달라진 만큼 투자를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황상연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디플레이션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확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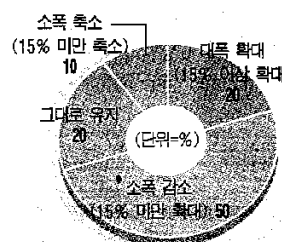
내년 상반기 코스피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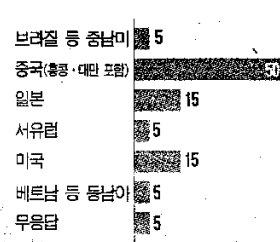
유망 업종은?



반등장 주식 비중은 어떻게?



유망 해외 펀드는? (단위: %)



코스피 저점 800~900...내년 상반기 1000~1200 전망

뒤 투자하는 것이 필수”라며 “대차대조표가 건실하고 기본 영업 경쟁력이 있으며 업계를 선도하는 대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금은 누구도 벨류에이션이 바닥 권임을 부인하지 않는다”며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는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언제 어느 정도로 반등할 수 있을까.

75%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코스피 800~900을 저점이라고 예상했다. 현 지수대가 바

닥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나머지 25%는 최저 700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답해 조금 더 부정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증시 회복 시점으로는 2009년 하반기를 예상하는 사람이 65%로 가장 많았다. 일러 봤자 2009년 상반기(30%)가 돼야 회복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연내에 증시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한 사람도 없었다.

코스피는 당분간 큰 폭으로 반등하기보다는 완만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체 응답자 중 60%는 내년 상반기 주가

수준을 코스피 1000~1200 정도로 예상했다. 이 밖에 25%는 1200대 이상도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15%는 900~1000선에 계속 머물 것이라며 신중한 의견을 나타냈다.

혼조를 보이는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올 연말 1500~2000 수준으로 보는 의견이 65%로 가장 많았다. 2000~2500을 예상하는 응답자는 30%, 2500선 이상이라고 내다본 전문가들은 1명뿐이었다.

증시가 반등할 경우 주목해야 할 업종·섹터로는 35%가 IT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금융주(25%), 자동차주(15%), 가치주(10%)를 추천했으며 배당주·인덱스는 각각 5%가 권했다.

반면 수급 및 재무구조, 안정적 수익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형주(25%)와 조선·철강·기계주(20%)는 피해야 할 업종이라고 답했다. 해외 펀드에 투자한다면 그나마 홍콩·대만 등 중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시가 반등한다면 손절매와 환매 유혹에 시달리는 주식이나 펀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합’이었다. 55%에 달하는 전문가들은 ‘그대로 유지하라’고 했으며 ‘비중을 줄인다’(25%), ‘적극적으로 매입한다’(20%)가 그 뒤를 이었다. 이소아 기자

앞으로 1년간 투자한다면...

채권·예금·주식順

▶ 관련기사 B3·4·5면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 시장을 강타한 지 한 달. 널뛰기 장세 속에 20일도 못 돼 코스피 1000 일시 붕괴를 지켜 본 재테크 전문가들은 '안전성'을 최선의 투자 미덕으로 꼽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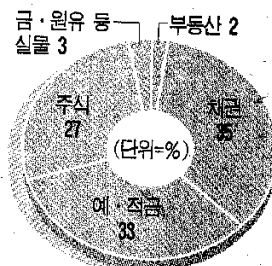
매일경제가 30일 은행·증권·부동산 3개 분야 투자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하반기까지는 '지키기 전략'을 고수하라는 답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우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 경기 부진은 2009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48%)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까지만 해도 '국내 주식·펀드'를 최고 재테크 수단으로 꼽던 전문가들은 예·적금에서 나아가 채권을 추천했다. 그러나 3년 이상 장기투자를 한다면 주식(77%)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안겨줄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각 분야 전문가 35%가 향후 1년 동안 투자할 곳으로 은행채 등 채권을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종우 HMC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저금리 추

앞으로 1년간 투자할 만한 상품



*설문 대상은 증권, 은행, 부동산 전문가 각 20명씩

세가 이어지면서 채권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위는 예·적금(33%)이 차지했으며 불과 두 달 전에 전문가 43% 지지를 받았던 국내 주식·펀드는 27%로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내년도 국내 GDP 예상 성장률은 3% 미만(40%)과 3~3.5%(40%)라고 답한 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막대한 손실을 내고 있는 주식 시장은 내년 상반기에 1000~1200(60%)을 유지하다 하반기(65%)에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부동산 전문가 중 65%는 내년 하반기 집값이 반등할 것으로 보고 2009년 상반기에 주택, 그 중에서도 아파트(55%)를 매입하라고 했다.

이소아·이재화·서유진 기자

매 일 경 제

해외펀드는 그래도 중국

러시아·동유럽·중남미는 피해야

“글로벌 경기 침체 ‘폭탄’에 그나마 활기 있는 곳은 중국밖에 없다.”

전문가들의 중국 펀드 예찬론은 이번에도 계속됐다. 반 토막이 난 중국 펀드가 수두룩한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왜 자꾸 중국을 추천하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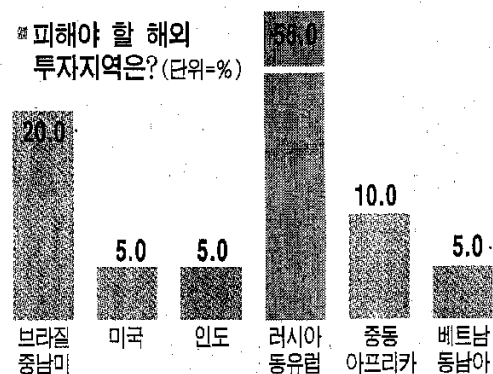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제테크 설문조사에 참가한 증권전문가 20명 가운데 절반인 10명은 해외 유망 펀드를 묻는 질문에 중국(홍콩·대만 포함) 펀드라고 대답했다. 이는 8월 29일 설문 당시와 비슷한 비율이지만 전문가들의 중국 펀드 추천 이유를 들여보면 분위기는 예전과 사뭇 달라졌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지난 설문조사 당시 중국 펀드 추천의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이었던 것. 그만큼 싸다는 것.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 이때 사두면 괜찮다는 논리였다. 당시만 해도 시장 충격이 덜했던 만큼 주가의 초점이 펀더멘털(기초여건)에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최근 중국을 주목하는 이유는 결국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괜찮은 중국의 매력에 부각될 것이라 얘기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현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은 곳은 중국이 거의 유일하다”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결되고 자금이 흐르기 시작하면 결국 성장률이 높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밖에 눈에 띄는 유

피해야 할 해외 투자지역은? (단위=%)



망 지역은 일본이다. 일본은 지난번 조사에서는 순위에도 들지 못했지만 이제 미국과 함께 당당히 공동 2위로 올라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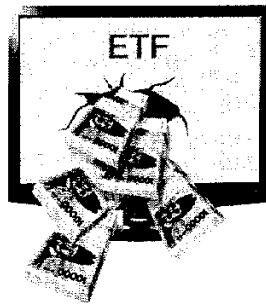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의 15%인 3명이 일본을 유망 지역으로 꼽았는데 이처럼 일본 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역시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향후 금융위기 안정시 반등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미국을 유망하다고 답한 전문가는 3명으로 일본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편 투자를 피해야 할 지역으로는 러시아와 동유럽이 첫손에 꼽혔다. 전체 응답자의 55%가 비선호 지역이라고 응답했는데 이 지역은 자체 내수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됐다.

결국 서유럽 경제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투자 위험이 크다는 평가다.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지역이 뒤를 이었다.

이재화 기자



‘시장 통째로 사는’ 상장지수펀드

지수 상승률만큼 ‘수익’..불확실한 시장 대안 떠올라 거래 급증

지난 10월17일 ‘삼성그룹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량이 279만 주를 기록했다.지난 5월21일 상장 이후 최고치였다.9월 말 하루 평균 거래량 10만~20만주에 비하면 10배가 넘게 급증한 것이다.이 펀드를 운용하는 삼성투신운용 ETF 담당자들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하지만 이후에도 하루 거래량이 계속 100만주를 넘어서 예상은 빗나갔다.삼성그룹주 ETF만의 얘기는 아니다.국내 대표적 ETF인 ‘코덱스200’ 거래량도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삼성투신운용 관계자는 “최근 콜센터에는 ETF 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라고 말했다.이 말은 거래를 증가시킨 주체가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들이라는 뜻이다.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ETF로 돌려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ETF 보수내역

회사명	펀드명	총보수	회사명	펀드명	총보수
삼성투신 운용	삼성KODEX200상장지수	0.35%	KOSEF200ETF		0.36%
	삼성KODEX KRX100상장지수	0.52%	KOSEF IT ETF		0.50%
	삼성KODEX삼성그룹주상장지수	0.40%	KOSEF BANKS ETF		0.50%
	삼성KODEX반도체상장지수	0.50%	무리CS KOFSEF중형순수가치		0.50%
	삼성KODEX은행상장지수	0.50%	자산 KOFSEF대형가치		0.50%
	삼성KODEX자동차상장지수	0.50%	우리CS KOFSEF블루칩상장지수		0.50%
	삼성KODEX증권주상장지수	0.49%	우리CS KOFSEF고배당상장지수		0.50%
	삼성KODEX조선주상장지수	0.49%	KOFSEF KRX100상장지수		0.23%
	삼성KODEX중대형성장	0.49%	미래에셋TIGER순수가치		0.46%
	삼성KODEX중대형가치	0.49%	미래에셋TIGER중형가치		0.46%
	삼성KODEX중형가치	0.49%	미래에셋TIGER메디칼헬스상장지수		0.46%
	삼성KODEX Chirah	0.66%	미래에셋TIGER KRX100상장지수		0.46%
	삼성KODEX JAPAN	0.65%	미래에셋TIGER SEMICON상장지수		0.46%
	삼성KODEX Brazil상장지수	0.65%	미래에셋TIGER BANKS상장지수		0.46%
	삼성KODEX 15	0.45%	미래에셋TIGER200상장지수		0.46%
유리자산	유리TIFEX중소형가치상장지수	0.46%	미래에셋TIGER브릭스상장지수		0.49%
	한국KINDEX200상장지수	0.30%	미래에셋TIGER라틴 상장지수		0.49%
한국투신 운용	한국KINDEXF15상장지수	0.40%	KB자산 운용 KStar 5대 그룹주 상장지수		0.40%



◆시장을 통째로 사는 수단

ETF는 말 그대로 상장된 지수(인덱스)형 펀드다.따라갈 지수를 정해 놓고 이 지수와 가장 유사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라는 얘기다.예를 들어 코스피200지수를 따라가는 펀드는 이 지수의 상승률만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다.따라서 코스피200 ETF를 산다는 것은 코스피200에 포함된 200개 종목을 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ETF가 인덱스 펀드와 다른 점은 상장돼 있다는 것이다.상장돼 있기 때문에 매매하기도 편하다.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골고루 사고 싶다면 ‘삼성그룹주 ETF’를 사면 되고,증권 업종에 투자하고 싶다면 ‘증권업종 ETF’를 사

면 되는 셈이다.

최근 자산운용사들이 다양한 상품을 내놓으면서 투자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업종별로는 반도체 은행 자동차 조선 IT(정보기술) 관련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돼 있고 가치주 등 스타일별로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다.또 작년과 올해 해외 투자 바람을 타고 중국 일본 브라질 브릭스 국가 등의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나왔다.

ETF 투자의 장점은 매매의 편의성에 그치지 않는다.펀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내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 때 내는 수수료도 일반 주식형 펀드에 비해 훨씬 싸다.보수가 0.23~0.5% 수준이다.10년이면 주식형 펀드와의 수수료 차이만 해도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다.주식형 펀드처럼 뛰어난 펀드매니저를 고용해 수익을 내기 위해 해야 하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시기의 대안으로 부상 ETF가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이다.세계적 금융위기로 어떤 기업이 안전한지 장담할 수 없다.업종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다.따라서 이런 투자는 상당한 모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결국 가장 안전한 투자는 시장을 사는 것이다.주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고 하락하더라도 시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재상승의 기회는 다시 오기 때문이다.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그래서 다른 투자와 달리 고민거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ETF 정도사로 불리는 배재규 삼성투신운용 상무는 “ETF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라고 단언한다.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없고 저절로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있고,다른 펀드와 달리 언제든 필요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매력도 있기 때문이다.

김학균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발전과 자본주의 성장을 믿는다면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가장 싸게 시장을 사는 방법은 ETF를 분할 매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해외ETF

美 등 성장 거듭...2011년 세계시장 2천兆 예상

해외 ETF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증권거래소에는 75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ETF 1171개가 상장돼 있다. 순자산 규모는 약 797조원에 이른다.

ETF 시장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미국이다. 1993년 ETF가 개발된 후 미국 ETF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며 작년 시장 규모는 500조원

에 육박했다.

2002년 102조원에서 5년 만에 400%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유럽은 작년 처음으로 ETF 시장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2002년 10조원에 불과했던 유럽 ETF 시장은 5년 새 10배 가까이 성장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선진국 시

장일수록 주식형 펀드 등 액티브 펀드 투자를 통한 초과 수익 달성이 어렵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와 이를 따라가는 ETF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는 2011년께 세계 ETF 시장 규모가 2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 성장궤도에

접어들면 인덱스 펀드와 ETF 시장이 커질 것이란 게 ETF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IT(정보기술) 버블이 꺼진 2002년 전체 주식형 펀드로 유입된 자금 가운데 66%가 인덱스 펀드로 들어왔고 27.4%가 ETF로 흘러가면서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작년 말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ETF가

차지하는 비중은 7.8%대까지 올라와 있다.

ETF는 전 세계적으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주로 투자하는 상품이며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관들은 현물을 산 후 이를 헤지하거나 차익거래를 위해 ETF를 활용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TF 거래 특징

최소 매매단위	1주
거래비용	매매수수료(거래사, 선취보수, 환매수수료 없음)
배당	분기마다 배당금 분배

ETF 투자 효과

적합식 펀드 효과
선물투자와 유사한 전략 구사
손쉽게 해외 투자 가능
섹터 및 스타일 투자에 유리

자료: 삼성투신운용

ETF투자 유의사항

거래량 적은 상품은 불리 순자산 가치와의 괴리율 챙겨야

상장지수펀드(ETF)는 개인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지수에 투자할 수 있게 해주는 매력을 가진 상품이다.

지수 방향성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예전엔 지수 전체로 구성된 바스켓이나 파생상품인 선물을 거래해야 했지만 선물은 한 계약의 크기가 억원 단위에 이를 정도로 커 소액투자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웠다.

이에 반해 ETF는 거래 단위가 1주이고 가격도 저렴해 개인들에게 적절한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인덱스 펀드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매수 매도 시점을 투자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 같은 점은 ETF를 마치 개별주식과 같이 단타에 이용하게 하는 결과도 가져온다. 한 자산운용사 담당자는 “매도의 유혹을 이겨내고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은 개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인덱스 펀드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강제적으로 매도를 막아주는 데 대한 일종의 대가인 셈”이라고 말했다.

ETF에 투자할 때는 순자산가치(NAV)와 거래를 통해 결정되는 가격 사이의 괴리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코스피200지수를 기초로 한 ‘코덱스200’을 예로 들면 지난 28일 코스피200지수 132.42에 100을 곱한 1만3242원이 이론가격이며, NAV는 1만3360.88원, 이날 종가는 1만3400원이었다. ETF의 가격과 NAV의 차이를 증가로 나눈 0.29%가

이날의 괴리율로, 이날 코덱스200은 NAV에 비해 0.29%가량 고평가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개별주식과 달리 ETF는 펀드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식 가치의 합을 나타내는 상품이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몰릴 경우 실제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벌어지는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기 삼성투신운용 매니저는 “‘코덱스차이나H ETF’가 처음 나왔을 때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려 NAV와 무관하게 상한가로 직행한 적이 있다”며 “유동성 공급자(LP)가 계속 호가를 제시하며 괴리율을 줄이려고 하지만 투자자들도 이 같은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괴리율이 낮아 저평가 정도가 클 때 매수하고 괴리율이 커져 심하게 고평가됐을 때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설명이다.

또 ETF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거래량이 많은 ETF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코스피200지수를 벤치마크한 ETF 사이에도 지난 28일 ‘코덱스200’이 413만여주가 거래된 데 반해 ‘타이거200’은 135만여주, ‘코세프200’은 32만여주 거래에 그쳤다.

거래량이 적을 경우 실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시에 운용사와 상품을 잘 고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요동치는 증시, ELS 투자자도 울상

‘원금 손실’ 현실로 다가와 - 상품 특성 따라 환매 신중해야

최근 주가가 요동을 치면서 주가연계증권(ELS)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ELS는 일정 범위까지 주가가 빠져도 짝퉁한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여서 하락장에 원금 보장 요구가 높은 투자자들이 몰렸다. 상반기에만 무려 15조원이 넘는 ELS가 발행됐다. “아무리 하락장이라지만 지금보다 30~40%씩 주가가 내리겠느냐”는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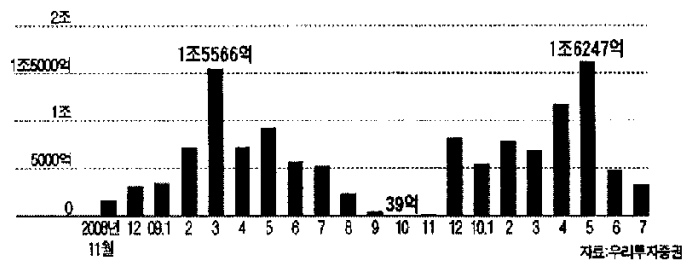
그런데 최근 주가가 하루 10%씩 움직일 정도로 변동성이 커지면서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가정이 현실로 바뀌었다. 우리투자증권 집계 결과 지난해 7월 이후 발행된 ELS의 70%가 원금 보장 구간을 벗어났다. 기초자산별로 볼 때 발행액이 가장 많은 코스피200 지수의 경우 상당수 ELS의 원금보장 하한선이 지수 115~130에 머물러 있다. 우리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원은 “이번 주 코스피200지수가 117까지 하락해 대부분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자산 구성 10위권에 드는 현대중공업·SK·SK에너지의 주가가 연초 대비 70% 이상 하락했고, 홍콩 H지수도 70% 가까이 빠졌다. 종목별 ELS의 기초자산 가운데 그나마 아직 원금 보장 범위에 남은 종목은 삼성전자와 LG전자·SK텔레콤·KT·S-Oil 정도다.

이 때문에 최근 ELS를 많이 발행한 증권사에는 중도 상환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원금 보장 구간을 벗어나면 기초자산 가격 하락률만큼 손실이 발생하지만 더 빠질 것이

올해 발행된 ELS 만기와 규모

단위: 원, 만기규모



올해 발행된 ELS 등락률

기초자산	모집규모 (원)	기초자산 등락률 (%)
코스피200	8조1890억	-46.5%
종목H지수	3조500억	-68.8%
삼성전자	8510억	-19.5%
현대중공업	7300억	-72.4%
포스코	6830억	-53.2%
LG전자	6450억	-22%
LG디스플레이	6110억	-64%
신한지주	4540억	-30.8%
SK에너지	4050억	-73%
SK	3690억	-70.6%

※ 기초자산 등락률은 연초 대비 10월 27일 종가의 비율임

두려워 중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ELS의 구조와 만기, 기초자산 하락률에 따라 달리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부분의 ELS가 조기상환 조건이 붙어 있다. 또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상환 조건이 완화된다. 첫 3개월째는 설정당시 가격의 90%가 넘어야 조기상환되지만 2년쯤 지나면 70%에도 약속된

수익률에 조기상환이 가능한 식이다. 남은 만기 동안 이 조건을 충족하면 다시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최 연구원은 “30일처럼 주가가 하루 11.9%씩 폭등하는 날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기가 얼마 안 남아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다려보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ELS 환매는 주가 낙폭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증권사들은 원금 보장 구간을 벗어난 ELS의 헤지 물량을 팔아 주가 하락 폭을 키웠다. 하지만 30일 주가가 크게 오르면 다시 조기상환에 대비하기 위한 헤지를 시작했다.

이날 증권사는 거래소에서 1273억원의 현물과, 968계약의 선물을 매입했다. 주가가 오를 때 더 오르게 하고 내릴 때 더 빠지게 하는 촉매 역할을 ELS가 맡은 셈이다. 올해 발행된 ELS의 만기가 몰린 내년 3월까지의 이런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현철 기자

chdcck@joongang.co.kr

(edaily리포트)140조원의 수업료

[이데일리 김유정기자] "리먼브러더스?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내 돈이 없어진게 리먼브러더스 때문이라니 말도 안된다! 어서 책임진다고 대답해라!"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편입한 펀드들이 지급불이행 사태를 맞으면서 해당 자산운용사들이 이번주 수익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법에 근거한 표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감성적 항의와 고성이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다녀온 김유정 기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지난 28일에는 우리CS자산운용과 하나UBS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등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과 관련해 펀드 환매연기 신청을 한 자산운용사들의 수익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간접투자자산운용법(간투법)에 근거에 환매연기 신청 후 6주내에 수익자 총회를 열고, 정족수 과반수가 참석하면 여기서 의장을 선출해 환매 연기 찬반 등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투법에서 정하는 회의 진행은 현실에선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표결을 진행하기에는 투자자들은 이미 너무나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사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강단에 선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을 가하려는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인 나도 모르게 노후자금 1억원을 투자하셨다가 이렇게 됐다는걸 이제서야 알고 회의에 내신 참석했다', '남편 모르게 보유한 현금을 몽땅 투자했다. 잘해보려 한 일인데 이제 난 남편에게 뭐라 해야하나' 등등 각자의 억울한 사연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 다르지만 하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선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얘길 해주지 않았다', 혹은 '은행 정기예금과는 다른 위험한 상품이란 것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등 투자위험에 대한 고지가 분명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수익자 중 대부분이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고객보다는 은행을 통해 가입한 투자자라는 점도 이를 어느정도 설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같이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으며 자산운용사 직원들에게 '배상해준다고 약속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해당 펀드의 손실에 대해서 자산운용사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 이를 가려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시장 상황 혹은 이처럼 예상치 못한 발행사의 부도로 인한 손실까지 자산운용사가 무조건 ' 물어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은 알리가 없겠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나서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우선 투자자 자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대충 훑어보고 치워버리는 투자설명

서 측은 한장짜리 팜플렛에도 이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는 문구의 무게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기는 투자자도 판매사도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내 펀드시장은 작년 4월말 전체 주식형펀드 51조원 수준에서 10월28일 기준 140조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투자와 상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상품을 판 판매사와, 모르고 가입한 투자자, 수탁고 늘리는데만 신경쓰느라 판매인력과 투자자 교육을 소홀히 한 자산운용사 모두 140조원 만큼의 무게를 지금 한꺼번에 되돌려 받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익자 총회를 열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 애보다 둘째애 낳을때가 더 무섭다더라'고 말이지요. 수익자 총회를 2주 이내로 재소집해야 하지만 성난 투자자들을 다시 마주할 염두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리먼 관련 파생상품 지급불이행 사태를 통해 우리는 비싸도 너무 비싼 수업을 받고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후자금 1억원을 잃어버린 투자자도, 신뢰가 무너진 자산운용사도, 은행들도 모두들 리먼브러더스 파산신청 상황이 종결될 때까지는 우울한 기다림과 싸움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애' 낳는 날만을 힘겹게 기다리는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들만큼이나 취재수첩을 들고가 분노의 현장을 또 담아야할 생각을 하니 우울해집니다.

한글기

“자사주 취득 기업 봇물… 옥석 가려야”

일부 현금성 자산 부족불구 증시 진정조짐에 무리하게 강행

증시하락이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코스닥 기업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금성 자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자사주를 매입하는 기업이 있어 투자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한국기업평가 증권사와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등 7개 업체가 자사주 매입이나 신탁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전날에도 8개 회사가, 지난 28일에는 9개의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했다. 화우테크 등을 들어 두 번 이상 자사주 취득에 나선 회사도 늘어나고 있다.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한편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 때문이다. 최근 지나치게 주가가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주가 장기부양 도움 안돼… 하락땐 치명적”

● 30일 자사주 취득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단위:억원)

기업	기간	취득예정 금액	시가총액
한국기업평가	2008년11월3일~2011년 11월2일	15	1,237
유니더스	2008년11월3일~2009년12월2일	3	76
창해에너지머링	2008 10월30일~2009년4월30일	5	273
동경정화	2008년10월30일~2009년 4월29일	5	68
코메론	2008년10월30일~2009년4월30일	10	181
한국선지	2008년10월30일~2009년4월30일	5	441
한국약품	2008년11월3일~2009년2월1일	2	486

※자료:금융감독 전자공시시스템

문제는 자사주 취득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마치 자사주 취득을 하지 않는 회사는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데 소홀한 것처럼 비쳐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사 내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억지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나서는 회사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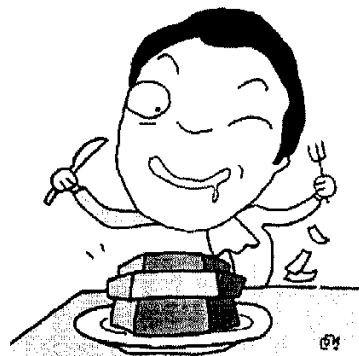
10억원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한 A사는 올 상반기 12억5,000만원 매출에, 무려 5억8,0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6월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1억원밖에 없다고 공시한 상태여서 이를 자사주 취득으로 모두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풀

이된다. 전날 증권사와 1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한 B사는 6월 말 현재 22억원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지만 상반기에만 3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기업이다. 같은 기간 순손실은 더 많아 45억원이나 됐다.

자사주를 취득, 소각해야 주주가치가 올라가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자사주 매입 후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업체들도 적지 않은데 단지 증시 부진에만 이에 대한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것이다.

한병화 현대증권 선임연구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함에도 주가가 낮은 상황에서 주식을 매수,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장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주가에 전혀 도움되지 않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am@sed.co.kr

명동 사채시장 코스닥에 눈독?



경영권 분쟁중인 급등락 저가주에 개입...투자 조심해야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굴러다니는 뭉치돈이 주식시장을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30일 코스피가 115포인트나 꺾어 떨어졌지만 그동안 주요국 증시가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면서 사채시장 전주(錢主)들이 주식매입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돈냄새를 좇아 움직이기로 유명한 사채시장 전주들은 "아직 주가가 완전히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년 이상 사채를 굴려온 A씨는 "코스피 1000선이 깨진 지난 금요일 사채 자금이 증시로 꽤 유입됐다"면서 "며칠 새 큰 돈을 번 사람들도 많다"고 전했다.

'바지사장'을 통해 투자하는 자금 특성상 사채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됐는지 알기는 어렵다. 사채자금을 통한 기업인수로 유명한 B씨에 따르면 "최근 주가 급락장에서 경영진이 교체되거나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코스닥 기업 중 상당수는 사채쪽 자금이 개입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대다수 명동의 '큰손'들은 아직 섣불리 나설 때가 아니라는 반

응이다.

한 적대적 M&A 컨설턴트는 "진짜 부자들은 주가 바닥을 500 이하로 보는 것 같다"면서 "증시에 눈독을 들이고는 있지만 현금을 쌓아두고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은 명동 사채금리에도 반영되고 있다. 한 회사채 관련 정보업체에 따르면 작년 3분기 월 2.5~3% 하던 주식담보부대출 금리가 지금은 월 4.5~5%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60%에 가까운 이자로 법정금리(4.9%)를 넘어서는 수준인데, 그만큼 사채 쓰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사채금리가 이렇게 뛰어오른 데는 사채자금의 공급부족뿐 아니라 기업들의 사채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사채업자 C씨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매일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다"며 "100개 주요 건설사 중 50개 이상은 하루에 두세 차례 전화를 해서 운영자금을 요청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금 명동(사채시장)에서 여의도(증시)로 흘러드는 자금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각별

히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의 내재가치를 판단해 낮은 주가에 기업을 인수하려는 투자자금이 아닌 억지 수급을 악용한 '떡튀' 자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채정보업체 관계자는 "지금 온 소규모 작전세력들이 날뛰는 시기"라며 "약세장에서 주가가 급등하면 눈에 띄겠지만 뒤따라 들어가면 족박 차기 십상"이라고 충고했다. 사채업자 C씨도 "1000원대 이하 종목 가운데 최근 주가가 급등락한 것들은 대부분(작전세력) 손을 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거들었다.

문성원 헬릭스셋 대표는 "지분경쟁이 붙은 종목이라도 그 기업의 재무현황을 들여다보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분경쟁이 일어나는 대부분 기업들은 적자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기업은 지분경쟁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친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이 있거나, 현금이 풍부하거나, 꾸준한 실적을 내는 회사는 지분경쟁을 통한 주가 상승이 내재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범주 기자

코스닥 시장이 위태롭다

(3) 액면가 이하 종목 속출

2억이면 누구나 최대주주?

179개사 액면가이하... 228개사 시총 100억 미만
사채등 단기수익노린 자금 유입 시장 혼탁 우려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이 향후 극심한 경영권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금융위기발 한파로 인한 국내 증권시장의 폭락세로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종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 개인 및 장외기업이 소규모 자금으로도 해당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 경영권 획득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이유다.

특히 일명 '명동 사채'로 불리는 자금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루머로 코스닥시장이 '머니게임'의 장으로 혼탁해질 수 있다는 걱정의 소리가 증권업계 일각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2억원이면 최대주주 등극(?)
결국 주가 하락으로 회사의 가치가 크게 추락한 게 원인.

잇단 급락세로 코스닥시장 상장사 한주 가격이 1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

기업이 점차 증가하며 적은 돈으로도 경영권 획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30일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전체 종목 중 액면가 이하인 곳은 179개사.

에버리소스 및 큐로컴, 파스메뉴 등 8개사는 주가가 1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주의 가격이 말 그대로 '검값'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또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인 상장사도 228개사나 됐다. 특히 삼협글로벌, 온누리애어 등은 시총이 불과 2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이날 보험세를 보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경우 한주 가격이 75원.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주식 총수가 4096만주임을 고려할 때 1억 4336만원으로도 5% 이상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다. 또 팬텀엔터테인

코스닥시장 주가 100원 이하 및 시총 30억원 미만 상장사

◦액면가 이하 종목 중 주가 100원 이하 종목
에버리소스, ST&I, 온누리애어, 팬텀엔터테인먼트, 파스메뉴, 신명B&F, 씨엔씨테크, 엔이씨, 스타맥스, 스코프스, 디에스피, 큐로컴

◦시총 30억원 미만 상장사
온누리애어, 삼협글로벌, 도음, 씨엔씨테크, 봉주, 테스트

자료: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먼트그룹 최대주주인 이주율씨가 6%(223만4636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2억70만4000원으로 286만7200주(7%)를 매수할 경우 새로운 주인으로 올라설 수 있다.

ST&I의 종가는 55원. 4463만 3600원이면 전체 주식의 1%(81만 1520주)를 살 수 있다.

현재 주인인 재로니모의 지분율이 10.02%(812만7934주)이므로 4억 9096만9600원이면 ST&I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사채 유입설 등 시장 불안정성 급증

상황이 이러니만큼 향후 코스닥

상장사 중 경영권 분쟁에 노출되는 회사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명 '명동사채'로 불리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소문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단기수익을 노린 자금이 시장에 돌아옴으로써 향후 코스닥시장이 '머니게임'으로 혼탁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명동 사채시장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사채시장 자금이 자금난에 빠진 코스닥시장 상장사로 유입된 바 있지만 현재는 주가 급락으로 인해 이 같은 움직임이 많이 둔화됐다"며 "연 60%의 높은 이율을 적용한 주식 및 부동산담보대출 등으로 경영권에 압박을 가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급락으로 지금은 이 같은 명동자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주식시장이 다시 정상을 찾을 경우 사채시장 자금이 유입된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에서 '머니게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always@fnnews.com|안현덕기자]

고금리에 예금러시

저축銀 ‘복직’ 증권사 ‘썰렁’

“8%대 예금 막차 타자” 고객 급증... 펀드자금 3일새 6조 이탈

“한눈이라도 있을 때 예금에 넣어 야죠.” 공무원 변경남씨(31)는 초조한 표정으로 대기인원 전광판을 바라보며 말했다. 50분이나 기다렸지만 아직도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에 짬을 내 저축은행에 들렀는데 기다리다보니 회사에 돌아가야 할 시간마저 지나버렸다. 그럴 때까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말없이 손가락을 들어 영업점 벽면을 가리켰다. ‘정기예금 8.29%’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써 있었다.

1년 전 저축은행 금리가 6%대였을

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상승인 셈이다. 변씨가 지금까지 이 은행에 든 적금금리만 해도 6.6%였으니 지금 같아타면 1.7%포인트 높게 받을 수 있다. 29일 오후 1시쯤 프라이머저축은행 여의도지점은 변씨와 같은 고객들로 복직거렸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방문한 근처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객장 좌석이 가득차고 이들에게 신규가입 신청서를 나눠주는 직원은 아예 자리에 앉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공간은 그리 넓지 않은데 사람이 몰리다보니 열기마저 느껴졌다. 신진철 여의도지점장은 “예금금리가

8%대로 올라간 2~3주 전부터 고객 방문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같은 지점 윤설화 대리도 “요새는 점심도 잘 못먹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류기정씨(29)는 “지금까지는 펀드와 주식을 주로 했지만 장이 워낙 안좋아서 모두 접었다”며 “적금이나 새로 들어야겠다 싶어서 저축은행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30일 자산운용협회와 곳 모 님 신 한 증 권 에 따 르 면 23·24·27일 3일 동안 이탈한 펀드금액은 6조원에 달한다. 한편 분주한 저축은행의 풍경과 대조적으로 이날

증권사 객장은 한산했다. 한 증권사의 경우 손님이 뜸해 창구직원들은 대기하고 있었고 별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였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요새 증시가 안좋으니 아무래도 손님이 줄어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제2금융권 예금러시’는 이번주가 절정이라는 관측이다.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0.7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다음주부터 시중은행들과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금리를 내릴 태세기 때문이다.

장웅조 기자 colorpen@

대차거래 담보물 제한 '증권사 울상'

증권예탁결제원이 기관간 대차거래에서 회사채, 수익증권 등의 담보물을 수탁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채권·주식시장 전체로 담보물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예탁원은 투자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주거래자인 증권사들은 지나친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담보범위는 거래 당사자들이 결정할 일이지, 수탁기관이 일방적으로 제한할 일이 아니라는 것.

특히 가폭이나 유동성 확보에 이상이 걸린 마당에 담보 가능 자산을 줄이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단순히 유가증권 가치 변동 리스크 때문이라면 앞으로 'AAA' 은행채 등에도 똑같은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리스크 관리 차원'=예탁원은 지난 27일 개별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회사채, 기업어음, 금융채(AAA 은행채 제외), 간접투자상품 등을 대차거래 적격 담보물에서 제외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사실상 국공채, 물안채, 은행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만을 담보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차익 실현이나 장단기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차거래나 환매조건부채권(RP), 풀을 활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이 담보를 요구하면 보유 유가증권을 질권으로 설정해 예탁원에 수탁했다.

특히 자체 수신기능이 없는 증권사들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대차거래나 담보물에 의지하는 일이 많다.

이번 예탁원의 결정에 증권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차거래에

상반기 대차거래 현황
(단위: 주, 백만원, 자료: 증권예탁결제원)

월	실적			잔량		
	주식	채권	합계	주식	채권	합계
1	64,415	1,913,010	605,740	58,759	1,509,116	255,236
2	38,053	1,457,416	254,326	72,089	1,486,467	259,242
3	28,867	2,832,893	599,185	77,708	1,575,413	299,916
4	53,914	2,880,457	601,963	95,938	1,783,438	354,809
5	51,728	2,514,215	610,057	94,142	2,433,428	534,151
6	38,086	5,100,447	839,703	86,853	3,311,406	872,434

예탁원 "가치하락 우려" 회사채·CP등 제외 은행채까지 제한 가능성... 유동성 조달 혼선

서 회사채, 수익증권 등의 담보 설정 비중이 낮아 당장 큰 타격은 없겠지만 자금조달을 위한 가용자산이 줄어든다는 점에 우려를 보이고 있다.

증권사 채권운용부 관계자는 "과거부터 담보물이나 RP거래에서 회사채나 수익증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대차거래상 회사채 담보설정 비율 역시 10% 미만이었어서 큰 부담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사시 자금조달을 성사시킬 수 있는 중요한 담보자산을 일방적으로 제외했다는 점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가 금융사들의 유동성 해결에 나서는 것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의 표면적 이유는 담보 리스크 관리를 통한 투자자 보호다. 채권·주식시장

상반기 담보물 거래 현황
(단위: 백만원, 자료: 증권예탁결제원)

월	거래금액	개시 결제금액	상환 결제금액	일평균 거래잔량
1	16,897,600	16,897,600	639,660	844,126
2	14,071,500	14,071,500	1,613,221	933,672
3	11,760,100	11,760,100	300,994	602,613
4	12,957,800	12,957,800	762,483	673,680
5	16,591,800	16,591,800	1,984,912	1,045,84
6	18,073,300	18,073,300	2,030,406	1,119,238

전체로 담보가치가 떨어지면서 투자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예탁원 스스로 입게 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예탁원은 수탁자의 결제 불이행시 담보물을 처분해 손익 정산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회사채, 기업어음 등이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될 경우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금융시장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증권 가치가 떨어져 담보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와 수탁기관의 리스크를 고려해 결정한 사항이며 금융시장에 유동성 충격을 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담보 규제 가능성=하지만 증권업

계에서는 한국증권금융 등 타 수탁기관의 후발 조치나 추가적 담보규제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회사채 및 주식가격 하락이 문제라면 'AAA' 은행채 담보 역시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현재 은행채 스프레드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에도 큰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28일 은행채 'AAA' 3년물 금리차는 기준물(국고 3년) 대비 3.17%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적격 담보물에서 제외된 회사채 'AA A' 3년물보다 18bp나 높은 수준이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수급과 가격이 문제라면 은행채 역시 적격 담보물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현재 정부의 은행 유동성 지원 의지가 워낙 강해 당장 실현되진 않겠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이 계속된다면 은행채 적격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예탁원의 의사결정과 전달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이 속출했다. 예탁원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거래당사자들과 단 한번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갑작스럽게 결정사항을 통고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소 수개월의 자금계획을 다 맞춰놓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단기 자금조달과 운용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적어도 3~6개월 정도는 유예나 협의 기간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수탁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담보물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몫"이라며 "예탁원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격 담보물을 제한한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황철 기자 biggrow@

고객들에 쏟아지는 항의
가입권유한 지인들 눈치

A증권사 모 직원은 요즘 어머니 불 면목이 없다. 지난해 말 어머니에게 좋은 상품이라며 추천해 가입한 펀드 수익률이 반 토막 났기 때문. 아들 장가보낼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던 어머니도 아들에게 슬쩍 미안한 마음이 들어 펀드 이야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단다. 펀드로 유명한 증권사에 근무하는 아들의 추천 상품을 덜컥 믿은 게 화근이었다.

증권맨들 '펀드 우울증'



직원들 '술선수범 가입' 후 수익률 폭락에 자책감 시달려

B증권사 강남 지점에 근무하는 한 여직원은 집에 들어가기가 겁난다. 회사 캠페인 실적도 올리고 목돈도 벌어 보고자 가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에게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가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가 돼 버렸다.

지난해 초 부모님에게 각각 캠퍼카운트 상품과 글로벌리츠펀드를 가입시켰고, 지난해 말 고점 무렵에는 언니에게 차이나펀드를, 군대에서 제대해 휴학한 남동생에게엔 복학 자금 마련을 위해 국내주식형펀드를 적립식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했다. 아버지 랩 계좌에서 올해 초까지 수익 난 부분을 일부 환매한 것을 제외하고 불입한지 오래됐다. 평균 40~60% 평가손실을 기록 중. 처음에는 업황이 안 좋은 것을 핑계 삼아 얘기했지만 실은 환매 타이밍을 놓친 것에 대

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부모님 노후 자금과 언니 시집 밑천, 남동생 학자금 마련이 수포로 돌아가자 증권사 다니는 딸로서 얼굴을 못들 지경이다.

C증권사 모 직원은 더 속이 터진다. 지난해 펀드 열풍에 휩싸여 이사 자금을 펀드 4개에 나눠 넣어뒀던 그는 매일 두려움에 떨며 수익률을 확인한다. 일본과 러시아펀드 등에 투자했는데 평균 수익률은 -40% 수준. 내년 초 계약이 끝나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값이 쉰 경기도 인근으로 옮겨야 할 형편이다. 총 1500만원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500만원도 안 남았다고 한다.

D증권사 사장은 하소연할 곳도 없다. 증권사 CEO로서 술선수범 차원에

새로운 펀드 상품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입을 한 것. 지난해 가입한 전체 펀드 중에서 한 해치를 잘한 중국 관련 상품을 제외하고 모두 폭박 수익률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가입을 권유하기도 민망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가족에선 상황의 절반 정도만 대충 알버무였다.

올 들어 증권사 경영진을 포함한 본사·지점 직원들의 고충이 배가 되고 있다. 폭락장에 고객들 항의로 매일 욕먹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남에게 말하지도 못하는 고민으로 속만 시커멓게 타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지난해 펀드 광풍이 불던 때 본인 스스로 여러 개의 펀드를 들었

지만 친인척과 친구 등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도 펀드 가입을 권유했던 게 화근이 된 것이다. 수익률이 곤두박질 칠수록 가슴에 든 명 자국은 더욱 시퍼레진다.

본인은 50~60% 손실난 것도 부아가 터져 죽을 지경이지만, 친인척과 친구들을 펀드에 끌어들이 1년 만에 50% 이상 손실을 낸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는 증권사 직원들이 허다하다.

E증권사 관계자는 "부인이 펀드 투자를 하고 싶어서 지난해 말 꼭짓점에서 적당한 상품을 골라줬는데 증권사 다니면서 이런 상황 예견도 못 했느냐고 매일 핀잔 듣는다"며 쓸쓸해했다.

F증권사 임원급 관계자도 "절친한 친구한테 펀드를 가입시켰는데 최근 수익률을 몰래 확인했더니 70% 가까이 떨어져 심장이 쿵쥔거렸다"고 전했다.

특히 대형사 위주로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G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그나마 우리는 펀드 상품이 별로 없어 권유할 만한 것도 없었지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많은 직원이 민망한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한 증권사 지점 직원은 "캠페인이 걸리면 뒷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해 그 당시 수익률이 좋은 상품을 대충 추천하기도 했다"며 "펀드가 유명한 회사이긴 하지만 솔직히 간접 투자는 한 적이 없고 무조건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라도 그럴 것"이라고 속마음을 드러냈다. 김혜원 기자 kimhye@



증권가 So Hot

- 기자들이 전하는 '생생' 뒷 이야기

증권사 직원 “전화벨이 무서워”

○...증권사 직원들은 전화 벨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투자자는 연결 안되는 전화에 분통 터트리고 있다고. 증권사 직원들은 급락장 속에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 한 증권사 직원은 호황일 때야 전화벨이 신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옆에 아홉은 항의성 전화여서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빠진다고 토로.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선 주가 하락에 전화 연결마저 잘 안되고 있어 속상함에 분노까지 겹치고 있다고. 실제 한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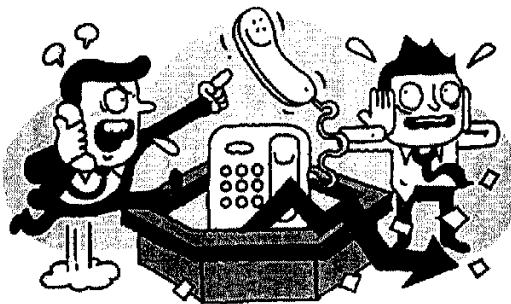
자자는 5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한명도 전화를 받지 않아 분통을 터트렸다는 후문.

○...증시 폭락과 환율 급등 등 국내 금융시장이 심각한 대혼란에 빠진 가운데 증권가에는 동료의 평소 행동과 심리적 상태에 대해 서로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특명이 내려졌다고.

증시 하락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해 불면증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늘면서 혹시나 있을 돌발(?) 행동을 막자는 취지에서라고.

특히 최근 들어 금융권 종사자들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동요하는 직원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 증권사 내부에서는 주변 동료가 근무에 집중을 못하고 자주 멍하니 있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경우, 해당 직원을 항상 주시할 것을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는 실정.

또한 이러한 직원들이 특별한 응무없이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운다든지 혹은, 바람을 쐬겠다며 욕상을 올라간 다든지 할 때는 다른 직원들을 동반시킬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폭락장에서 증권가 사람들의 신경은 어느 때보다



잇단 투자자 항의전화에 민감한 반응
금융권 동료 직원 '우울증 감시' 특명
증시불안에 K-아틀라스 진출 안갯속

바짝 곤두선 상태라고.

○...황건호 증권업협회 회장이 지난 29일 대신증권에서 적립식 장기투자펀드 계획을 개설했던 것은 대신증권이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대형객장을 보유해 홍보 사진 촬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사이버매매가 대중화되면서 여의도 일대 대부분 증권사는 객장을 철수하거나 면적을 줄여, 대신증권도 유지비용 절감차원에서 여의도 객장을 줄이거나 없애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들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어 객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후문.

실제 증권 관련 뉴스에 나오는 객장 사진이나 화면은 대부분이 대신증권 여의도 객장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한편 황 회장은 이날 증시 부양에 앞장서겠다며 월 100만원씩 적립하는 우량 성장주펀드에 가입. 나머지 직원들도 이날부터 거래희망 증권사를 선정해 펀드계좌를 개설할 예정.

○...한국투자증권 계열 헤지펀드운용사인 K-아틀라스의 국내 진출 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증권가에 따르면 당초 K-아틀라스는 내년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국내에 상륙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할 방침이었으나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으로 진출 시기를 당분간 늦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K-아틀라스는 지난 3월초 한국금융지주가 1억51만달러, 아틀라스캐피탈이 49만달러를 각각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이중 1억달러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K-아틀라스의 대표 운용역(CIO)은 한국계 출신으로 미국 뉴욕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데이비드 전.

〈증권부〉

하나대투증권 김지완 사장 연봉 25% 삭감 '비상경영'

하나대투증권은 30일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임원 연봉을 삭감하고 조직을 통·폐합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하나대투증권의 비상경영 및 경영자구책은 최근 금융위기 여파로 증권업계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증권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나대투증권의 경영 자구책은 최근의 경영위기 돌파를 위해 김지

완 사장의 연봉을 25%를 삭감하는 것을 비롯해 전 임원의 연봉을 15~20% 줄이는 한편 지역본부와 본점 부서를 통·폐합하고 임원 수를 줄이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비용 논란이 많았던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들의 총 연봉도 20%까지 삭감기로 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상품기획본부는 마케팅 본부로, 증권법인영업본부는 법인영업본부로 각각 통합된다.

박혜영 기자 bono@hankyung.com

리먼 관련 '우리CS운용 ELF' 투자자

운용社에 손해배상 청구기로

“발행사 변경 제대로 안알려줘-원금+이자 물어내라”

우리CS자산운용의 리먼브러더스 관련 ELF(주가연계펀드)에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투자자들이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30일 금융감독원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우리2스타파생상품 KW-8'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이 펀드의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원금과 이자 및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이 펀드는 지난해 6월 280억원 규모로 설정된 만기 3년짜리 ELF로 941명의 개인투자자들이 가입돼 있다. 지난 9월16일 기준 -3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발행사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환매가 중지된 상태다.

그러나 우리CS자산운용이 이 펀드 투자자 모집당시 발행사였던 BNP파리바를 상품 운용에 들어가

면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한 사실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배상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펀드 가입자들은 “가입계약서에는 발행사가 BNP파리바였던 만큼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우리CS자산운용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물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측 관계자는 “지금까지 170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며 “이번주까지 위임장을 받은 후 내주 중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피해자 측의 민원을 접수한 결과 운용사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배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내달 4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BNP파리바가 이 상품을 운용했더라도 현재 수

우리2스타파생상품KW-8 상품개요

설정일	2007년 6월22일
설정액	280억원
가입자수	941명
기초자산	한국전력 우리금융 주가
	기준주가 대비 10%(6,12개월),
조기상환	15%(18,24개월), 20%(30개월,
조건	만기)초과 하락하지 않으면 연
	12%수익금 지급
기준가	659.48(9월16일 현재) <설정일
	1000 기준>
투자기간	만기 3년(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

익률이 -6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들어 원금의 35% 수준을 배상하는 조정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CS자산운용은 “자산운용사 입장에서 주주들과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손해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어렵다”며 “분쟁조정위 조정안을 적극 검토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결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원/김재후 기자 twkim@hankyung.com

증권사 C&그룹에 투자 안했다

금감원 “자산운용사도 회사채 보유 등 없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워크아웃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C&그룹에 투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C&그룹 계열사에 대한 투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국내 증권사들과 자산운용사 가운데 고유계정이나 펀드를 통해 이 그룹에 투자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경우 자기자본직접투자(PI)나 프로젝트파인낸싱(PF) 형태로도 투자하지 않았고 C&그룹 계열사 주식은 주가연계증권(ELS)의 기초자산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들도 C&그룹 관련 위험 노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들은 운용 중인 펀드들이 대부분 신용등급 BBB 이상 회사

채만 편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등급이 BB 수준인 C&그룹 회사채를 보유할 수 없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자체 조사한 결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C&그룹 관련 주식·회사채 등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C&그룹이 최악의 상황을 맞더라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C&그룹과 관련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던 대신증권 측은 “회사채 발행을 주관했지만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C&그룹에 대해 PI나 PF 투자를 했는지 확인했지만 위험 노출이 없었다”고 말했다.

sdpark@tnnews.com | 박승덕기자

서울경제

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A20면

IBK투자증권 “코스닥 우량주 사자”

“저평가 종목 중심 300억 매수... 中企 자금조달도 적극 참여”

IBK투자증권이 코스닥 저가 우량주 매집에 나섰다.

IBK투자증권은 자기자본투자(Principle Investment)를 통해 코스닥 우량업체의 주식 매수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총투자 규모는 300억원에 달한다.

임기영(사진) IBK투자증권 사장은 “중소기업이 주고객인 IBK기업은행의 계열사로서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코스닥시장의 우량종목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향후에는 코스닥 기업의 신주 발행 등 자금조달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투자종목은 IBK투자증권 내 PI협의회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과 거래량이 받쳐주는 저평가 종목이 우선 고려 대상”이라고 밝혔다.

IBK증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이 과매도 국면에 진입하면서 우량 중소기업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시장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이현정 IBK투자증권 PI협의회 상무는 “시가총액·밸류에이션·거래량 등을 감안해 종목을 선정한 것”이라며 “시가총액

자금조달을 돕고 투자자 신뢰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IBK투자증권이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번 공격적인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IBK투자증권의 이번 PI 결정에 대해 증권선불거래소는 크게 반기고 있다.

증권선불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한 관계자는 “코스닥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이 투자에 나서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수요 발생으로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정수기자 pao@sed.co.kr

유진證券 매각 남는장사 될까?

유진그룹 1800억 매입... 현재 주식가치 1000억

증권업 매력 급감 경영권프리미엄 높지 않을듯

유진투자증권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 마감에 31일로 정해진 가운데 유진그룹이 '남는 장사'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07년 3월 유진그룹이 유진투자증권 지분(24.09%)을 사들이며 지급한 금액은 약 1800억원. 1년반이 지난 지금 유진투자증권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전반적인 시각은 부정적이다. 인수희망서 제출을 검토 중인 한 사모투자회사 관계자는 "유진그룹이 인수한 가격보다 유진투자증권의 매각금액이 얼마나 디스카운트될지가 관전포인트"라고 말했다.

지난 1분기(4월1일~6월30일) 분기보고서상 유진투자증권의 순자산규모는 6455억원. 여기에 최근 증권업 평균 주가순자산배율(PBR)인 1.1배를 곱하면 총 7100억원이 된다.

여기에 유진기업의 유진투자증권 지분(23.23%·1억3325만주)을 전량 인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단순 매각가는 1650억~1700억원가량 된다.

매각이 공식화된 9월초 2500억~3000억원을 호가하던 데 비하면 확연히 떨어진 수치다. 1.5배 정도던 증권업 평균 PBR가 증시 악화로 1.1배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증시악화에 따른 가치하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유진투자증권의 PBR은 0.5~0.6배 수준으로 업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주식가치로 계산할 경우 그 격차는 훨씬 벌어진다. 현재 유진투자증권 주가는 775원(10월28일 종가 기준)으로 한달 전에 비하면 반토막이 난 상태다. 유진기업의 보유 주식수를 곱하면 1000억원을 간신히 넘는다.

따라서 유진그룹이 유진투자증권을 인수했을 때 가격수준을 맞추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많이 없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리버브러더스 파산보호 신청 이후 전세계적 금융시장 악화로 증권업 자체의 매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높은 프리미엄을 부를 처지가 못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내년 자본시장통합법 발효 이후 독자행보를 할 수 있을 만큼 유진투자증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 약점"이라며 "여기에 지난 1분기에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점도 약재"라고 설명했다.

유진투자증권 요약 재무제표 (단위 : 백만원)

	2008년	2007년	2008년 1분기
영업수익	199,360	414,541	138,531
영업이익	26,174	45,794	365
순이익	14,467	30,170	-1,639
현금및예치금	232,452	167,186	277,593
유가증권	397,933	1,201,351	1,253,939
파생상품	0	1,339	1,340
대출채권	65,790	379,040	407,389
유형자산	14,547	20,786	24,680
가타자산	56,377	86,098	297,124
자산총계	767,102	1,855,803	2,262,068
예수부채	210,535	161,525	149,609
차입부채	204,480	995,322	1,234,062
가타부채	25,819	95,672	232,878
부채총계	440,844	1,192,521	1,616,551
자본금	188,561	329,933	329,972
자본총계	326,257	663,281	645,517

하지만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수익구조를 다변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게다가 장외파생상품 면허와 유전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까지 '덱'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메리트다.

최근 유진투자증권은 종합자산관리제와(CMA)와 주가연계증권(ELS) 등 신상품 출시와 함께 PB영업부 신설을 통해 자산관리부문의 영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한신정평가는 수익구조의 다변화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 신용등급을 'A-'로 유지했다.

실제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6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NCR)과 영업용순자본 규모에서 각각 432.9%, 3891억원을 기록했다. 증권사 평균 NCR가 400~500%인 점을 감안하면 무난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현재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차입인수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덜기위해 그를 전반에 걸쳐 자산매각을 단행 중이다. 이미 지난 5월 총 3000억원 규모의 재무개선계획도 내놴다. 최근 메트로PFV, 한국GW물류 등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진그룹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의 매각 연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여정대르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머니투데이 기자 kmmmin@

대우證, 연말까지 거래수수료 추가인하

협회비 면제따라 결정

대우증권은 다음달 3일부터 증권업협회 및 선물협회의 협회비 면제 조치에 따라 거래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수수료 조정은 증권업협회와 선물협회가 내달 3일부터 연말까지 협회비를 면제기로 결정함에 따라 면제 수준만큼을 거래수수료에 한시적으로 적용해 인하하는 것이다.

지난달 22일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따른 거래수수료 인하에 이어 추가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대우증권 주식거래 수수료는 0.000821%포인트(증협 협회비) 인하돼 거래금액에 따라 온라인 거래수수료는 0.

491482~0.071482%에서 0.490661~0.070661%로, 지점 거래수수료는 0.491482~0.391482%+35만원에서 0.490661~0.390661%+35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은행 연계서비스 '다이렉트w e'를 이용한 주식 거래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상관없이 0.00825%에서 0.0075%로 줄어든다.

대우증권은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수료도 협회비 면제혜택을 적용해 지수선물의 경우 0.000137%포인트, 옵션의 경우 0.000684%포인트 한시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마케팅부 송석준 부장은 "지난달 시행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이어 협회비 면제에 따라 추가 수수료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 박승덕기자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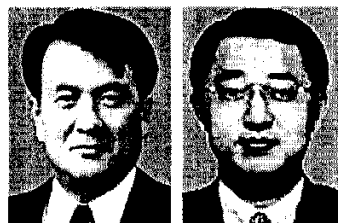
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A27면

한화證 대표 이용호씨

투신운용 대표 김철훈씨

한화그룹이 30일 금융 계열사 일부 사장단 및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한화증권 대표이사에는 대한생명 전략기획실장 이용호 부사장을 선임했으며, 한화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에는 한화증권 IB영업본부장인 김철훈 상무를 내정했다. 이경로 한화투자신용 대표는 전무 승진과 함께 대한생명 자산운용본부장으로 옮기게 됐다.

신임 이용호 대표(54)는 경기고와



이용호 대표

김철훈 대표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한 뒤 한화그룹 비서실 구조조정 팀장을 역임했다. 김철훈 신임대표(49)는 명지고와 고려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한 뒤 그룹 경영기획실을 거쳐왔다. 이정호/조재희 기자 joyjay@hankyung.com

“임금 깎아서라도 고통분담”

예탁원·거래소 임원 삭감 결정

증시가 침체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 유관 기관들이 임금 삭감에 나섰다.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솔선수범해 호주머니를 털기로 한 것이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최근 금융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원 임금 3분의 1을 삭감하기로 했다. 전무 및 상무의 올해 11월과 12월 기본급 삭감액은 반납하고 내년부터 삭감된 기본급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예탁결제원은 사장과 감사 경영계약시 전년대비 35% 임금을 삭감한 바 있다.

탐장급(부사장) 등 상위직급도 개인별 임금 5.1%를 반납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어 예탁결제원은 이번 임금 삭감 조치로 지난해 대비 1인당 인건비가 4~5%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도 어려운 증시 상황과 관련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우선 이사장, 상임 감사위원 등 상근 등기임원의 연봉을 20% 줄이기로 했다. 집행 간

부 임금도 10%씩 깎았다.

거래소는 부서장급 직원들의 경우 임금 반납을 자진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연 11억원)은 전액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코스콤도 김광현 사장 등을 필두로 임금 삭감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추진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 발족을 위한 협회 통합작업을 준비 중인 기관들은 임금 삭감에 대해 반응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 증권협회는 임금 삭감 관련, “곧 통합할 예정이라 당분간은 임금 삭감 등의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통합 이후 임금 동결이나 임원 임금 삭감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동참하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것.

자산운용협회도 현재로서는 임금삭감 등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통합작업에 바빠서 임금 삭감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며 “전체 직원 수가 40여명에 불과하고 급여수준도 여의도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 더 깎을 것도 없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signi@

증권기관 공동펀드 내달초 증시투입

총 출연금액 4000억... 주식 70%·채권 30% 운용

증권 유관기관들의 공동펀드 자금 집행이 이르면 다음달 초순부터 시작된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 한국증권협회, 자산운용협회, 증권예탁원 등 증권 유관기관들은 다음달 중 1차로 공동펀드 자금을 집행하기로 하고 현재 금융 당국과 마무리 조율을 하고 있다.

총 출연금액은 지난 2003년 조성했던 4000억원 이상이다. 유관기관별로 보면 증권업협회는 1000억원 내외로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와 예탁원, 자산운용협회도 출연금을 최대화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현재 출연 가능한 자금을 자체 검

토 중이다.

지난 2003년에 조성됐던 공동펀드에는 증권선물거래소 2217억원, 예탁원 1241억원, 증권업협회 632억원 등을 각각 출자한 바 있다.

공동 펀드 운영 방법은 2003년도 방식을 따르기로 했다. 2003년의 경우 4000억원의 자금 관리를 위해 증권기관공동투자펀드를 구성한 후 8개 투신운용사를 선정, 자금 집행을 했다. 자금은 주식비중 70%, 채권 비중 30%에 달하는 주식형펀드로 운용됐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각 기관별 금액을 얼마나 출연할지와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는데 최근 급락하

고 있는 증시 안정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집행하기로 했다”며 “2003년도의 경우 유관기관 펀드 조성에서 집행까지 3개월정도 소요됐지만 이번에는 1개월 내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주말 각 기관별 출연 금액이 확정될 것”이라며 “금액이 확정되면 바로 공동 펀드 운용사를 선정해 다음달 초순 증시에 투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도 “현재 금융위와 유관기관 TFT를 중심으로 공동펀드 자금 조성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증시가 최근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자금을 투입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블랙스톤-국민연금 20억달러씩 국내투자

세계적인 투자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그룹이 국내 기업과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20억달러를 투자한다.

국민연금공단은 30일 "블랙스톤그룹과 20억달러씩 출연해 총 40억달러를 국내 시장에 공동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투자 대상은 국내 인수·합병 물건, 기반시설,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분야를 비롯해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하다.

블랙스톤그룹은 세계 주요 연기금과 국부펀드가 투자한 돈을 운용하는

세계적인 대체투자전문회사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1200억달러를 운용하고 있다. 스티브 슈왈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은 "세계적 기업과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 관심이 많다"며 "국민연금과 전략적 제휴를 한 것은 블랙스톤그룹 내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대체투자 전문운용사인 오크트리(30억달러), 사모펀드운용사인 MBK파트너스(2

0억달러) 등과 국내 시장에 공동 투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로써 국민연금공단은 이달 들어서만 외국자본 70억달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확대한 국민연금공단 해외투자실장은 "양측 간 이해관계를 꼼꼼히 따져가며 한 달 만에 세계적인 운용사 3곳과 공동투자 협약을 맺었다"며 "이번 외자유치로 국내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계만 기자

경제

하이닉스 순손실 1조 6700억

반도체 공급과잉 직격탄

하이닉스반도체(하이닉스)가 경기 침체와 반도체 공급 과잉의 직격탄을 맞았다.

하이닉스는 30일 올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연결 기준 매출 1조8390억원, 영업손실 46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지난 분기 대비 1% 줄었고, 영업 손실은 지난 분기(1720억원)보다 약 3000억원 늘었다. 3분기 순손실은 지난 분기(7110억원)보다 약 9000억원이 늘어난 1조 6700억원을 기록했다.

하이닉스의 실적 악화는 작년부터 세계 시장에 불붙은 업체들의 공급 확대 전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

램·낸드플래시 3분기 판매 가격은 지난 분기 대비 각각 11%, 23% 떨어졌다. 이에 따라 판매량에는 별 변화가 없어도 마진이 대폭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업체는 공급 과잉과 최근 경기 침체가 맞물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 게다가 이런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하이닉스는 최근 공장 폐쇄를 감행했는데, 그 결과 순손실이 대폭 늘었다.

공장이 폐쇄되면 자산 금액이 손실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올해 하이닉스는 미국 유진 공장, 이천 M7·청주 M9 생산 공장을 잇달아 가동 중단해 장부상의 손실(유형자산 감액 손실)이 3700억원 발생했다.

백승재 기자 whitesj@chosun.com

조성일

악재 한번에 날린 '스와프 홈런' ... 증시 회복 기대감 번져



강인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 과학청사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어 마켓(Bear Market) 랠리’에 시동이 걸린다.

증권시장에서 곰(베어)은 악재장을 뜻한다. 길게 보면 악재지만 그 와중에도 주가가 급등할 때가 있다. 최악의 상황에서 터진 ‘홈런 한 방’으로 일거에 단기 악재가 해소될 때다.

30일 새벽 전해진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도 악재 ‘삼형제’를 한꺼번에 날렸다. 달러 기근이 풀리게 됐고, 원·달러 환율을 급락세로 돌려놓았으며, 한국 채권의 부도 위험을 확 낮췄다. 대외 여건도 나쁘지 않다. 세계 각국이 경기 침체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어 마켓 랠리는 어디까지나 악재장 속의 일시적 반등일 뿐이란 지적도 있다. 메리츠증권 윤세욱 리서치센터장은 “급박한 고비는 넘기겠지만 증시에는 불황과 기업실적 악화가 더 큰 악재”라며 “선부른 단타 매매는 손실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베어 마켓 랠리 가능성=30일 증시는 1997

년 크리스마스 직후와 닮은 구석이 많다. 12월 초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약속에도 주가는 연일 급락했다. 외환보유액은 바닥을 드러내는데 IMF 지원은 늦어졌기 때문이다. 97년 2월부터 12월 2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51.4% 떨어졌다. 그러나 그해 크리스마스에 IMF와 선진 13개국이 100억 달러 조기 지원을 발표하자 이

◆경기 침체가 관건=외환위기 당시 베어 마켓 랠리 후 주가를 끌어내린 건 실물경기 침체였다. 초고금리 정책에 대기업·시중은행 부도로 실업률이 치솟고 투자·소비가 얼어붙었다. 그 여파로 코스피지수는 다시 51.2% 급락했다.

이번에도 은행·기업의 부실 가능성과 실물경기 침체 우려가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29일

진행어도 수출에서 경기 회복의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지금은 선진국 경기가 더 부진하다. 이 때문에 외환위기 때 경기 사이클이 짧고 깊은 ‘V자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얇고 긴 ‘U자’나 ‘L자’ 모양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국인 매수세는=주가가 급등하자 외국인 이 그동안 ‘공매도(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한 주식을 갚기 위해 되사기 시작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 희박해진 데다 주가와 원화가 함께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도 외국인 매도 공세를 누그러뜨릴 호재다.

그러나 외국인 매수가 크게 늘 것으로 보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헤지펀드의 청산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이승재 연구원은 “금융위기 와중에 손실을 낸 헤지펀드에 투자자의 청산 요구가 봇물을 이루자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가는 편도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98년 3748억 달러였던 전 세계 헤지펀드 자산이 올 2분기 1조9314억 달러로 급증했다”며 “성장 속도가 빨랐던 만큼 청산 물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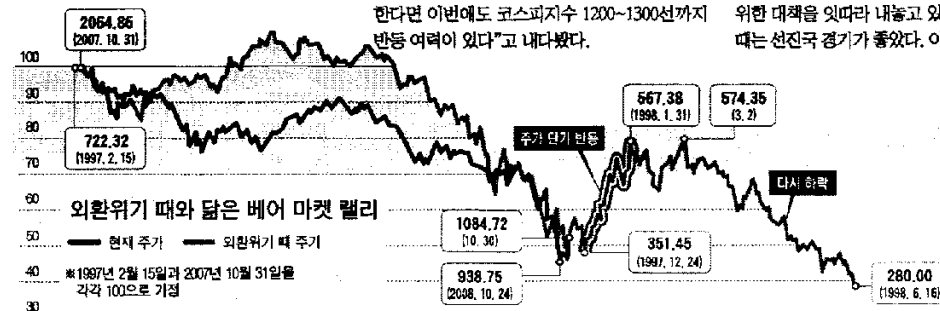
정경민·김선하 기자 kmo0@joongang.co.kr

외환위기 때와 ‘닭은꼴’ ... 1200~1300선 반등 여력 실물경기 침체가 변수 ... “선부른 단타 매매는 위험”

튄날부터 주가는 폭등해 이듬해 1월 31일까지 61.5% 반등했다. 올해 증시 흐름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다.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주가는 계속 미끄러져 29일까지 지난해 고점 대비 53.1% 하락했다가 30일 한·미 통화스와프 소식에 12% 가까이 반등했다. 유진투자증권 박석현 책임연구원은 “외환위기 당시 베어 마켓 랠리를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코스피지수 1200~1300선까지 반등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C&그룹 위르아웃셀에 지수가 157포인트나 널뛰기한 게 단적인 예다.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센터장은 “간헐적이고 자축은행 부실이 증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외환위기 학습효과 때문에 작은 악재에도 투자심리가 얼어붙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건설사 부실은 외환위기 때보다는 훨씬 작다. 게다가 정부가 건설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반면 외환위기 때는 선진국 경기가 좋았다. 이 때문에 내수는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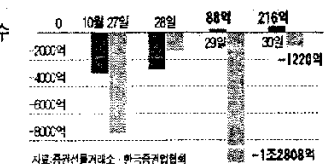
외국인 순매수

(단위: 원)

주식(거래소)

채권

자료: 증권선물거래소, 한국증권협회



'달러 우산' 편입... 막연한 불안감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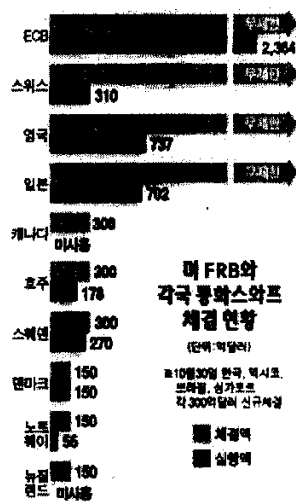
금리는 하루짜리 대출금리+α ... 3% 안팎 될듯

우리나라와 미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은행들은 태평양을 단숨에 넘어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를 갖게 됐다. 달러를 직접 찍어내는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가 불안한 한국의 외환시장에 주한미군처럼 자리하면서 투자자들의 막연한 불안감은 상당 부분 자취를 감출 것으로 전망된다.

○FRB 300억달러 어떻게 사용하나
=한국은행은 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를 국내 외국환은행에 스와프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하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매주 화요일 한은은 스와프 경쟁입찰로 국내 은행에 직접 달러를 풀고 있다. 달러가 필요한 은행이 입찰에 참여해 금리 동 입찰조건을 제시하면 한은이 가장 유리한 조건을 내건 은행에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받는 방식이다.

한은은 경쟁입찰에 이를 앞서 미국 측에 입찰 규모를 통보하고 입찰이 끝나면 실제 낙찰금액만큼 달러를 가져오게 된다. 이후 국내 은행들이 달러를 상환하면 이를 FRB에 입금해 한도를 채워놓으면 된다. 오는 11월부터 스와프 입찰에 FRB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며 입찰금 횟수에 제한은 없다.

미국은 스와프 거래로 최소한 초단기 금리 수익을 확보하며 달러를 공급하게 되고 한은은 FRB의 자금을 국내 은행에 공급하는 중계 역할을



하는 것이어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통화스와프 거래로 달러를 빌려오는 데 지불하는 금리는 하루짜리 달러 대출금리인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OIS)'에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현재 3개월물 OIS는 0.8% 선인데 최근 FRB가 산업은행의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주면서 내건 금리조건이 OIS에 2.0%포인트를 더한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통화스와프 금리도 3%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외화자금 시장에 따라 한은의 금리차익이 줄게 되면 FRB의 가산금리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안정한 한은 국제국장은 "산업은행이 아닌 중앙은행 간 거래여서 금리 재평가에 목적보다

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말했다.

○미 달러 우산 편입에 외환보유액 운용 여유=외환보유액 운용에도 한은은 한층 여유를 갖게 됐다. 우선 300억달러라는 규모 자체가 적지 않다. 300억달러는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직접 지원한 금액(210억달러)보다 큰 것이다. 정부가 이미 스와프 입찰을 통해 공급 중인 300억달러를 포함해 모두 600억달러가 외환시장에 투입되면 시장의 필요자금을 충족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외환보유액의 지속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면서 시장 전반을 진정시켰던 막연한 불안감을 퇴치하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은이 대규모 달러 현금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외환당국은 9월 말 현재 2,397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지만 이중 90% 이상이 해외 증권 등 있어서 환율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할 때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 한은이 현금 300억달러를 확보하면서 이런 문제가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군사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체제에서 보호 받듯 경제적으로 발권력을 가진 미국의 달러 우산체제에 확고히 편입됐음이 확인돼 투자심리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姜재정 기사회생?

MB "姜 장관이 잘한것 같다" 신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숨을 돌렸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제기돼 사면초가 신세였던 강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전방위적인 경제수장 교체여론 속에서도 끝까지 방패막 역할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은 "姜 장관이 잘한 것 같다"며 자신의 판단에 신뢰를 나타내 강 장관은 연말까지 유임이 확실해 보인다.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이 발표된 후 30일 아침 강 장관은 오랜만에 한한 얼굴로 재정부 기지사를 찾았다. 강 장관은 30분가량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시종 여유가 넘쳤다. 재정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姜 장관이 지난 IMF·세계은행 총회 기간 특별연설에서 '통화스와프 라인의 신용시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데 실현됐다"며 강 장관을 치켜세웠다. 강 장관이나 재정부 모두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라는 대형 호재를 지렛대로 삼아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비판에 화답을 바꿨다는 태도가 역력했다.

청와대도 강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후원자로 다시 한번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姜 장관이 미국에 가서 미국 재무부 장관, 미 연방 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얘기를 잘한 것 같다"며 강 장관의 공을 평가했다. 강 장관은 한미 재계회의 환영 리셉션 연설에서 "괴로운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있다(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며 금융위기 극복에 자신감을 보였다. /손철기자 runiron@sed.co.kr

고비 넘겼지만... '글로벌 R의 공포'는 여전

(경기침체)

■ '달러 부족' 먹구름 걷히자 환율

"폭풍이 몰아치는데 우리나라만 우산 하나 더 받아온 것과 비슷하다." 3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폭풍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닌 만큼 들뜬 일만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달러 유동성 수혈은 대형 호제임에 분명하다. 외환·중시 등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이 기대되고 소비심리 개선, 금융기관들의 외화유동성 개선, 기업들의 자금경색 완화 등으로 실물경제에도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계도 명확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글로벌 R(Recession·경기침체)'의 태풍이 내년부터 수출·내수·투자 등 우리 실물경제를 본격 강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글로벌 신용경색이 여전에 기업 유동성 위기 등이 불거지면 또 한번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폭풍이 몰아 치는데 우산 하나 더 받아온 것과 비슷"

글로벌 경기침체 본격화면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 커

◇ 일단 국내 금융시장에 대비=30일 한국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외환명령금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4.7%로 하루 사이에 1%포인트나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은행이나 기업의 외화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얘기다. 금융시장의 최대 난제였던 외화 유동성 경색이 풀릴 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유경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여러 불안실리로 달러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달러 유동성 부족은 물론 원화 유동성 부족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환·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이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이번 협정 체결 자체만으로 금융불안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증시에도 호재"라고 말했다.

◇ 금리인하 등 정책운용에도 숨통=정부로서는 '달러 고갈'이 다소 해소되면서 경기부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

다. 최근 유가 하락에 환율 안정까지 기대되면서 물가 상승 압박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로서는 물가와 경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했던 부담을 덜고 재정 확대, 건설 경기 부양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금리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경기 방어에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의 유출을 우려해 금리인하를 주저해왔다. 이성태 한은 총재도 이날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로 통화정책도 길게 보고 여유 있게 운영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기대된다"고 말해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했다. 실물 부문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 불안→소비심리 위축 및 기업 유동성 위기→금융 불안'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키코(KIKO) 피해 기업의 환차손을 줄여주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글로벌 R의 공포는 여전=하지만 낙관도 이르다. 달러 발권력을 지닌 미국 경제 자체가 불안한데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아직 본격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30일(현지시간) 발표된 예정인 3·4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점쳐지는 등 심각한 후퇴 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다.

대외 여건에 민감한 우리로서는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다. 특히 소비·건설·실비투자 등 3대 내수지표가 일제히 약화된 가운데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게 우려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9월1~20일 집계) 수출은 377억5,000만달러, 수입은 396억5,000만달러로 18억9,000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무역수지 누적 적자는 142억달러에 이른다.

더구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전세대로 확산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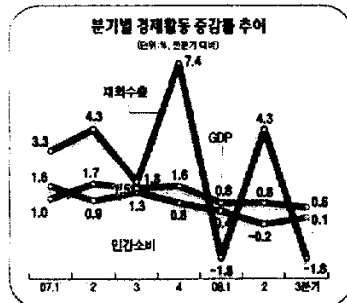


오랜만에 김민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얼굴이 마소가 번졌다. 강 장관이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미국 간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웃을 땀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면서 중국·아세안 국가의 수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된 게 부정적인 요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수출 증가율은 한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 시중 유동성이 개선되더라도 내수침체와 맞물려 중소기업·가계 파산 가능성 등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초체력이 약해지면 조그만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환시장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야 증시는 기업 유동성 문제와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돼야 근본적인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경상수지의 경우 10월에 10억달러 이상의 흑자가 예상되는 등 점차 개선될 것으로 한은은 전망했다. 하지만 수출업체들이 과거 선물한 매도 등으로 미리 달러화를 팔아놓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환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올들어 9월 말까지 무역수지가 142억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수출기업의 선물환 순매도 규모는 661억달러에 달해 대조를 보였 다. 주식시장도 C&G그룹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 가능성 등 기업 유동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세이프가드 확보··IMF 돈은 안쓰겠다”

강만수 재정장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달러화 스와프 창구 개설을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IMF 통화스와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의 IMF에 대한 정서를 고려해서다. 한·미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으로 이제 최악

의 상황에도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세이프 가드(보호 수단)를 확보했다. 한·중, 한·일 간에도 스와프 한도를 늘리는 협상을 진행중인데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중국 일본과의 협상은 어떻게.

“한·미 간의 계약 체결이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다. 한·중 간 현재 통화스와프 협약 규모는 전액 원·위안화 간 거래로 40억달러 수준이다. 꼭 달러화가 아니라도

우리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면 위안화도 기축통화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중국을 설득하는 중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가 붙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일 간에는 130억달러 규모(100억달러 원·엔 스와프 포함)를 하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 협력을 위해 더 늘려잡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차기현 기자 khche@hankyung.com

“외화 부족하진 않지만 만일 대비한것”

이성태 한은총재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의 통화스와프 체결로 “통화정책을 길게 보고 여유 있게 운용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 체결로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는데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외환보유액이 많은데 실제 스와프를 사용해야 하나.

“미 연준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강조한 것이 싱가포르나 브라질, 우리 모두 외환보유액이 부족해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가 미국이고 전 세계에 나갔던 달러가 미국으로 환수되는 상황이나 중양은행이 달러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환보유액이 모자라서 통화스

와프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제2, 제3선을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다.”

—언제부터 미 연준 달러를 투입하나.

“지금 우리 외환보유액으로 은행들에 달러를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3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외화 자금을 가져오더라도 같은 방식으로 운용한다. 따라서 그 돈, 이 돈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IMF, 개도국 단기자금 지원창구 개설

한국 최대 220억弗 9개월 사용 가능

국제통화기금(IMF)은 29일(현지시간) 집행이사회를 열고 개발도상국용 단기 달러자금 지원창구(SLF-Short-Term Liquidity Facility) 개설을 승인했다. 이로써 경제기초체력은 튼튼하지만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달러가 부족한 개도국들이 저리에 IMF의 자금을 갖다

쓸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IMF 회원국들은 △12개월 동안 분담금의 최대 500% 범위에서 △3개월 내 상환 조건으로 △최대 세 번까지 달러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달러 통화스와프 개념과는 다르다. 스와프는 회원국이 자국통화를

IMF에 맡기고 달러를 받아가는 방식이다.

한국은 IMF 분담금이 약 44억달러여서 비상시 최대 220억달러를 최대 9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IMF에 파견돼 일하고 있는 윤종원 기획재정부 국장은 이와 관련, “분담금까지는 무이자이지만 분담금을 100%, 200% 등 초과해서 빌릴 때는 리보(런던은행 간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의 이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성현=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한·미 동맹 회복이 준 4번째 선물”

靑, G20 참여 등 부시대통령 한국 각별히 챙겨

청와대는 30일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관련, ‘긴밀한 한·미 공조가 낳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자체는 양국의 경제 당국자 간 긴밀한 협의의 결과이지만 그 밑바탕에는 새 정부 들어 공을 들인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깔려 있다는 얘기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결과는 긴밀한 한·미 공조 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더라면 성사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만큼 정상 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화스와프 계약은 한·미가 불편한 관계였다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에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멕시코, 호주, 싱가포르 등 총 4곳이며 모두 전략적으로 미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라면서 “이들은 각각의 지역에서 미국의 거점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통화스와프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네 번째 선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과 미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원상 회복, 11월15일 워싱턴에서 열릴 국제금융정상회의

(G20)의 한국 참여에 이은 것이란 얘기다.

특히 G20의 한국 참여는 부시 대통령이 신경을 써 준 결과라고 강조했다. 당초 G20에는 서방선진 7개국(G7)과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각 대륙 대표 등이 들어가게 돼 있었다. 아시아에선 중국 일본 인도가 참여하게 돼 있어 한국까지 포함되면 4개국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 측 일부에서 반대가 거셌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신흥국 대표로 참여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부장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 외환위기의 성공적 극복 경험들이 다른 신흥국에 표본이 될 것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관계는 지난 4월 1차 한·미 정상회담 때 ‘전통적 우호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전략적 동맹관계는 한·미 동맹의 범위를 기존 군사 분야뿐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 문화 등 양자 간 전반적인 관계로 확대 심화하는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것을 뜻한다. 미국의 쇠고기 추가 협상 수용, BGN의 독도 영유권 원상회복 등도 한·미 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작동 결과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 韓·美 '통화 스와프' 이후... 전문가 5인의 한국경제 긴급진단

"부동산 침체, 금융권 부실, 내수 둔화... 넘을 고비 아직 많다"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한국 경제는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swap·상호 교환) 협정 체결이라는 호재를 만나 한 고비를 넘겼다.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파이프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금융시장과 투자자를 공황 상태로 빠뜨렸던 '국가 부도설' 제2의 IMF 외환위기설 등으로부터 일단 벗어나게 됐다.

원화 유동성 문제까지 해결된 건 아니다. 조윤제 서강대 교수는 "국내 신용 경색을 신속하게 푸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래야만 대출금리 부담으로 가계나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는 상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하, 재정 팽창정책을 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덕수 전 총리도 "우리나라 재정이 비교적 건전

시스템에 마비를 초래할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가 예금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미리 차단하는 사전 대응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③기업 부도 및 감원 사태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대기업은 상당히 건실한데,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내수 침체로 폐업이나 전업 등의 구조조정이 상당히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 하반기

전직 관료 및 학자들의 경제상황 진단과 제언



한덕수 전 총리



현정택 KDI원장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한·미 통화스와프 금융위기는 끝났나?	불안은 다소 해소됐지만 글로벌 위기 지속으로 안심하기는 이르다	심리적 안정에 도움. 국내외 불안 요인은 아직 남아있다	재정 및 통화 정책에 한걸 더 유가 생겼다	서거적 정책 공조로 더 이상의 붕괴는 없다는 안도감 있어졌다	외환사정이 상당히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속 주시해야
앞으로 한국 경제에서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남북 관계 혹은 북한에서의 developments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일부 건설사 및 저축은행 부도 -급격한 내수 침체	-은행의 신용 경색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제2 금융권 유동성 악화 -내년부터 기업들의 감원 본격화	선진국 소비 둔화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	-부동산 PF 부실로 인한 일부 저축은행의 유동성 악화 -영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내수 위축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한국은행이 유동성 넉넉히 공급 -전시장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기업들이 생산성 높이며 체력 비축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에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시장 금리 인하 유도 -실업자를 위한 고용서비스 확대, 사회복지부문의 일자리 확대	-정부,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 수집 강화 -한·미 FTA, 한·EU FTA를 신속히 추진해 돌파구 마련	-국회가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집중해야 -수도권 규제 완화, 감세 등을 과감히 시행

"외화 불안 해소됐지만, 원화 유동성 문제는 여전히 선제적으로 금리 내리고 재정 팽창 정책 펴야... 한·미 FTA 조기 성사시키면 수출 돌파구 될 것"

하지만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부터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동산 산시장 침체, 건설업체 부도 위기, 금융권 부실, 내수 침체, 수출 둔화 같은 실물경제의 고비가 겹쳐가 가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현정택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조윤제 서강대 교수,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5명의 전직 경제 관료 및 경제학자들을 불러 앞으로 한국 경제가 맞을 수 있는 위기와 대응 방안을 들었다.

①원화 유동성 위기

외화 유동성 불안은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는

하고 금리도 추가 인하의 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이 사전에 파악하고 충분히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조만간 터질 수 있는 '뇌관'으로 전문가들이 지적한 불안 요소가 PF 방식의 부동산 대출이다. 최근 지방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다. 현정택 KDI 원장은 "우리는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이 낮아 미국 같은 강도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질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부실한 건설사나 저축은행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금융

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면 대기업들도 감원 등 구조조정을 단행할 전망이다. 조윤제 교수는 "적극적인 재정 팽창정책으로 경기를 살리고, 특히 사회 복지 부문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복지 부문의 일자리를 정부가 앞장서서 창출하는 것이 실업자 구제에도 도움되고, 사회 복지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제안이다.

④수출 둔화

주요 선진국들이 동시에 경기 침체를 맞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무엇보다 수출 둔화가 큰 걱정이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

학원장은 "글로벌 금융 질서뿐 아니라 WTO(세계무역기구)로 상징되는 다자간 무역체제도 리더십 없이 실패할 위험에 처한 상태"라면서 "이 바람에 지역주의가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처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무역 분쟁에 휘말릴 소지도 많아지고, 그만큼 무역 환경이 나빠진다. 박 원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조기에 성사시킨다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고, 막바지 단계에 들어간 한·EU(유럽연합) FTA 협상부터 빨리 매듭지으면 한·미 FTA 성사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⑤성장 잠재력 약화

기업들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 정부 역

시 경제 전체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기로 삼아야만 경제 회복기에 도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구현 소장은 "우선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현정택 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융 불안에 쫓겨 빠져나간 걸 체렷했다"면서 "정부가 대

폭 규제를 풀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때문에 세계화에서 후퇴해서는 안 된다"면서 "세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경희 기자 hkang@chosun.com

정철환 기자 plomat@chosun.com

“환율 1000원대 초반까지 빠르게 하락”

이제 실물경기 살리는데 정책초점 맞춰야

“외환시장에서 필요했던 건 환율을 하락세로 돌리는 방아쇠였다. 오늘 드디어 그 방아쇠가 당겨졌다.”

시중 은행의 한 외환달러는 30일 외환시장이 열리기 직전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새벽 전해진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 간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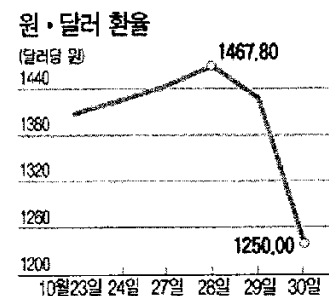
화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이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 환율을 하락세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에 배당하는 심리는 이제 사라진 것 같다”며 당분간 환율이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

제실장은 “환율이 올라가는 속도가 빨랐던 만큼 내려가는 속도도 빠를 것”이라며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세와 함께 원·달러 환율이 1000 원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리적인 불안 요소가 제거됐을 뿐 글로벌 신용 경색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순 기업은행 차장은 “예초에 문제가 외



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실물경기 악화를 막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물경기가 계속해서 나빠질 경우에는 경제의 펀더멘털(기초 여건)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금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볼 수 있다”며 “경상수지와 부동산 경기 등 실물 측면의 안정화가 이루어져야 금융 부문의 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스왑 혼풍'에 돛 달 주식은?

여지간한 호재에도 좀처럼 반응하지 않던 증시가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 올랐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체결이 물고 온 파장이 그만큼 컸던 셈이다. 주식 혹은 펀드투자자들에게 이날의 상승장은 크게 고무될만한 일이다. 그러면 개별 종목에는 어떤 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종목	등락률(%)	수혜가 예상되는 이유
대한항공	14.92(상한)	여객수요 및 외화환산이의 증가.
동국제강	14.7(상한)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신서채	14.95(상한)	환율하락이 물가안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 대출액 증가 예상.
신한금융지주	13.79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회복
하나금융지주	14.99(상한)	국내 금융기관 신뢰회복, 키코(KIKO)손실 우려 경감
하나투어	14.77(상한)	여객 수요 증가 예상.
하이닉스	14.73(상한)	영업상 고환율이 유리하나 3.7조원에 달하는 외화부채 부담 경감
한국전력	14.82(상한)	연료 구입비 절감
현대제철	14.87(상한)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현대사	14.7	연고(高)로 여전한 수출경쟁력 있는 데다 환율하락은 생산원가안정에 도움
CJ제일제당	14.94(상한)	원재료 수입가격 하락
KB금융	9.4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도 회복
LG화학	13.64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POSCO	14.85(상한)	수입원가 부담 완화
SK에너지	14.91(상한)	수입원가 부담 완화
S-Oil	11.23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
코스피지수	11.95	

◆신용경색 우려 떨어진 은행주 활짝 가장 우선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그동안 부실위험에 시달려 왔던 은행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지난 1일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국내 4대 은행에 대해 외화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재무건전성 등급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외국 언론들도 줄기차게 국내 은행의 부도위험이 높다는 식의 기사를 내놓으며 국내 은행들을 두들겼다.

국내에서도 일부 은행이 부도설에 시달리는 등 국내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최근 은행채는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에서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지난 27일 한국은행이 올해 만기가 돌아올 은행채 약25조원 중 5조~10조 원어치를 매입해 주기로 했음에도, 발표 직후 떨어지는 듯했던 은행채 금리는 다시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국내 은행들의 가장 취약점으로 잡혔던 외화 유동성 문제가 해결됐고, 은행에 대한 불신도 한 꺼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KB증권 조병문 리서치센터장은 "그동안 국내 은행주의 주가하락은 환율과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 상승 같은 시장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며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환율 위험을 덜어주었기 때문에 은행주에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부실화 우려가 있는 PF 관련 대출에 될 노출돼 있고, 한해지용 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손실 문제로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하나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의 단기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부실위험 덜었다 은행株 환율 하락한다 철강株 여행객 늘다 항공·여행株

◆환율 하락으로 수입가격 떨어지는 업종 수혜 예상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알려진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무려 177원 하락한 달러당 125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번 조치가 환율 안정에 즉효 약이 됐던 것이다. 당분간 환율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동안 환율 급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업체들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주가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장종혁 연구원은 "철강산업은 대부분 원재료를 해외에서



오종현 기자 ojcl979@chosun.com

빨간 전광판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호재로 30일 코스피지수가 사상 최대인 115.75포인트(11.95%) 폭등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의 한 증권사 객장에서 투자자들이 빨간색 상승 화살표로 뒤덮인 증시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동영상** chosun.com

수입하고 있는 데다, 수출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낮아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POSCO와 현대제철 같은 기업이 이번엔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슷한 이유로 원재료 수입 비중이 높은 CJ제일제당, 한국전력 등도 수혜가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신환권 유진 책임연구원은 "CJ제일제당의 경우 연간 수입곡물 구매액이 7억~8억 달러 규모로, 환율 100원 하락 시 환이익이 400억~5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신환권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경우 연간 연료비 구입액이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데다, 현재 외화차입금 규모가 달러화 약 39억 달러, 엔화 약 1600여억 엔 등에 달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달러당 100원 떨어질 경우 세전이이익이 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수요 증대 예상되는 항공·여행주, 현대차는 수출주임에도 수혜 가능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는 동안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은 점점 줄어들었고,

매출액이 감소하는 항공주의 주가는 저공비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조치로 환율이 안정되면 다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증시 전문가들은 항공주와 여행주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동양증권증권 김승현 포트폴리오팀장은 "여행, 항공업은 환율하락이 그대로 수요 확대로 연결된다"며 "업종 대표주인 대한항공과 하나투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출주는 통상 환율이 올라가면 수혜를 입고, 반대로 떨어지면 매출이 줄어들어 실적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의 환경은 이런 공식이 그대로 적용할 수만은 없다는 역(逆)발상 분석도 있다.

NH투자증권 김형렬 연구원은 "원화 강세는 보통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미 엔화와의 격차가 워낙 크고, 원화 강세는 생산원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수혜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재곤** 기자 truman@chosun.com

금융권 외화조달 시장 햇볕드나

우리銀, 보증없이 4500만弗 외채발행 성공
CDS금리도 낮아져 외화 차입 수월해질듯

우리나라와 미국이 30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도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내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과 국회의 지급보증 동의안 처리는 국내 금융권의 달러 기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심리적으로도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에 큰 안정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미 양국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직후 우리나라의 신용위험도를 나타내는 외국환평형기금 5년물에 대한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전날의 5.7%에서 4.7%로 하루 새 1%포인트나 떨어졌다.

CDS는 채권이 부도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 성격의 파생 금융상품을 뜻하는데 이 수수료 격인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이 클수록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27일 6.8%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 직후 하루 새 1%포인트나 떨어지며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크게 개선되면서 외화차입은 수월해질 전망이다

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하나대투증권 공동락 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난제인 외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이날 지급보증안을 처리하면서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 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000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된 점도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는 진단이다.

수출입은행의 외화조달 관계자는 "영국의 은행인 바클레이스가 영국 정부의 보증을 바탕으로 채권발행에 성공한 점에 비춰볼 때 국내 금융권도 외화자금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놴다.

또한 이날 우리은행이 리먼브러

더스 사태 이후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의 지급보증 없이 4500만 달러의 외화채권을 발행하는데 성공한 점도 다른 금융기관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조달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은행의 채권 발행 금리는 리보(Libor)+3.50%포인트 수준이며 만기는 2년이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조달 여건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인 달러 자금의 경색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외화자금 조달 금리만 급격히 낮아지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 국가들에 대한 평가에 인색한 점도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화조달 여건 개선에 또 다른 걸림돌이다.

ck7024@1news.com |홍창기기자

은행, 외채보증 받고 MOU엔 시큰둥

은행마다 형편·악재 달라...정부와 치열한 신경전

은행 외채 지급보증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급보증 카드를 받게 된 은행들은 정작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외화 조달 때 신용 보장이 가능해져 외화유동성 개선에 물꼬를 텄다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정부와 조만간 맺게 될 양해각서(MOU)가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또한 국제은행 간에도 미묘한 입장차가 감지되고 있다.

◆지급보증안 통과됐지만

지급보증안의 국회 통과로 국내 은행들은 정부 지급보증서의 꼬리표를 달아 외화를 빌리는 게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차입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 지급보증을 받는 데가 만만치 않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7일까지 연봉·소득세선 축소, 배당환도 조절, MOU 위반시 수수료 인상과 임원 제재 등을 담은 간간한 MOU를 18개 은행과 체결할 방침이다. 국내 모든 은행이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관리체제에 놓이는 셈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중은행은 정부 지급보증을 안받겠다는 반발 조짐을 보이다가 정부 눈치에 속았지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C 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

은행을 압박하는 악재 원가	
KB  국민은행	카자흐스탄 BCC 투자손실 우려 유동성 확보 위한 지분매각에 난항
우리은행	CDO·CDS 추가 손실 예상 C&그를 등 처리문제
신한은행	리먼 채권투자 및 키코 처리
하나은행	파생상품 계약 손실
kdb 산업은행	민영화 이슈로 외화차입 불이익 KDF 설립 논란
IBK 기업은행	정부 중자로 향후 부실리스크 커져

계은행이 MOU 대상에서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제은행간에도 '동상이몽' 격이다. A국제은행은 정부 지급보증을 받겠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B국제은행은 '자체 신용으로도 차입이 가능한데 굳이 정부보증을 받아 대외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을 줄 필요가 있느냐'면서 다소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급보증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신용보강 차원"이라며 "MOU 때문에 경영진이 불편해진다고 이를 거부하는 건 국내 은행권의 리스크를 키우는 또 다른 형태의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

◆은행권, 여러 악재 시달려

최근 국내은행들을 여러 가지 내·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은행주

주가가 악세를 면치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 지분을 인수한 카자흐스탄의 센터크레딧은행(BCC)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BCC가 카자흐스탄의 경제 불안 확산과 함께 유동성 압박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KB금융지주는 또 ING생명 지분 14.9%와 4조원 상당의 자사주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시장 여건이 좋지 않아 처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왑(CDS) 투자 손실로 또 한번 낭패를 보게 됐다. 3분기에만 2000억~3000억 원대의 손실을 반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와의 경영이행약정(MOU)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졌다.

C&중공업 등 C&그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리은행 주가가 29일 급락하기도 했다. 기업금융 비중이 큰 만큼 향후 거래기업의 부실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시중은행 중 비교적 큰 규모의 키코 계약을 맺고 있어 여러 수습책을 마련 중이다. 만약 키코 거래기업이 넘어갈 경우 적잖은 손실을 떠안는 가능성도 있다. 신한지주는 굿모닝신한증권을 통한 리먼브러더스 채권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게 고민이다.

하나은행은 태산LCD와 맺은 파생상품 계약으로 수천 억원의 손실을 보게 되면서 3분기 실적에 직격탄을 맞았다. 태산LCD로 시작된 각종 투머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정부의 1조원 증자 추진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증자 목적이 중소기업 대출 여력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자칫 중기여신의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민영화 작업과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외화차입 코스트가 상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황인혁·노현 기자**

집중분석/헤지펀드 11월 대거 청산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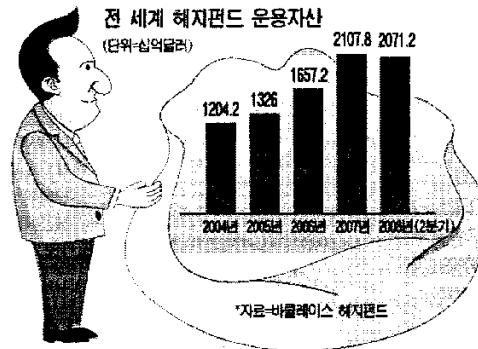
헤지펀드 외국인 물량의 8%뿐 “더 떨어졌다”

미국 금융위기를 예견해 유명세를 탄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에 “신중 시장, 누가 위험한가”라는 글을 올렸다. 여기서 그는 한국이 금융시장 경색으로 헤지펀드 공격을 받기 쉬운 나라 가운데 한 곳이 됐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11월 헤지펀드들이 결산에 들어가면서 실적이 나쁜 펀드들은 대거 청산에 들어갈 것이라ں 소문이 돌고 있다. 세계 헤지펀드의 대명사 ‘퀀텀펀드’를 운용했던 조지 소로스는 “헤지펀드 가운데 75%가 청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무차별 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과 원화값 하락을 낳는다. 과연 그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열려는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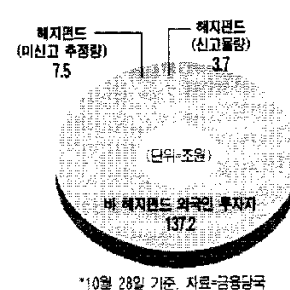
◆헤지펀드들 내부 사정은?

조지 소로스는 “다수의 헤지펀드들이 자금부족으로 문을 닫는 상황”이라고 했다. 헤지펀드들이 돈이 없어 주식 채권 등을 마구 팔고 있다는 것이다.

돈을 구하는 이유는 이렇다. 먼저 헤지펀드에 돈을 빌려준 쪽에서 회수를 원하고 있다. 헤지펀드들은 투자자 돈을 담보로 증권사(프라임 브로커)에서 돈을 빌려 투자한다. 프라임 브로커의 대표주자는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최근 자금부족을 겪고 있는 곳이다. 한 외국계 금융회사 대표는 “내년 6월까지 1800억달러가량의 자금을 헤지펀드들이 갚아야 할 수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헤지펀드는 얼마나 되나(추정)



투자자 환매로 상당수 청산...현재 한국주식 11兆 보유

도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헤지펀드들은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헤지펀드들은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서 작은 수익을 크게 부풀린다. 하지만 차입금을 쓰기 어렵게 되니 수지가 맞지 않아 청산하는 곳이 속출하는 것이다. 투자자들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헤지펀드에서 돈을 빼고 있다. 헤지펀드리서치(HFR)에 따르면 3분기 글로벌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310억달러가 환매됐다.

◆한국 헤지펀드 노출은 얼마나

그렇다면 헤지펀드들은 한국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매일경제가 입수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헤지펀드로 등록하고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주체는 926개(9월 말 기준)다. 자진신고분만 포함돼 있

어 실재론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갖고 있는 한국 주식금액은 모두 3조7421억원(10월 28일 기준).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총액은 이날 기준 모두 148조4773억원이다. 따라서 전체 외국인 보유주식의 2.5%에 불과한 금액을 헤지펀드들이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부가 아니다. 10여 년간 헤지펀드의 운용을 맡아온 미국 델타자산운용의 로버트 재거 수석전략가는 “헤지펀드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프라임 브로커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헤지펀드들이 메릴린치증권권을 프라임 브로커로 쓰게 되면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메릴린치 계좌로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진

신고한 헤지펀드 물량의 적어도 2배가량 ‘숨겨진 계좌’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추정해도 헤지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약 11조원(외국인 보유물량의 8%)에 불과하다.

◆헤지펀드 매도 얼마나 남았나

헤지펀드들은 분명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27일 헤지펀드들은 모두 307억여원을 처분 순매도했다. 이날 외국인들은 모두 3186억여원을 매도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물량까지 포함하면 헤지펀드가 매도한 금액은 전체 순매도의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8일은 정도가 심해졌다. 외국인이 이날 한국 주식 시장에서 3158억여원을 팔았는데 헤지펀드는 495억원(16%)에

치를 매도했다.

그렇다면 헤지펀드들은 얼마나 더 한국 주식을 팔까. 일단 희망적인 견해가 많다. 헤지펀드는 일반 주식형펀드와 달리 환매를 하려면 2~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 한다. 헤지펀드들은 대부분 연말 결산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환매하기 때문에 그 전에 자산을 대거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 11월이 목전에 다가온 지금은 환매가 거의 일단락된 시점이라는 것이다. 안 로이스 JP모건 글로벌자산배분 헤드는 “이미 환매를 위한 자금 확보가 상당수 진행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달리 외환시장은 헤지펀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싱가포르 소재 한 헤지펀드 관계자는 “재정부가 외환제 발행을 위해 뉴욕을 방문했을 때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원화값 하락에 베풀해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금은 그런 거래가 뜸해진 것 같지만 한국이 원유 수입을 해 오는 날이나 특정한 이벤트에 원화 하락에 베풀하는 투기적 거래가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이 헤지펀드: 1964년 ‘포천’지 기자 출신인 알프레드 존스가 만든 용어. 투자자 자금을 담보로 돈을 차입해 수익률을 증폭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일반적인 주식 매매 기법 외에 선물투자, 차익거래, 공매도 전략 등 각종 금융 기법을 활용해 돈을 번다.

신현규·이소아 기자

韓美 통화스와프의 기대효과

한국 경제가 비로소 금융 위기 불안감이라는 어두운 터널의 끝을 예감할 수 있는 한 줄기 서광을 찾았다. 달러화를 찍어내는 발권국인 미국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은 제2의 외환보유액 성적을 지닌 300억달러를 언제든지 긴급 수혈받을 수 있게 됐다.

통화스와프란 한마디로 두 나라 간의 일정 계약 조건에 따라 자국 통화를 서로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필요할 때 원화를 미국에 맡기는 대신에 달러화를 들여오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달러화와 다시 맞바꿀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동성·대외신인도 개선 계기

이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스와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다. IMF로부터 받는 것은 국제 금융 성격을 지니고 있어 다양한 정책적 제약을 받고 대외 신인도도 떨어지게 된다. 하지만 한미간 통화스와프는 국가 간 협정이므로 이 같은 부담이 없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는 일단 국내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힘을 실어줄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의 최대 요인 외화 유동성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외환보유액이 충분해다가 미국으로부터 확실히 달러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 심리는 크게 약화될 것이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 환율은 급격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한편 한국 외형채의 신용다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이 하락한 것은 이러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국 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이 그동안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국가들은 영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중심이었다. 대상국 통화가 적어도 국제 결제 통화이어야 하고 국가 신용등급도 상당히 높아야 하는 까닭이다. 물론 미국의 금융 위기가 한국·브라질·멕시코와 같은 중진국으로 파급되면 세계 경제 불안이 더욱 심화되는 데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성장세나 외환보유액 등 기초 여건이 건전하다는 미국의 판단이 이번 통화스와프를

시론



유 병 구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성사시킨 배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외산에서 제기되는 국가 부도설 등은 이제 잠잠해지리라 생각된다.

한미 간 경제 공조 체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국내외에 과시한 것도 향후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막대한 원군이 될 것이다. 한국이 그동안 정치군사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체제' 아래 있었다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달러 우산 체제'에 확고히 편입됐음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통화 협력은 한중일 간 통화 협력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증대시켜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지렛대 역할도 할 것이 기대된다.

정부가 이번 경제 외교의 성공으로 통화 정책을 보다 장기적이며 여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도 뜻 깊은 소득이다. 이제 보다 찬찬히 국내 금융시장의 근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의 완급과 우선 순위를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 금융대책 내놔야

물론 미국 달러화를 빌리지 않고도 외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상수지 흑자 방안과 같은 실물 경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경제 주체들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급등락하는 경제 지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경제 판단과 행위를 해야 시장의 과잉 반응을 억제하고 모두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글로벌화로 경제 위기가 순식간에 전국가로 파급됐지만 역으로 국제 공조 대책이 성공적으로 마련되면 세계 경제 불안이 생각보다 빨리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을 키워주는 일이기도 하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루머에 지배당한 증시

기자 수첩

29일 오후 1시, 이날 증시는 모처럼 급등세로 개장했지만 증권가에 갑자기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지원을 요청한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곤두박질 쳤다. 이날 오전 9시 34분께 1078.33포인트까지 급등했던 지수는 IMF 지원요청설에 순식간에 920선까지 밀렸다.

IMF 지원요청설은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이 지난 27일 IMF의 통화스와프 지원안에 대해 "어떤 조건으로 받는 것인지, 어떤 물건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안 받는다고 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이 확대되면서 비롯됐다.

이는 선진국 중앙은행 간의 달러스와프 협정과 비슷한 것으로 유사시 정책이행 조건없이 지원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IMF 구제금융과는 전혀 다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국내 투자자들은 IMF 단어 자체에 지레 겁을 먹고 한국이 망하게 생겼다고 해석해버렸다.

단순 루머에 증시나 상장사가 뒤



이 은 정
증권부

흔들린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9월 초 겪은 유동성 위기설도 같은 맥락이다. 매년 9월이면 5년물 국고채 만기가 집중됐지만 작년까지만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다. 그런데도 외환보유액이 줄었다는 발표와 국고채 만기일이 겹치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두산그룹, STX그룹, LG전자, 하이닉스, 대림산업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음해성 루머에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심리에 지배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루머에 민감히 반응하며 루머하는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루머에 지배당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이성적인 접근을 해야 할 때다.

mybang21@

한국경제

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A37면

인사

◆하나대투증권○승진(지점장)▷양재 인홍식▷구갈 이성훈▷수지상현 장만준▷종로 서정학▷한남동 한청수▷북수원 김진성▷창원남 김영옥▷대구중앙 장영규▷천안 설근수▷목포 서철길▷서광주 채욱▷서전주 양규형▷의산 정진호(부서장)▷고객지원팀장 이동구▷신라사업팀장 최일만▷P운용팀장 권창진▷영업시스템팀장 윤영준○전보(지점장)▷강남 황보락▷남대문 김원식▷분당 김정곤▷올림픽 진미경▷상계동 조현태▷서초 김선영▷부천 류재경▷신대방 홍영국▷신림역 김주석▷주안 김성숙▷남전동 박태석▷범어동 권영민▷대전 이성경▷전주 문근수▷부평 김장규▷수원 고창웅▷화곡동 추형석▷안양 박근대(팀장)▷업무기획 김규대▷업무개발 정홍관▷상품기획 장기성▷e-Business 박인규▷Wealthcare 서보완▷주식법인영업2 조수연▷기획 강한신▷사무지원 박한옥▷경영지원 정주우

윤리 위반 애널리스트 제재기간 연장 추진

윤리강령을 위반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저하게 공정성을 저해하는 보고서를 내놓았을 때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30일 금융위원회·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사 루머 단속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기로 한 '애널리스트 책임성 강화'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협회는 오는 11월 중 관련 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협회는 우선 현재 규정에

추상적으로 돼 있는 애널리스트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제재조치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협회 규정에 따르면 회사로부터 감봉 등의 조치를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다. 감봉 1~2개월은 1개월, 3~4개월은 2개월, 5~6개월은 3개월 등 감봉기간에 따라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이 구분돼 있다.

협회는 애널리스트로 활동할 수 없는 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배기자 jib@sed.co.kr

사실상 해결 과정을 밟게 된 외화유동성 문제와 함께 원화값 급락의 근원이 됐던 경상수지도 10월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 경제를 통째로 뒤집을 있던 두 가지 악재가 엇비슷한 시기에 해소되는 것이다.

달러부족·경상적자 걱정 덜었는데 한국경제 남은 과제는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경상수지는 12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갔다.

올해 들어 9월까지 누적적자만 138억달러다. 하지만 지난 8월 47억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10월부터 경상수지 적자에 마침표를 찍고 흑자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돼 외환보유액을 고갈시키게 될 것이란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셈이다.

양재룡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돼 상품

외화유동성 부족과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해소되면 한국 경제는 '제2 외환위기' 공포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달러가 부족해 국가가 부도를 내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발동에 떨어진 볼'은 일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원화 유동성 부족 현상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설업종이 대표적이며, 극심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들도 '잠재적인 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가계위기'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 경기 침체와 불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문화가 이자 부담 증가, 집값 급락 등과 맞물리면서 또 다른 금융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시

늘어나는 가계 부채 중소기업 자금난 은행 건전성 쟁거야

수지는 흑자로 전환되는 한편 환율 상승으로 외국여행이 줄고 재외동포 송금이 늘어나면서 여행·경상이전수지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10월 경상수지는 10억달러 이상 큰 폭 흑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 팀장은 "11월과 12월 원유 도입 단가가 추가로 떨어지면 경상수지는 더 개선될 것"이라며 "10~12월 석 달 동안 경상수지 흑자폭은 40억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상품수지도 중화학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한 데다 유가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적자 규모가 8월보다 7억6000만달러 줄어든 20억4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외국여행과 유학연수 비용 지급이 감소해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줄어든 반면 서비스수지도 8월 20억달러 적자에서 12억4000만달러로 적자폭이 줄었다.

다만 자본수지는 외국인 국내 주식·채권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17억8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나리이다.

물론 국내 은행들은 아직까지 연체율을 1%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실여신(NPL) 비율도 상반기 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 부실과 연결된 고리인 LTV(담보인정비율)도 49% 수준으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훨씬 안정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대비를 강조한다.

장재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실물경제 붕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송준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실제로 기계대출이 증가한 계층은 주로 소득 상위계층"이라며 "아직까지 가계부채는 어느 정도 감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최악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우·임성현 기자

글로벌 금리인하 경기침체 막을까

신용경색 해소·투자심리 회복에 도움 '유동성 함정' 빠져 장기불황 우려도

미국과 중국이 금리를 낮추면서 글로벌 금리 인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29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0%로, 제한인율은 연 1.5%에서 1.25%로 낮췄다. 중국도 이날 예금 및 대출금리를 각각 0.27%포인트 낮췄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27일 기준금리를 연 4.25%로 0.75%포인트 내렸다. 31일에는 일본은행이 현재 연 0.5%인 금리를 0.25%로 인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중앙은행(BOE)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ECB가 기준금리를 연 3.25%로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금리 동반 인하는 급속히 확산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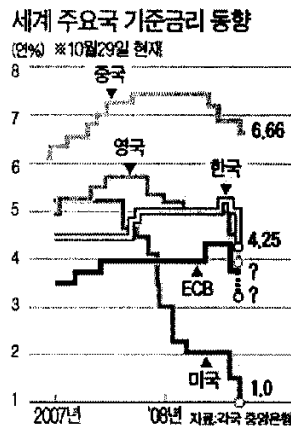
◆금리 추가 인하 이어질 듯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한 달 새 두 번째다. 지난 8일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긴급 공조로 기준금리를 일제히 낮춘 데 이어 다시 금리 인하에 돌입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게다가 앞으로도 추가 금리 인하가 예고되고 있다.

FRB는 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주시하면서 행동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 금리 인하를 내비쳤다.

제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이언 세퍼드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침체를 감안할 때 FRB가 12월16일 회의에서도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로(0) 금리로까지 가는 셈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이 경기 경착륙 위험을 줄이기 위해 내년 말까지 최소 4차례 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사를 시사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국제공조는 유동성 공급으로 이어져 금융시



장의 신용 경색을 해소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 간 공조로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면 얼어붙은 투자심리도 되살아날 수 있다. 또 금리 인하는 기업 및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 금리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금리 인하로 달러화 가치는 유로화에 대해 2%, 파운드화에 대해 3% 급락했다. 10년 만에 최대폭이다. 반면 서부 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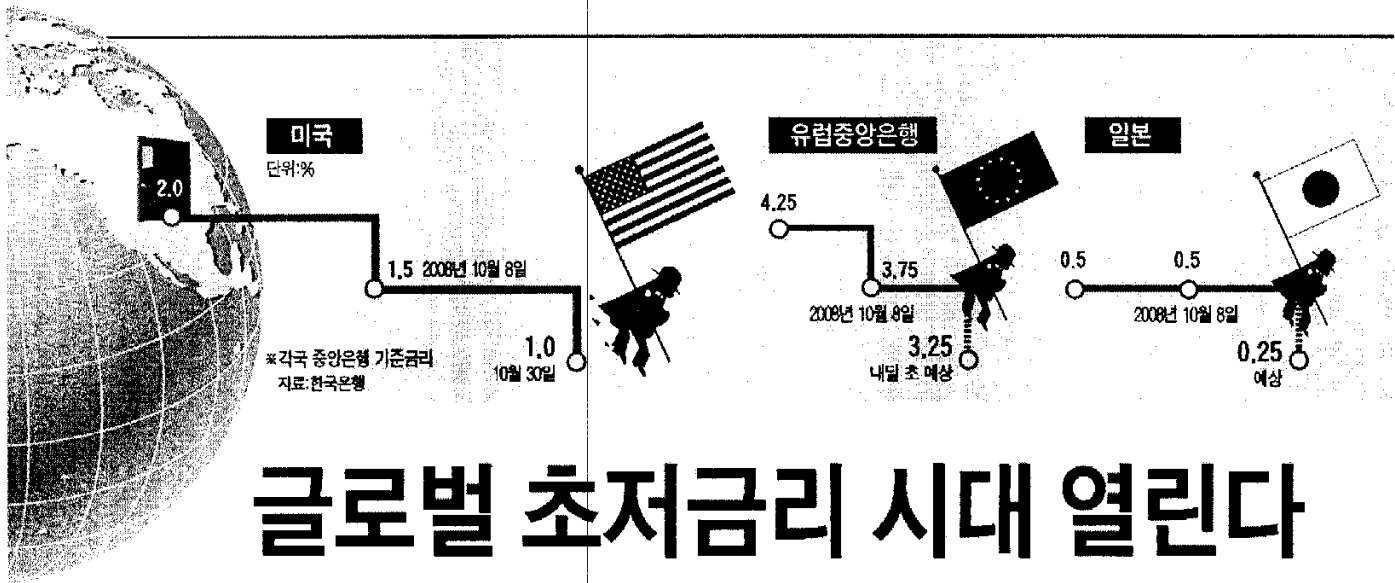
사스 원유(WTI) 가격은 4.77달러(7.6%) 오른 배럴당 67.5달러로 마감했다.

◆경기 회복엔 아직 역부족
하지만 시장에서는 느슨한 통화 정책이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장기 불황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10년 장기 불황을 겪었던 일본이 초저금리 정책 효과를 보지 못한 대표적인 경우다.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지(차입 감축) 현상으로 경제 주체들이 씹씹이를 줄이고 빚을 갚는 데 주력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수요 확대에 이어질 수 없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FRB가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US글로벌인베스터스의 존 데릭 연구원은 "1%의 금리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어져 FRB가 무력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이익원/베이징=조주현 특파원

iklee@hankyung.com



미국 기준금리 1%로 낮춰 제로금리 접근 중... 유럽·일본·중국도 인하 동참

‘글로벌 초저금리 시대’가 시작됐다. 금융위기에도 실물경제의 침체까지 겹치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데 나선 것이다. JP모건체이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 평균 3.4%인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2.8%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2.3%가 될 것으로 보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낮춘다고 발표했다. 이달 들어서만 기준금리가 1.0%포인트나 하락했다. 1.0%의 금리는 195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 이후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2003년 6월부터 1년간 1.0%로 유지했던 게 마지막이다. 금리 인하가 계속돼 내년에는 사실상 ‘제로 금리’로 갈 것이라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도 금리 떨어뜨리기에 동참하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9일 예금·대출 금리를 0.27%포인트씩 내렸다. 지난달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며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세 차례 인하했다.

다음 타자는 유럽과 일본이다. 영국 중앙은행과 유로화 사용국의 중앙은행인 유럽중앙은행(ECB)은 다음달 6

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0.5%포인트씩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하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엔화 조감세에 시달리는 일본도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례적인 금리 인하 공조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실물경제로 옮겨 붙으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은 3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예고돼 있다. 얼마 전까지 경기 과열을 걱정했던 중국도 마찬가지다.

각국이 신속히, 그것도 함께 금리를 내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80년대 후반 버블이 폭발했지만 일본은 금리 인하에 주춤했다. 결국 타이핑을 놓쳤고, 이후에는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효과가 없는 장기 불황에 빠졌다. 대공황 때는 세계 각국의 불협화음이 문제가 됐다. 경제가 위축되는 데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경쟁적으로 무역장벽을 높이다 결국 파국이 왔다.

하지만 상황이 단번에 호전되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이 많다. 주요국들의 기준금리는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극심한 신용 경색이 풀리지 않으면 금리를 내려도 돈이 돌지 않아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조민근 기자 jming@joongang.co.kr

美 금리 1% 시대

FRB, 역대 3번째 1%로 인하
전문가 “효과 얼마나 볼지…”

【뉴욕=정지원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이사회(FRB)가 29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0%로 또다시 인하함에 따라 금융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FRB가 금리를 1.0%로 내린 것은 지난 1958년과 2003년 이후 역사상 세번째다. FRB는 닷컴 붕괴에 이어 9·11테러까지 겹치며 미국 경제가 침체되자 지난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1년간 연 1.00%의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이 5년 전과 비교해 판이하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경기후퇴 우려가 여전하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언급에 따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이미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금리인하 조치가 과연 얼마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던지고 있다.

통화정책 전문가들은 금리가 연 1%나 그 아래로 떨어질 경우 유동성 함정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동성 함정은 금리를 내려도 별다른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시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리인하 조치가 실물부문과 경제주체들에 가져다 주는 심리적 효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제기하고 있다.

또 신용도가 우수한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에 지금 조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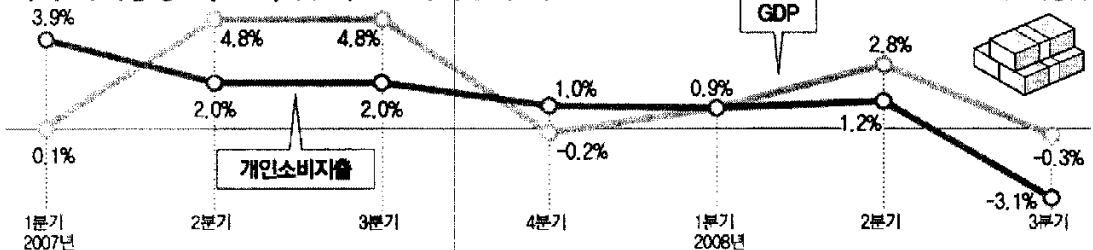
한편 이번 금리인하 발표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주요 통화에 대해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이날 뉴욕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는 유로화에 대해 1.2855달러에 거래돼 전날보다 가치가 2.1% 떨어졌다. 달러화는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도 1.6358달러에 거래돼 무려 2.9%가 떨어졌다. jung2@innnews.com

東亞日報

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A04면

미국 국내총생산(GDP) 및 개인소비지출 추이



美정부, 모기지부실 직접 구제 나선다

주택 압류위기 300만 명에 6000억 달러 재계약 보증 검토
3분기 GDP 0.3% 감소 '7년만에 최악'... 예상보다는 좋아

미국 정부가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300만 건의 모기지 재계약을 직접 보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행과 모기지 회사 등이 모기지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주거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는 대신 나중에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대신 갚아준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압류 방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와 워싱턴포스트 등이 2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400억~5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만 명의 주택 보유자가 안고 있는 60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 계약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주택 보유자의 상환능력을 토대로 월 상환금액을 줄이거나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보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는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은행에만 도움을 줄 뿐 주택 보유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분석했다.

한편 미 상무부는 30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이 0.3% 감소해 분기 기준으로 7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경기침체를 겪었던 2001년 3분기(-1.4%) 이후 최악의 실적이지만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0.5%)보다는 나은 수치다.

미 GDP의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지출은 3.1% 감소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1980년 이후 최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가구 등 내구재 소비지출(-14.1%)이 극도의 부진을 보였다.

뉴욕=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이성록 기자 myzodan@donga.com

“미국을 바꾸자” 오바마의 꿈 이뤄질까



- 1 인종·빈부·이념 갈등 치유
- 2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
- 3 금융위기 극복 경제 살리기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 미국 역사가 새로 쓰여질까. 인종과 세대와 이념 장벽을 뛰어넘으며 전 세계에 미국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나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는 지지율과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에서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치 전문 온라인 매체인 리얼클리어폴리틱스닷컴이 내놓은 선거인단 확보 예상치에 따르면 오바마 후보는 311명을 확보해 142명에 그친 매케인 후보에 2배 이상 앞섰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스윙 스테이트(격전 지역)에 배정된 85명을 매케인 후보가 모두 가져 가도 역전승을 거두기는 힘들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율에서도 오바마 후보는 매케인 후보에 6~14%포인트까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이번이 없는 한 오바마 후보 승리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오바마 후보 당선은 뿌리 깊은 인종 갈등 역사로 지난 200여 년을 보내온 미국에서 ‘아프리카인 아메리칸(흑인) 대통령’ 출현이라는 자체만으로 상징성을 갖는다.

흑인은 성별·인종·출신을 아울러 ‘마이너리티’를 대표하는 개념이었다. 겉으로는 인종 차별 불가를 외치지만, 인종 차별을 부인할 수 없는 본능적 감정을 이성과 타율적 강제로 억눌러 왔던 것이 미국 사회였다. 그런 미국 사회에서 흑인 대통령 탄생은 혁명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하지만 오바마 후보는 흑인이라는 약점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흑백, 빈부, 보수·진보 등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것을 기치로 내걸어 성공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 오바마 후보가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더 인기를 얻는 것은 이런 점에 대한 갈채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갤럽이 미국을 제외한 70개국에서 미국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바마 후보가 30%를 얻은 데 비해 매케인 후보는 8%에 그쳤다.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기간 8년간 보여준 미국 이미지에 대한 반감이 오바마 후보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오바마 후보는 이런 점을 겨냥해 국제사회에서 곤두박질친 미국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라크 전쟁에서 철군하고 불량국가 지도자들 파도 대화하겠다고 오바마 후보 발언은 힘이 아니라 대화로 평화를 끌어내겠다는 강대국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는 오바마 후보에게 미국인 믿음을 이끌어내는 데도 일조했다. 사실 미국 공화당은 금융위기로 자멸한 측면도 있다.

나라로 빠져든 경제를 회생시키려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하며 오바마 후보 자신이 앞장서겠다는 호소는 먹혀들었다.

오바마 후보는 29일(현지시간) 주요 공중과 방송과 케이블 TV를 통해 마지막 광고를 내보냈다.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된 날에 맞춰 내보낸 광고는

버락 오바마 프로필

출생	1961년 8월 4일(47세) 하와이 호놀룰루
인종	흑백 혼혈인(케냐 출신 버락 후세인 오바마, 백인 모친 스텔라 앤 덴햄)
종교	기독교
학력	컬럼비아대, 하버드 법과대학원 하버드 로스쿨 학회지 첫 흑인 편집장
경력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연방 상원의원
가족	친할머니 사라 후세인 오바마(86), 외할머니 메들린 덴햄(85), 아내 미셸(44·시카고 대학병원 부원장), 2녀(말리아, 사샤)
부통령후보	조셉 바이든 델라웨어주 상원의원
출연	꿈었다 괴웠다 반쪽, 대선기간 출연
음주	와인 맥주 등 선호, 1000병 규모 와인저장고 보유
저서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1995) ‘담대한 희망’(2006)
노래	제즈 록 노래 선호, 지주 흥얼거리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
존경하는 인물	존 F 케네디, 해리 트루먼, 로널드 레이건
운동	농구(수준급)
징크스	선거 전날 농구를 하면 이긴다. 이라크 주둔 병사 팔찌 소지

대공황에 비견되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 고통과 애환을 달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자녀 3명을 키우느라 남편 수술까지 미룬 백인 아줌마,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부인 약값을 대기 위해 72세 나이에 세일즈 회사에 다니는 흑인 할아버지, 포드사에서 해직돼 생계가 막막한 가장 등을 등장시킨 광고에서 오바마 후보는 경제위기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보통가정에 대한 정책을 그려냈다.

오바마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시대 도덕적 가치를 회복시켜 미국이 다시 세계에서 자유와 평화, 미래의 상징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최후의, 최고의 희망임을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등장은 21세기 미국이 달라져야 할 모습을 기대하게 만드는 창이다. ▶관련기사 A20면

<美주가 '널뛰기' 3가지 이유>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잠깐 눈 돌린 사이에 300포인트가 넘게 급락했다?"

대개 주식시장의 약세장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마련이지만, 지난 29일에는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가 장 막판 6분 사이에 300포인트가 넘게 급락하는 등 최근의 변동성 장세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29일 다우지수는 폐장을 10분여 남겨놓고 전날보다 250포인트가 상승한 수준을 보이다 순식간에 급락, 결국 전날보다 72포인트가 떨어진 채 마감됐다.

미국 CNBC방송은 30일(현지시간) 최근 뉴욕증시의 주가가 급변동하는 이유로 정보유통의 속도와 트레이더들의 매매전략, 청산 매매 등 3가지를 꼽았다.

최근의 약세장이 과거의 약세장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전자매체를 통해 정보가 이처럼 빠른 속도로 유포된 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나 루머가 인터넷 등을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확산되기 때문에 정보의 시차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런 정보의 신속한 유포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 시장에 광범위하게 퍼진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

신시내티 소재 셰퍼스 인베스트먼트 리서치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리처드 스파크스는 "우리는 과거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장 상황속에 있다. 시장에 불안감이 얼마나 확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떨어질 때 사서 오를 때 파는 전통적인 트레이더들의 매매전략도 다우 지수가 급등락하는 원인이다.

트레이더들은 약세장에서 주가가 오르면 차익실현을 위해 보유 주식을 매도하게 되는데 특히 장 막판, 또는 주가가 크게 높은 수준이거나 낮은 수준일 때 이런 매수 매도가 집중돼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약세장에서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적은 물량의 거래로도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밖에 선물거래 등에서 주가가 급등락해 손실을 본 경우 증거금 부족으로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받게 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주식을 팔아야 하고 마진콜에 응하지 못해도 청산매매 되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게 된다.

hoonkim@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등록일 : 10/31 06:47

美 3분기 GDP성장률 -0.3%

금리 추가인하 가능성 커져...다우 2%대 상승 출발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로 옮겨가면서 미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만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연내 추가로 기준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커졌다.

미 상무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연율 기준·잠정치)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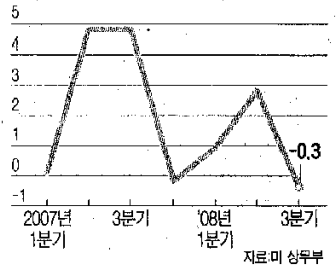
이는 2001년 3분기(-1.4%)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내수 판매가 1.8% 줄어 17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냈으며 소비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3.1% 감소했다.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설비 투자도 1% 줄었다. 특히 주택 투자는 19.1% 감소해 11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난 2분기 13.2% 증가했던 수출은 3분기에 5.9% 늘어 수출 증가율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조정 세후 소득은 8.7% 줄어 1947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분기 기준으로 최대폭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6.1%인 실업률이 8%대로 치솟으면서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경제가 위축돼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긴 경기 침체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FRB는 전날 신용 경색이 지속될 경우 개인 소비가 줄고 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기준 금리를 연 1%로 낮췄다.

미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전분기 대비, 연율)



한편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인 -0.5%보다 다소 높게 나오자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는 개장 직후 2.5% 오른 9212.30선에 거래됐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

한 국 경 제

中의 '홍콩 구하기' ... 금융대책 공동마련

홍콩 기준금리 0.5%p 인하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고 있는 홍콩 구하기에 나선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30일 금융위기로 타격 받고 있는 홍콩을 모든 노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순방길에 가진 홍콩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홍콩의 금융당국자가 비상계획을 공동 수립하고 △홍콩과 관련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조기에 착공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한 홍콩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인들의 홍콩 방문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홍콩과 주하이, 마카오를 잇는 세계 최장의 다리를 조기에 착공하고 쌀 등 식료

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물가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특히 양측 금융당국자가 공동으로 비상계획을 수립토록 한 것은 필요할 경우 중국의 재정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콩은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에서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졌으며, 리먼브러더스의 소액채권(미니본드)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집단사위를 벌이면서 정부가 은행에 원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또 매릴린치는 내년 홍콩 중심지 상업 건물의 가격이 최대 50%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는 등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콩은 이날 기준금리를 연 1.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

한 국 경 제

中 세계 금융위기 구원투수인가 달러화에 맞서 새맹주 노리나

【베이징 최경선 특파원·서울 오재현 기자】 약 2조달러에 이르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액을 거머쥔 중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이며 '구원투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기축통화로 통용되는 달러화에 반기를 들고 위안화 경제권을 확대하려는 야심도 드러내고 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데 중국 목소리는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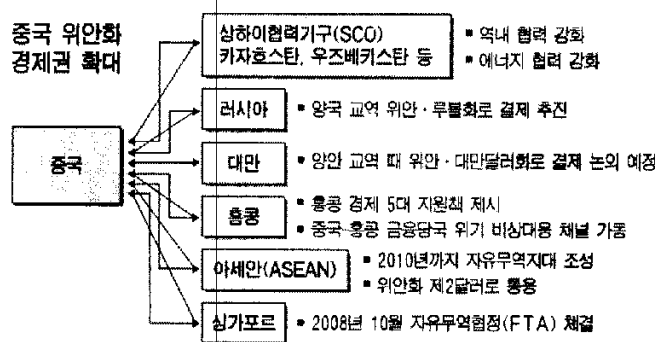
◆미국 국채 독식하는 중국

8월 말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5410억달러로 7월 말보다 223억달러 늘어났다.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매입했다. 이에 비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8월 말 5859억달러로 7월 말에 비해 75억달러 감소했다.

올해 들어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47억달러 늘어난 데 그쳤지만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634억달러 늘어났다. 여기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8월과 9월에 각각 79억달러, 8억5100만달러 감소했다. 중국이 미국 최대 채권국으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웅단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금융위기에



美국채 보유액 급증 곧 일본추월 화교권 넘어 러시아까지 영향

대처하기 위해 시장에 투입할 자금은 1조달러 이상일 것"이라며 "이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대량 발행하거나 달러를 많이 찍어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위 소장은 "어느 방식이든 그 손실은 채권국이 떠안아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확대되는 위안화 경제권

그럼에도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 목소리와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29일 원자바오 총리는 홍콩 경제에 대한 5가지 지원책을 내놓으며 "중국과 홍콩 당국이 금융위기 비상대응 채널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총리는 "홍콩 당국이 일련의 대책을 내놓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했지만 위기 진행과 관련한 정책조정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1국 양제'라는 독

특한 체제에 홍콩 경제의 자율성을 보장해온 중국이 위기사태를 맞아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력과 관리를 크게 확대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과 홍콩 사이 경제 결속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러시아·대만·싱가포르·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으로 위안화 영향력은 커져가고 있다. 러시아와는 양국 무역을 달러화 대신 위안화나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대만과도 양안 교역을 위안화나 대만달러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 총리는 이날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의를 위해 카자흐스탄도 방문했다.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6개 회원국과 함께 인도 이란 몽골 파키스탄 등이 옵서버로 참

가하는 이 지역협력체에서도 달러화 기축통화에 대한 수정 논의가 제기된다면 중국의 위안화 경제권은 급속히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지원 과정에서도 적극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가능한 범위에서 IMF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구제·지원 계획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발생 후 국제 경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더 많은 발언권과 역할 확대를 희망하는 중국이 향후 IMF 구제금융기금 출자에 어느 정도로 참여하게 될지 주목된다.

◆아직 역부족 지지도

하지만 중국 경제 영향력을 확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많다.

한동훈 가톨릭대 국제학부 중국경제담당 교수는 "세계 경제무대에서 위안화를 앞세운 중국이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무엇보다도 위안화 경제권을 형성하려면 중국으로 외환유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원 총리도 29일 "중국은 능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말하면서도 "중국 지도부와 인민은 냉철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자만심을 경계했다. 기존 경제질서에 급격하게 반기를 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日 27조엔 추가 부양안 마련

실질 재정지출은 5조엔... 민생·금융시장 안정에 초점

일본 정부가 총 27조엔 규모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일본은 지난 8월의 종합경기대책(약 12조엔)에 이어 '두 번째 부양 카드'를 내놓게 됐다.

이번 부양안에서 재정 지출액은 5조엔가량이며 금융기관 보증 등을 포함하면 26조9,000억엔에 달한다.

30일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는 자국 내 모든 가구에 장액으로 급부금(給付金)을 지원하는 등의 민생 안정책과 금융시장·부동산 시장 안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2차 경기 부양안을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번 부양안에서 당초 논의됐던 장액 감세 대신 약 2조엔 규모의 급부금을 모든 세대에 나누주는 소비 진작책을 선택했다. 3월 말 현재의 전국 세대수로 단순 평균할 경우 한 세대당 약 3만

●일본의 2차 경기부양안 주요 내용

〈민생 안정책〉

- 2조엔 규모 장액 급부금, 전 가구 지급
- 주택용자금세 연장
- 비정규노동자 고용안정대책 강화

〈금융시장 안정강화〉

- 금융기능 강화법 부활
- 증권우대세제 기한 연장
- 중소기업 자금융통 지원
- 중소기업 법인세 감세

〈기타〉

- *고속도로요금 대폭 인하
-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강화

8,000엔이 돌아간다. 아소 총리는 4인 가족의 경우 약 6만엔의 급부

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 부양을 위해 총 5,000억~6,000억엔을 투입, 연말로 만료되는 주택용자에 대한 세제 감세를 연장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능 강화법을 부활시켜 공적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보유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한시적으로 적용시켰던 증권우대세제 혜택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신용보증 범위 확대에 필요한 출자금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교부금(6,000억엔)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단기적인 비용감소 효과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도 인하(총 5,000억엔 상당)한다.

이어 아소 총리는 "소비세 인상은 경제 정세의 변화를 본 3년 후쯤으

로 부탁하고 싶다"고 덧붙여 향후 3년간 감세를 선행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대책에 포함된 중소기업 지원책 등을 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을 조기 편성, 현재 개원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정 예산안의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오는 11월 실시 가능성이 제기돼 온 중의원 총선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소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현 단계에서는 민생 안정에 치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 중의원 해산 및 총선거를 재고할 방침임을 나타냈다. 지지율 저하로 의회 해산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경기부양 등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 지지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계산도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희원기자 heewk@sed.co.kr

노르웨이·대만도 금리인하

각각 0.5%P·0.25%P 내려... 日·EU도 합류할듯

미국과 중국에 이어 노르웨이와 대만이 금리를 내렸다. 일본, 유럽 연합(EU), 영국은행 등도 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볼레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대만 중앙은행은 열흘짜리 대출금리를 3.25%에서 3.0%로 낮췄다. 최근 두달 사이 세 번째로 이뤄진 금

리 조정이다. 이에 앞서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5.25%에서 4.75%로 0.5%포인트 인하했다. 전날 미국과 중국이 금리를 낮춘 데 따른 동조 움직임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의 금리 인하 여부다.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7개국(G7)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며 공조할 때 참

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른 중앙은행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볼레비그통신은 일본은행(BOJ)이 인פק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어 금리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일본은행이 0.5%인 금리를 0.25%로 0.25%포인트 낮추는 것을 검토 중

이라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제기된 후 엔화가 약세로 전환됐고 일본 증시가 폭등한 점을 들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전망했다. 스미토모모쓰비시자 산운용의 이코노미스트인 무토 히로아키는 "투자자들이 이미 금리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일본은행이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은행도 다음 주 중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CB는 금리를 3.25%로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보인다. /문병도기자 db@sed.co.kr

러, 신흥재벌 구제 나선다

알파그룹에 수십억달러 지원... 재벌 지배력 강화할듯

러시아 정부가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올리가르히(신흥재벌)' 구제에 나섰다.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선별적인 구제를 통해 재벌에 대한 정부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WSJ는 러시아 정부가 지난 9월 조성한 구제금융 기금으로 신흥재벌 마하일 프리드만의 알파 그룹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도이체방크 등으로부터 20억달러를 빌리면서 이동통신회사 OAO 밌멜통신의 지분 44%를 담보로 제공한 프리드만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분을 일

을 지 모를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러시아 재벌과 기업들은 대출을 갚지 못해 담보를 떠일 상황에 놓여 있다. WSJ는 기업들의 구제금융 지원요청이 늘면서 전체 지원요구액이 1,000억달러에 이른다고 러시아 정부가 어떻게 구제금융을 분배하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생사가 갈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점에서 올레그 데리파스카의 유나이티드 루살이 어떻게 될지가 관심사다. 데리파스카는 노틸스크 니켈의

지분 25%를 담보로 메릴린치와 로열뱅크 오브 스코틀랜드(RBS)로부터 빌린 45억달러에 대해 31일까지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분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신 우선주나 전환사채 등 지분을 받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기업 구제 계획이 주요 자산을 국유화하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파이낸셜
뉴스

2008년 10월 31일 금요일
004면

IMF, 신흥국 지원 잇따라

아르헨티나는 제외

유동성 위기에 몰린 신흥국에 대한 지원방안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이 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9일(현지시간)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예외적인 시기에는 예외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며 "IMF는 이번 위기에 대응해 필요한 모든 재원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신흥시장 회원국들이 IMF 쿼터의 5배까지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통상 IMF는 회원국 쿼터의 3배까지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제 신용경색으로 단기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가운데 그동안 경제적 성과가 양호

한 나라들이다.

이 같은 조건 때문에 현재 유동성 위기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아르헨티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스트로스 칸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아르헨티나가 지원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조건이 붙는다는 단서를 달고 "아르헨티나는 지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헝가리가 IMF를 포함해 유럽연합(EU)과 세계은행으로부터 250억달러를 지원받기로 한 데 이어 IMF는 현재 파키스탄, 벨로루시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이에 따라 국가부도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부실 민영연금보험을 국영화한다고 밝혀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dympna@innnews.com | 송경재기자



국제금융·통화체제 권위자

배리 아이젠그린 UC버클리대 교수

【뉴욕 워싱턴 특파원】 국제금융과 통화 체제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배리 아이젠그린 UC버클리대 교수는 “세계 금융위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다음달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새로운 통화 체제를 도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9일(현지시간)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과거 브레턴우즈 체제를 준비하는 데만 3년이 걸렸고 지금은 새 체제를 논의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나 빈곤 등 문제로 의제를 확대하기보다는 금융위기 해법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 화폐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 금융시장을 떠날 만류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함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은행 자료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아이젠그린 교수는 “단기적으로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서고 원화는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안화 기축통화 우리 세대엔 불가능

—신브레턴우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신브레턴우즈 체제는 어떤 모습일 것인가.

▶신브레턴우즈 체제는 기존 브레턴우즈 체제와 비슷할 것이다. 아쉽게 추진되는 신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끝날 것이다. 금융시장 운영을 강화하고 현 위기를 유발한 문제점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용한 변화 조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 금융감독 기구나 새로운 세계 통화 체제에 대한 합의는 없을 것이다.

—신브레턴우즈 체제 설립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원래 브레턴우즈 회의는 사전 준비를 하는 데 3년이 걸렸고 본회의만 3주 동안이나 지속됐다. 지금은 아직 일정 수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는.

▶가장 큰 이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번엔 지구 온난화 문제, 세계 빈곤 종식, 세계 단일 통화 창조 등으로 논의할 확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의제는 좋은 복면이지만 보다 더 급한 과제가 있다. 바로 금융위기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새로운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어느 국가든 금융시장 개혁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나라가 지도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중국이나 영국 통화와 달러를 대체하거나 기축통화로서 부상할 수 있다

G20회의서 새 통화체제 합의 어려울듯

준비기간 짧아 新브레턴우즈 기대 일러

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중국이 국제 통화시장을 떠날 수 있을 정도로 유동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는 오랫동안 그 기능을 잘해내지 못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해법은 없는가.

▶은행 자본 확충, 부실자산 청소, 금융산업 축소, 재정적인 경기부양책 적용 등 필요한 정책들이 국가별로 시행돼야 한다. 각 국가 정책이 국제적으로 공조를 이룬다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G20 회의는 이 같은 국제 협력을 마련하기 위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제금융안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현 상황에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우선 시장에 유동성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은행 간 거래에 대해 보증을 함으로써 금융산업이 더 이상 위기를 몰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금융위

기를 촉발한 주택위기를 해결해야 하고 민간 부문 수요 붕괴를 회복시키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이와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시장 규제를 개혁해야 하고 카운터파트너(거래 상대)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파생상품 거래를 보다 조직화된 거래로 유도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 현 상황에서 ‘V자형’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다.

—금융위기는 언제 끝날 것으로 보나.

▶위기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아마도 2009년이면 다행일 것이다. 전 세계 경기 침체가 끝나고 회복세로 돌아서는 것은 아마도 2010년이 되면 다행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는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 지금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정책 입안자들이 갖고 심각한

한 경기 침체를 조금이라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갔고 이번 침체는 보다 깊고 오래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경기 침체는 과거와는 다르게 깊고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다. 25년래 가장 심각한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한국도 외환위기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1998년에 비해 매우 건전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수출의존도가 높고 국제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 중에서 2008년에서 2009년에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미국 자금시장이 신용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값이 올라가고 원화값은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나.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 은행과 한국 경제에 대한 염려가 계속될 것이다. 반면 달러화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선호하는 대상으로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원화값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좀 길게 보면 달러화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 은행과 같은 외국 투자자들이 더 이상 미국 경합수지 적자를 위해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가치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 He is

1919년 이후 유럽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세계경제의 구조적 역학관계를 1920년의 대공황과 연결시켜 분석한 논문으로 명성을 얻었다. 1997년부터 2년간 국제통화기금에서 정책 수석자문위원을 지냈으나 IMF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제통화기금의 역사” “글로벌 세계: 금스탠더드와 대공황” “자본흐름과 위기” “글로벌 불균형” 등이 있다.

달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아시아통화기금 만들어야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과도한 달러의 출력거림에 따른 불안정성에서 벗어나려면 아시아 공통화폐나 아시아 통화기금 설립이 필요하다.”

유로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199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는 “최근 촉발된 세계적 금융위기는 글로벌 통화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국제통화체계가 없기 때문”이라며 “최근 유럽 정상들이 각국 외환보유액과 환율을 통제하는 신 국제통화체제 창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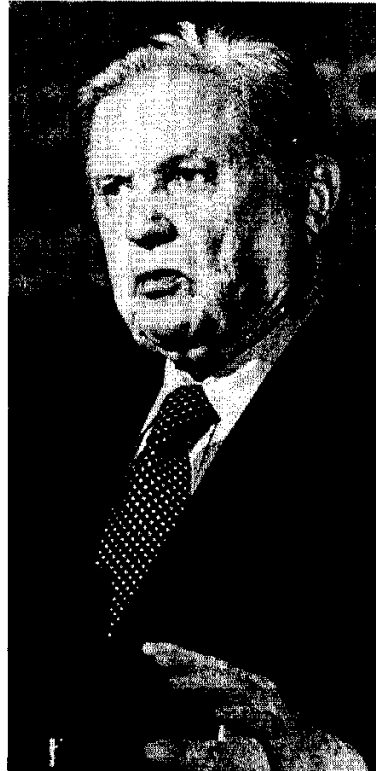
먼델 교수는 30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건국 60주년 기념, 세계지도자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아시아 지역도 자체적인 공통화폐나 아시아통화기금(AMF·Asian Monetary Fund) 설립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시아통화체제 건설을 위해 먼델 교수는 먼저 아시아 각국이 경제력에 따라 AMF에 국내자산·외환·금의 형태로 기금을 출연해 축소된 형태의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볼 수 있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또 먼델 교수는 공통화폐 구축을 위한 4단계안을 제시했다.

첫 단계로 원화·엔화·위안화 등 아시아 통화를 달러화에 대해 일정 범위의 변동폭(밴드)에서만 움직이도록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하고, 두 번째는 AMF 창설과 함께 아시아단일통화인 ACU(Asia Currency Unit)를 도입하는 단계다. 이때 ACU 환율을 달러화와 고정시킨다. 3단계는 아시아 각국의 개별통화를 ACU에 고정시키고, 마지막 단계는 ACU를 달러와 독립된 실질적인 아시아통화로 정립시키는 것이다.

공통통화를 갖게 되면 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먼델 교수는 먼저 역내 환율이 안정돼 무역과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진단했다. 또 아시아의 힘이 강화되고 아시아 국가 간 불안정한 환율 출력거리를 방지하는 한편 환율문제에 따른 무역 마찰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 먼델 교수의 설명이다. 먼델 교수는 “10년 후면 아시아에도 공통통화, 통화연맹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도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을”이라고 밝혔다. AMF 본부가 위치하는 곳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본부를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와 사회적 배경이 다른 아시아 국가 간 공통정책 합의도 쉽지 않고 역내 전쟁 등 안보위협이 여전히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델 교수는 또 국제통화체제도 지나친 자유방임에서 벗어나 환율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혁할 것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먼저 G5통화(달러, 유로, 엔, 위안, 파운드) 간 환율 안정성 확보를 촉구했다. 달러·유로화 간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해 일 환율변동폭을 정해놓을 경우 환율변동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단일 통화인 인토(INTOR·in-



실물경제 무너지지 않아
최악 상황은 지나갔다

ternational currency)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로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는 언론 매체가 호들갑을 떠는 것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먼델 교수는 “실물경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비관론자들이 잘못됐음이 곧 판명될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다”고 강조했다. 달러화와 관련해 먼델 교수는 “최근 달러강세는 달러화 수요가 늘어난 데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 경제 회복이 지속되는 한 달러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동권 기자·사진/김성중 기자

▶ He is

로버트 먼델 교수는 캐나다 출신 경제학자로 199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먼델 교수는 고정환율제와 단일통화를 지지하는 학자로 유명하다. 그는 고정환율제를 도입하면 전 세계적인 환율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먼델 교수는 불안정한 환율 움직임이 아시아 외환위기의 최대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단일 통화에 대한 먼델 교수 신념은 1990년에 유럽 통화 통합과 단일 경제권 조성이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신경무

朝鮮漫評

kmshin@chosun.com



김용민의 그림마당
yongmin@kyunghyang.com



한겨레
그림판

장봉균
jang@hani.co.kr



서울만평

백무현 bmh@seoul.co.kr



‘IMF 망령’에서 벗어났다

주가 115.75포인트 올라 달러 환율 177원 내려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외환위기 가능성 사실상 사라져

안 될 것 같던 미국 ‘달러 우산’ 로즈 씨티 부회장이 없었다면...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타결

강만수 “한국이 미국채 팔면 당신들 손해”

외환위기 때 인연 로즈 부회장 만나 호소

로즈, 뉴욕은행 총재 설득...11일 만에 OK

주가 +115P

사상 최대 폭등...상한가 375개 종목

환율 -177원

은행 외채 지급보증안 본회의 통과

日, 27조엔 풀어 경기부양

4인 가족엔 77만원어치 현금+상품권 지급

서울교육위 ‘국제中 동의안’ 가결
대원-영훈중 내년 3월 개교 가능

수도권産團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

〈산업단지〉

내년 3월부터 대기업 규제 풀려... 산업단지外 증설-이전도 가능